

성경의 핵심용어 해설
Key Bible Concepts

Key Bible Concepts

David Gooding
John Lennox

Myrtlefield Encounters

www.myrtlefieldhouse.com

국립중앙도서관 출판예정도서목록(CIP)

성경의 핵심용어 해설 / 지은이: 데이빗 구딩, 존 레녹스 ;
옮긴이: 허성훈. — [서울] : 형제들의집, 2017
p. ; cm. — (기독교 변증서 시리즈 ; 1)

원표제: Key Bible Concepts

원저자명: David Gooding, John Lennox

영어 원작을 한국어로 번역

ISBN 978-89-93141-92-4 03230 : ₩9000

성경 해석 [聖經解釋]

233.08-KDC6

220.6-DDC23

CIP2017023547

성경의 핵심용어 해설

데이빗 구딩, 존 레녹스 지음 | 허성훈 옮김



형제들의 집

목 차

제 1장 서론	11
제 2장 기록 : 하나님의 위엄, 순수성, 아름다움, 그리고 사랑.....	23
제 3장 죄 : 질병, 그 증상과 치료.....	35
제 4장 화목 : 화평으로 가는 길.....	47
제 5장 칭의 : 법적으로 의롭게 함.....	58
제 6장 속전과 구속 : 자유의 대가.....	70
제 7장 영생 : 지금 이 곳에서.....	82
제 8장 회개 : 잘못을 시인하는 것 이상의 행위.....	93

제 9장 믿음 : 맹신이 아님.....	105
제 10장 믿음 : 증거에 대한 반응.....	116
제 11장 믿음 : 믿는 대상이 누구냐는 문제.....	138
제 12장 성화 : 부전자전(아들이 아버지를 닮는 것).....	150
제 13장 성화 : 노예가 아닌 아들.....	161
제 14장 최후의 심판 : 공의의 요구.....	172
제 15장 최후의 심판 : 하나님의 선하심과 엄위하심.....	183
제 16장 구원 : 대단히 광범위한 용어.....	195



“삶이 영원을 목표로 한다면,
인생의 모든 과정은 영원의 의미를 가질 것이다.”

- 데이빗 구딩

“믿음은 증거에 대한 반응이지,
증거 없는 허망한 것을 바라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다.”

- 존 레녹스



제 1장

서론 / Introduction

성경은 인류의 사상과 철학에 엄청난 영향을 끼쳐왔고, 또 지금도 여전히 그러하다. 이러한 성경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면서 자신을 교양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긴 어렵다. 성경은 지금까지 인쇄된 책 중에서 가장 먼저 (1455년 독일 마인즈의 구텐베르크 신문사에서 라틴어로 번역됨) 가동 활자로 인쇄된 주요 서적이다. 역사 이래로 성경만큼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지고 또 많은 언어로 번역된 책은 없었다.

이 책을 읽어가다 보면, 어떤 의미에서는 친숙할지라도, 전문 용어로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금방 이해할 수 없는 단어와 개념들을 만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 사실이 독자들의 흥미를 떨어뜨리기

보다 오히려 증가시킬 것이다. 그 이유는, 현대를 사는 우리 모두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전문 지식 분야에서 전문 용어의 의미를 배우고 숙지해야 할 상황을 만나게 되는데, 이러한 용어들을 이해할 때에야 비로소 배움에 대한 참된 즐거움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한 소녀가 훌륭한 요리사가 되고자 한다면, 볶기, 굽기, 튀기기, 졸이기, 끓이기 등의 용어의 차이와 음식의 종류에 따라 서로 다른 조리 방법을 사용해야 하는 이유를 알아야 한다. 또 자동차 정비사가 되고자 하는 소년은 피스톤, 기화기, 실린더 등이 무엇이며, 휘발유 엔진과 디젤 엔진의 차이, 그리고 클러치, 기어, 가속기 등의 용도가 무엇인지 알고 있어야 한다. 그리고 우리가 어떠한 목적으로든 컴퓨터를 배우고자 한다면, 반드시 숙지해야 할 많은 전문 용어들을 만나게 될 것이다.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성경도 용어를 숙지하면 의미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성경을 공부하는 사람들에게는 의사소통 능력이 향상되어 전혀 새로운 세계를 들여다 볼 수 있는 창이 열리게 된다.

따라서 이 책에서는 이러한 성경의 전문 용어들을 공부할 것인데, 특히 서론에서는 본문에서 다루게 될 영역을 간략히 살펴볼 것이다.

거룩

모든 논리의 시작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을 묘사하는 가장 중요한 용

어플 중 하나는 ‘거룩’ 이기 때문에 ‘거룩’ 으로부터 모든 논리가 출발해야만 한다. 하지만 바로 여기서부터 반대에 부딪히게 된다. 어떤 사람은, “저는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거룩에 대해서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건 별로 관심이 없어요. 저는 신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아요.” 라고 말한다.

이는 매우 흥미로운 주장이다. 첫 두 문장은 분명 그럴듯한 말이다. 하지만 마지막 문장은 전혀 사실이 아닐 수 있다. 수 세기에 걸쳐 인류 역사가 이를 비중 있게 부인하고 있다. 물론 이는 전적으로 ‘신’ 을 어떻게 정의하냐에 달려 있다. 여러 시대를 거쳐 수많은 사람들이 “신은 죽었다” 고 한 니체의 주장에 동의했고, 유일하신 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그들의 마음에서 완전히 지워버렸다. 그들의 노력이 어느 정도는 성공했을지 모르지만, 분명 이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만 했다. 이는 그 이후 그들이 신을 완전히 부정하는 세상에서 지적으로나 감정적으로 행동하며 살아가는 것이 실제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그들은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자신들의 마음 속 빈 공간을 유일하신 참 하나님 대신 다른 모든 잡신들로 채우게 되었다.

심지어 가장 강경한 무신론자도 자신과 우주를 존재하게 한 세력이 무엇이며, 또 장차 이들 모두를 멸망시킬 세력이 무엇인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는 이것을 ‘신들’ 이라 부르지 않을지도 모르지만 오히려 그렇게 부르는 것이 나을 것이다. 왜냐하면, 궁극적으로 자신을 통제하는 세력은 신들이지, 자신이 그 신들을 통제하지는 못하기 때문

이다. 이 무신론자는 인격적인 창조주에 대한 관념을 무시한 채, 무정하고 비인격적이며 맹목적인 물질이나 힘이 자신과 우주를 존재하게 한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리하여 그는 자신이 존재하는 것에는 어떤 목적이 있을 거라는 모든 희망을 한방에 날려버린다. 하지만 그는 곧 자신이 삶에 대한 어떠한 목적도 없고, 자신보다 큰 어떤 신뢰할 만한 대상도 없으며, 존경할 만한 초월적 가치도 없고, 자신을 헌신하거나 필요할 경우 자신을 희생할 만한 어떤 명분도 없이 그저 숨만 쉬고 살아가는 존재일 수 없다는 엄연한 사실에 봉착한다. 그는 유일하신 참하나님을 위해 살고 그분을 섬길 수 없기에, 그보다 낮은 삶의 목표와 목적을 지어낼 수밖에 없다. 어떤 것은 좀 크기도 하고 고상하기도 하지만 어떤 것은 작고 매우 천한 것도 있다. 그는 이들을 ‘신들’이라고 부르지는 않지만 오히려 그렇게 부르는 것이 나올 수도 있다. 결국 동일한 것으로 귀결될 테니 말이다.

역사의 흐름 속에서, 사람들은 성(性)으로부터 미의 여신(그리스어로 ‘아프로디테’)을 탄생시켰고, 술의 신(그리스어로 ‘디오니소스’ 또는 ‘바커스’), 전쟁의 신(과거의 어느 날 독일 사람들에게 큰 감명을 주었던 게르만 전쟁의 신을 기억하는가?), 돈의 신, 쾌락의 신, 명예의 신, 그리고 국가의 신 또는 심지어 (많은 전체주의 독재자들이 했던 대로) 자아의 신 등 다양한 신들을 만들어내었다. 셀 수 없을 만큼 다양한 삶의 우여곡절에 직면할 때, 일반적인 무신론자는 주로 만물이 우연에 의해 결정된다고 믿고, 심지어 복권을 살 때에도 이 우연이 자신에게 미

소를 지어주길 바란다. 많은 고대 그리스인들이 이와 동일한 생각을 했었고, 이를 통해 여신을 만들어 '티케' (Tyche)라고 불렀다. 고대와 현대의 진화론자들은 인류가 지구에 출현하게 된 것은 결국 우연이라고 주장한다. 또 다른 이들은 이와는 정반대의 견해를 갖는데, 인류는 미리 설계된 기계이며 자유의지는 허상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고대의 세계엔 이러한 것을 일컫는 말이 있었다. 고대인들은 그것을 운명이라 불렀고, 운명의 신도 만들어냈다.

따라서 수세기의 역사적 경험을 통해 신에 관한 논점은 하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가 아니라, 당신을 창조하였다고 선포하신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믿느냐 혹은 당신 스스로가 만들어낸 다른 여러 잡신을 믿느냐의 문제임이 분명해졌다.

그러므로 우리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의 거룩에 대해 말할 때 성경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연구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한다. 비록 무신론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인격과 수준을 다른 신적인 존재의 그것과 비교해 보는게 유익하다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죄

물론, 일단 사람이 인격체이시고 거룩하신 한 하나님에 의해 창조됐을 가능성을 인정한다면, 머지않아 우리는 죄의 문제(이것은 이 책에 사용된 두 번째 전문용어임)를 거론해야만 한다. 건전한 생각을 가진

사람이라면 범죄를 반대하며, 죄는 반드시 정의롭고 매우 엄격하게 다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할 것이다. 그래서 감옥과 정신 병원이 필요하다. 하지만 범죄자는 전체 인구 중 겨우 몇 퍼센트에 불과하다. 훨씬 더 중요한 사실은 이 인구의 모든 사람이 정도와 시간의 차이는 있지만 도덕적인 결함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지상에 있는 어느 누구도 도덕적으로 완벽하지 못하다. 범죄자는 분명 많은 피해와 고통을 야기시킨다. 그러나 보통 사람은 때때로 가장 친한 친구조차도 견디기 힘든 이기심, 성마른 기질 및 불합리함 등으로 인해 더 심한 고통을 겪는다. 그리고 불성실, 앙심, 정신적 학대, 물리적 폭력 등도 가정을 파괴하고 이혼을 초래하며 자녀들에게 정신적인 충격을 준다. 여러 세대를 거쳐 많은 나라의 민중들은 정부에 의해 투옥된 범죄자들보다도 정치인들이 어긴 약속, 그리고 정치 지도자들의 잘못된 철학과 탄압으로 인해서 더 극심한 고통을 겪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 모든 인간은 예외 없이 도덕적인 결함을 갖게 되었는가? 이 모든 것이 인간의 타고난 죄의 본성 탓이므로 어쩔 수 없다고 말해야만 하는가? 우리는 자신의 행동에 대한 모든 책임을 무마시키면서 우리 자신을 기계로 치부해도 되는 것일까? 적어도 이것만은 확실하다. 그것은, 우리 인류에게 있어 도덕적으로 잘못된 것이 무엇인지 충분하고 올바르게 진단할 수 없다면, 우리는 그것에 대한 치료는 물론, 인간의 도덕성이 개선되리라는 현실적인 희망조차 갖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이다.

따라서 우리는 인간의 잘못에 대해 성경이 어떻게 진단하는지를 알아야 한다. '죄'란 이 질병 자체의 근본적인 원인과 그것의 다양한 영향을 밝히기 위해 성경이 사용하는 일반적인 용어이다. 그러나 이 일반적인 용어, '죄'는 성경이 특별한 용어들을 통해 나타내는 다양한 요소들을 함축하고 있고, 이들이 각 개인에게 발생시키는 증상들은 이처럼 다양한 이름을 갖는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의 근본적인 원인과 증상을 공부해야 한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성경이 제시하는 방책이 얼마나 실제적인지 가늠할 수 있을 것이다.

구원

물론, 이 주제에 대해 성경이 제시하는 일반적인 용어는 '구원'이다. 하지만 이것은 주의 깊고 자세히 연구할 필요가 있는 용어이다. 왜냐하면, 신약성경에 나타난 '구원'의 의미에 대해 사람들 중에 만연된 생각은 심각한 측면에서 원래의 의미와 사실 정반대인 경우가 많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이다.

구원에 대해 이같이 만연된 생각은 지옥에 떨어질 수 있다는 두려움과 하늘에 대한 소망을 불확실하게 만들었고, 구원을 인간이 도덕적으로 단정한 삶을 살고 자신의 행동을 매일 개선하라는 '권고'로 치부할 만큼 그 의미를 퇴락시켰다. 문제는 그런 사상이 많은 사람들에게 그럴듯하게 보인다는 것이다. 그들은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선택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선택하지 않으면 분명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생각이 그들의 마음 속 깊이 뿌리내리고 있어서 그들은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 알기 위해 신약성경을 읽을 필요를 느끼지 못한다. 그들은 단지 성경도 자신들의 생각과 동일할 것이라고 추측할 뿐이다.

그러나 사실, 신약성경은 이렇게 만연된 시각과 정반대의 시각을 제시한다. 그들이 말하는 ‘구원’은 하나님께 대한 인정과 하늘나라의 처치를 얻기 위해 지켜야 할 도덕적 규범에 대한 또 다른 이름일 뿐이다. ‘구원’은 말 그대로 구원이다. 구원의 표면적 의미는 실제 의미와 동일하다. 구원은 결코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으며, 자신을 어떻게 구원할 것인지 노력하지도 않는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구조 작업이다. 이것은 하늘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얻기 위해 충분한 선행의 방법을 조언하는 것도 아니다. 신약성경은 구원이 우리의 행위를 통해 얻는 것이 아님을 공개적이고 반복적으로 선언하고 있다. 구원은 도저히 갚을 수 없고 얻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넓은 의미의 구원

신약성경은 구원에 대한 다양한 요소를 설명하기 위해 다양한 단어들(이 부분에 대해선 나중에 자세히 다루고자 한다)을 사용한다. ‘속

전' (ransom)이 그 중 하나인데, 이것은 우리를 도덕적, 영적 속박으로부터 구원하시고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이미 지불하셨기에 우리가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죄값을 나타낸다. '칭의' (justification)란 용어도 있다. 이것 역시 우리의 행위나 공로를 인해서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다. 그리고 그 효과는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회복하고 지금 이 땅에서 그분과 화목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 (a justified person)은 죽음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실 것인가에 대해서 불확실함 가운데 살아갈 필요가 없고, 이미 하나님께 받아들여졌음을 알기에 즐거운 확신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다. 우리가 공부하게 될 '화목' (reconciliation)이라는 용어도 이 사실을 강조할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사역으로 인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완전한 화목이 가능하게 되었고, 그러기에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 받아들여져서 그분과 화목을 누리고 교제할 수 있다.

구원은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영생' (eternal life)을 소유하고 누릴 수 있게 해준다. 왜냐하면, 우리 중에 만연된 견해와는 달리, '영생'이란 사람들이 죽음 이후에 맞이하는 삶이 아니기 때문이다. 영생은 바로 지금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삶이며, 지금 얻지 않으면 다가올 세상에서도 결코 맛보지 못할 삶이다.

하지만 누군가가 구원에 대한 신약성경의 교리를 이러한 방식으로

정리하는 것을 처음 듣게 된다면, 많은 사람들은 이것이 확실히 잘못됐다고 생각할 것이다. 만약 구원이 선행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우리의 행위의 선악에 관계없이 그저 믿음을 고백한다고 해서 주어지는 선물이라면, 이 신약성경의 교리는 스스로를 개선하기 위한 우리의 모든 정직한 노력들을 애초부터 감소시키게 될 것이라고 그들은 말한다. 실제로 사람이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이미 구원받은 사실을 절대적으로 확신할 수 있다면, 이것은 그가 남은 생애를 도덕적으로 무책임하게 살 가능성이 있고, 또 그렇게 살아도 마지막 날엔 결국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을 의미하기에, 이것은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한다.

물론, 이러한 반박에도 나름 논리적인 설득력이 있다. 하지만 이것은 오해에 기초하고 있기에, 신약성경을 열어 그것이 실제로 의미하는 바를 공부하게 되면, 그때 오해는 사라지게 된다. 신약성경보다 더 기록을 강조하는 책은 지상 어디에도 없다. 따라서 ‘기록’에 대한 연구의 목표는 신약성경이 그 용어들을 통해 나타내는 의미를 발견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신약성경이 제시하는 ‘성화’(기록한 삶을 사는 것)에 대한 가장 합당한 동기가 무엇이며, (아마도 이러한 이유로 신약성경은 구원이 기록함을 얻기 위해 우리가 지불해야 할 대가가 아니라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어야 함을 고수할지도 모른다) 참으로 선한 삶을 사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해지도록 신약성경은 사람들에게 어떠한 능력을 제공하고 있느냐를 찾아내는 것이다.

구원의 조건

신약성경이 말하는 이런 능력은 두 가지 조건을 만족시킬 때 발휘될 수 있는데, 첫째는 ‘회개’ (repentance)이다. 이 용어의 의미는 분명해 보일지 모른다. 그러나 우리는 이 용어가 종종 신약성경에서 일상 언어보다 훨씬 더 근본적인 의미를 전달하고 있음을 알게 된다.

두 번째 조건은 ‘믿음’ (faith)이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이 믿음이란 것이 기독교의 치명적인 약점이라고 생각한다. 그들은, “과학은 사실을 다루지만 종교는 모두 믿음에 의존한다. 그러므로 과학은 견고한 기반을 가진다. 과학은 사실임을 증명할 수 있다. 기독교는 사실을 증명할 수 없으므로 신뢰할 만한 근거가 전혀 없다.” 고 말한다.

하지만 이러한 사람들은 과학 자체는 근본적으로 믿음에 의존하고, 우주에 대한 현재의 이론과 해석의 다수는 증명된 사실이 아닌 과학자들의 철학이 반영된 가정에 근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고 있다. 그들은 또한 모든 개인적인 관계가 결국 믿음을 기초로 해야 함도 잊고 있다. 성경의 하나님은 어떤 비인격적인 힘이 아니라 인격적인 분이시기에, 그분과 우리의 관계는 반드시 믿음을 기초로 해야만 한다. 오히려 “신약성경에서 의미하는 ‘믿음’ 이 무엇인가?” 라고 질문하는 것이 옳다. 우리가 가장 확실하게 알 수 있는 한 가지는, 믿음이란 아무런 증거 없이 어떤 것을 맹신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성경은 우리 믿음의 기초가 되는 풍부한 증거를 제공한다.

최후의 심판

마지막으로, 우리는 ‘둘째 사망’ (the second death)의 성경적 의미를 살펴볼 것이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지옥’ 이라 불리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은 이 ‘지옥’ 이라는 단어를 들을 때, 사람들을 용광로에 던져 넣는 마귀의 모습을 떠올리면서 이 모든 개념을 원시적인 미신으로 치부해버린다. 두 말할 필요도 없이 사람들이 가진 이런 생각은 ‘둘째 사망’에 대한 신약성경의 의미와는 동떨어진, 보다 얕은 의미의 개념임에 틀림없다. 물론 성경은 하나님께서 전혀 타협할 수 없을 만큼 거룩하고 공의로우실 뿐 아니라 그 사랑이 변함없기 때문에 죄를 반드시 심판하셔야 한다는 사실을 긍정적으로 가르친다. 현대 시민사회에서도 덕적인 책임을 다하는 사람이라면 범죄는 반드시 다스려져야 하고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할 것이다. 하나님도 죄에 대해 동일한 시각을 가지고 계신다.

이 글에서 우리는 주로 성경의 긴 본문을 인용하기보다 짤막한 성경 구절들을 인용할 것이다. 따라서 각 인용 구절들을 찾아 소리 내어 읽고, 이 구절들이 이 책에서 다루는 논점을 어떻게 뒷받침하는지를 살펴보면 좋을 것이다.

제 2장

거룩 / Holiness

하나님의 위엄, 순수성, 아름다움, 그리고 사랑

하나님의 존재를 생각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 달갑지 않고, 그분의 거룩을 떠올리는 것이 하나의 위협이 된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인간의 자유를 제한하고 삶의 왕성한 쾌락을 거부하게 하려고 굳게 결심한 어떤 엄격하고 능력 많은 독재자일 것이다. 따라서 그들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생각이 과학이 없던 시대로부터 이어져 온 구시대의 유물이라고 스스로에게 말하며, 하나님을 자신들의 생각 속에서 지워버리려고 한다. (하지만 완전히 지울 순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성경 속의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 느끼고 생각하는 방식과는 정반대이다. 그들은 하나님을 엄청난 기쁨(시 43:4)으로 묘사하고, 소위 그분의 아름다운 덕을 열정적으로 선포했다. 물론

그들은 하나님을 존경하는 의미에서 두려워하고 그분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분 앞에서 있다고 말한다. 하지만 이러한 느낌이나 감정은 두려움이 가득한 노예가 굽실거리며 비굴함을 나타내는 반응이라기보다는, 지성이 있는 피조물이 그들의 전능한 창조주의 위엄, 능력, 순결 등을 마주할 때 보이는 건전한 반응이라 할 수 있다. 심지어 무신론과 학자들도 때때로 우주의 위대함, 복잡성, 순수한 아름다움 등을 보고 경이감을 금치 못한다. 아주 조그마한 손톱으로 완성된 신생아의 작은 손가락을 보고도 놀라움과 경이감을 느끼지 못할 부모가 있을까? 그러므로 성경 속의 사람들이 거룩의 아름다움 속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려고 서로에게 열정적으로 요청하고 있는 것을 보는 것은 그리 놀라운 일이 아니다(대상 16:29절 참조).

하나님과 창조의 관계

그러므로 하나님의 거룩은 우선, 창조된 우주와 창조주의 관계 및 인간을 포함한 모든 피조물과 창조주의 관계를 묘사하는 하나의 방법이다. 그것은 다음을 가리킨다.

1. 하나님은 우주로부터 따로 구별되어 계신다. 그분은 우주를 구성하는 기본 물질의 일부가 아니다. 그분은 우주에 존재하는 힘들 중 하나가 아니다. 또 이 힘들 중 가장 큰 힘도 아니다. 오히려 그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분이다. 어느 누구도, 그 어떤 것도 그분을 창조하지 않았

다. 그분은 그들보다 먼저 계시고, 그들로부터 독립적으로 존재하신다. “그는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서 함께 셧느니라.”(골 1:17) 그분은 우주를 붙드시고 유지하시고 통제하신다. 어느 누구도 그분을 붙들지 못한다(사 46:1-7절 참조). 그분은 천사들 중에 가장 높은 계급을 가지신 하나님이 아니다. (어떤 이단은 때때로 하나님에 대해 이 같이 말하곤 한다.) 천사들은 하나님과 동일한 지위에 있지 않다. 그들은 피조물들이며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 밖에 다른 이가 없고.”(삼상 2:2)

2. 하나님은 우주의 유일한 창조주이시다. 그분은 어떤 종교에서 주장하는 것과 같이 우주와 인간의 창조를 어떤 하등의 신이나 대리자에게 맡기지 않으셨다. 말씀에 의해 만물이 창조되었고 그가 없이는 창조된 것이 없는데,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시다(요 1:1-3). 물질과 인간은, 어떤 종류의 신적 존재가 창조한 종류의 피조물이 아니다. 유일하시고 지극히 거룩하신 만물의 창조주의 계획적인 행위를 통해 창조되었다는 존엄성을 가지고 있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곧 이스라엘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너희가 장래 일을 내게 물으며 또 내 아들들과 내 손으로 한 일에 관하여 내게 명령하려느냐 내가 땅을 만들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하였으며 내가 내 손으로 하늘을 펴고 하늘의 모든 군대에게 명령하였노라… 대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을 창조하신

이 그는 하나님이니...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사 45:11, 12, 18)

3. 인간의 창조주로서 하나님은 인간의 마음으로부터 드러지는 예배를 받으실 독점적인 권리를 가지고 계신다. 인간은 하나님에 의해 창조됐을 뿐만 아니라 그분을 위해 창조되었다.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계 4:8-11)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신 6:13)

인간의 존엄성과 영광을 바로 여기에서 찾을 수 있다. 실존주의 철학자들이 가르친 대로, 인간의 삶과 일은 궁극적인 목적과 의미가 있다. 인간은 궁극적으로 인간의 지성, 감정 및 노력을 충족시키기에 충분한 한 가지 유일한 목적을 창조주의 뜻을 행하는 것에서 찾을 수 있다.

인간의 자유도 여기에서 찾을 수 있다. 하나님 외에 어떤 사람이나

사물을 예배하는 것은 항상 사람 영혼의 품격을 떨어뜨리고 결국 그것의 노예로 만든다. 초대 교회 그리스도인들은 국가 원수를 숭배하라고 요구하는 전체주의 정부와 맞설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사도들은 이 정부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로지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라고 가르쳤다(벧전 3:14-15). 다시 말해, 그들은 그들의 마음 중심에 항상 하나님의 아들의 거룩을 기억해야 했고, 그분만이 예배를 받으실 독점적인 권리가 있음을 지속적으로 인식해야 했다. 그리고 그들은 그분의 거룩을 생각했을 때, 전체주의 정부의 우상숭배 요구를 거부하고 자신의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영혼의 참된 자유를 쟁취하는 용기를 얻게 되었다.

하나님의 거룩의 빛

하나님을 거룩하다 부르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이고 경이로운 순결을 나타내는 또 하나의 방법이기도 하다. 구약 성경은, “여호와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으심이 선포되리로다” (시 92:15)고 말씀하고 있다. 신약성경은,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다” (요일 1:5)고 말씀하고 있다. 지적인 면에서, 도덕적인 면에서, 그리고 영적인 면에서도 하나님께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다. 물리적인 영역에서, 물체가 색깔을 띠게 되는 것은 물리적인 빛이다. 그리고 지적, 도덕적, 영적인 영역에서 삶의 완전한

아름다움과 의미를 자아내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의 빛이다. 죄는 이와는 정반대이다. 죄는 삶의 색깔을 흐리게 하고 감각을 마비시키며 마음을 어둡게 하고 영혼을 눈멀게 한다.

반면, 하나님의 거룩의 빛은 죄를 드러낸다. 그리고 그것을 드러내기만 하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거룩은 새하얀 눈이 얼어붙은 얼음기둥과 같이 수동적으로만 작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것은 인간의 죄에 대한 그분의 의로운 분노와 심판을 통해 적극적으로 표현된다. 또 이 심판은 종종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법칙을 통해 드러난다. 예를 들어, 만약 사람들이 성적인 타락을 지속한다면, 그들은 자연이 그들에게서 등을 돌리고 또 그들의 몸을 파멸시키는 것을 체험하게 될 것이다.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롬 1:27) 또 다른 경우, 하나님은 경제 및 정치적인 재앙을 사용해서 하나님을 대적인 사람들을 치기도 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때, 성경은, “거룩하신 이는 의로 자신을 거룩하게 하신다”고 말씀하는데, 여기에서 “자신을 거룩하게 하신다”는 말은 죄를 의롭게 심판하심으로 “자신이 거룩하심을 나타내신다”는 것을 의미한다.

선지자 이사야 시대에 그의 나라는 불의와 폭력, 무자비한 상업적 공갈, 술 취함, 의도적인 도덕성의 왜곡, 하나님을 무시함과 대적함 등의 죄악이 난무했다. 이에 이사야는 그들의 죄를 책망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심판을 내리시고 나라를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으로 몰락시킴으로 자신의 거룩을 나타내실 것이라고 경고했다.

“여느 사람은 구푸리고 존귀한 지는 낮아지고 오만한 자의 눈도 낮아질 것이로되 오직 만군의 여호와는 정의로우시므로 높임을 받으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므로 거룩하다 일컬음을 받으시리니…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와 율법을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멸시하였음이라.”(사 5:7-30)

우리는 절실히 필요를 있다. 하나님의 거룩은 포악한 죄인을 책망하신다. 하나님의 빛에 비추어 보았을 때 우리의 최상의 선도 죄로 드러날 뿐이다. 이 이사야가,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라고 쉴 새 없이 외치는 천사들에게 둘러싸인 하나님을 환상을 통해 보았을 때, 그는 자신의 죄악됨을 크게 깨닫고 거기에 압도되어 다음과 같이 외쳤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뵈었음이로다.”(사 6:5)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거룩을 현실적으로 인식하게 된다면 이사야와 같이 느끼고 반응하게 될 것이다. 거짓, 위선, 속임, 외설, 모함, 험담, 비꼼, 자만 및 다른 모든 죄는 그것들의 실체인 부패하고 추한 모습으로 순식간에 드러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부패가 하나님의 나라에 결코 용납될 수 없으며,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의 진리와 아름다움을 오염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알아야 한다.

그러나 바로 이 시점에서 기이한 역설과 마주치게 된다. 하나님의

거룩의 빛에 노출되는 고통을 경험한 성경의 사람들은 곧바로 하나님의 빛이 경이롭다는 것에 대해 열정적으로 말하기 시작한다. 그 중 대표적인 예가 다음 구절과 같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 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공허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공허를 얻은 자니라.”(벧전 2:9-10) 분명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거룩이 우리에게 비관적인 힘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님을 발견했다. 오히려 하나님의 거룩은 사랑과 공허로 인해 죄인들을 정결케 하여 성도로 변화시킬 수 있는 긍정적인 힘인 것이다.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과 파괴적인 대적들

레위기 19장에서 하나님은 처음으로 그의 백성들에게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2절)고 명령하신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거룩하다는 것이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주 상세히 그들에게 설명하신다. 그 한 예는 다음과 같다.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18절) 그렇다면, 거룩은 사랑이다. 그리고 최고로 거룩하신 하나님은 최고로 사랑하시는데,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다(요일 4:16). 이와 동

일한 하나님의 거룩의 속성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거룩하고 위대한 이름을 선포할 때 나타난다(출 34:5-7절 참조).

이제 우리는 이 장을 끝내면서 창조주의 거룩을 침해하는 철학들이 불가피하게 인간 자신을 해롭게 하는 것으로 작용한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무신론 : 무신론자들은 창조주를 인정하기를 거부하기 때문에, 어떤 비인격적인 자연의 힘이 지성과 도덕성을 갖춘 인간을 부지 중에 창조하였고, 지금도 통제하고 있으며, 장차 그들을 멸망시킬 궁극적인 힘이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 따라서 인간은 우주의 물리적인 힘에 갇혀 있다. 인간의 지성은 평가절하 된다. 인간은 자신의 존재에 대한 어떤 이유와 목적을 상실하고 궁극적인 희망과 목표도 빼앗기게 된다.

범신론 : 범신론은 하나님을 창조와 동일시한다. 이것은 우주가 하나님이고, 땅이 하나님이며, 태양도 하나님, 인간도 하나님, 동물도 하나님, 또 모든 만물이 하나님이라고 가르친다. 그러나 만물이 하나님이라면 도덕적인 선 뿐만 아니라 도덕적인 악도 하나님이 된다. 이는 거짓이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자신이 만드신 만물을 선하게 여기셨다(창 1:31). 하나님을 도덕적인 악과 동일시해서는 안 된다. 그분은 거룩하시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우리는 언젠가 악이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소망을 갖게 된다.

범신론자들이 주장하는 대로 만약 악이 하나님이라면, 악이 멸망 받을 것이라는 희망은 결코 없을 것이다. 범신론은 거짓일 뿐 아니라, 미신적인 매력을 가졌을지는 몰라도, 최악의 염세주의이다.

여러 형태의 윤회설 : 어떤 종교나 종교적인 철학자들은, 물질은 본질적으로 악하다고 주장한다. 그들은 가장 높은 하나님이 물질을 창조하지 않았다고 가르친다. 그들의 말에 따르면, 하나님이 하신 일은 자신과 같이 창조의 능력을 갖춘 더 낮은 신들을 창조한 것이다. 이 신들은 또 그들보다 더 낮은 신들을 창조했고, 결국에는 가장 낮은 신들 중 하나가 아주 어리석은 실수로 물질 우주와 인간을 창조했다. 그리하여 인간은 불행하게도 선한 영혼과 악한 물질의 조합으로 구성됐다. 물질은 영혼을 전염시키고 더럽히며 악을 행하도록 끌고 가서 결국 사람으로 피할 수 없는 고난을 겪게 한다. 이 고난이 사람이 죽게 될 시점까지 다 소모되지 않는 경우, 이 사람의 영혼은 또 다른 육체를 입고 환생하게 된다. 이 때, 이 생에서 많은 악을 행했다면 그 만큼 더 많은 고난과 환생을 경험하게 된다. 유일한 희망은, 어떻게든 영혼이 이생에서 모든 고난을 다 소모하고 이후 죄를 짓지 않게 자신을 절대적으로 깨끗케 하며 순결한 '세계 영혼' (World-Soul)으로 돌아와서 더 이상 육체로 환생되지 않게 하는 것이다.

이 이론은 하나님의 기록을 두 가지 측면에서 침해한다. a) 실제로 창조주보다 낮은 여러 창조자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유일하신 한 창조

주만 존재하신다. b) 물질은 우리가 보는 대로 본질적으로 악하지 않고 본질적으로 선하다. 인간의 문제는 육체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에서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자유의지를 남용하는 죄악과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에서 온다.

또한, 이 이론은 거짓이면서 매우 잔인하다. 이것은, 한 아이가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것은 그가 전생에서 행한 죄의 결과라고 가르친다. 만약 이 아이가 이 모든 수천 번의 환생을 경험한 후, 지난 죄로 인한 고난을 아직 다 소모하지 못했다면, 그가 이생에서 더 많은 죄를 지어 또다시 환생하게 될 가능성은 차치하고서라도, 이생에서 고난을 치르는 이 아이에게 무슨 희망에 있겠는가?

그러므로 이 이론은 비진리와 잔인함의 흉물 덩어리가 아닐 수 없다. 인간은 자신의 고난을 통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므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므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사 53:5)

우리는, 별 불일 없고 무책임하면서 때로 사악한 여러 신들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생을 살아갈 필요가 없다. 오직 유일하신 한 하나님만 계시고, 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며 구세주로서 자신을 주셨다.

“구원하지 못하는 신에게 기도하는 자들은 무지한 자들이니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나니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 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사 45:20-22)

“대저 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네 구원 자임이라(사 43:4)…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 라.’(사 54:5)

제 3장 죄 / Sin

질병, 그 증상과 치료

사람들에게서 허물을 찾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 어떤 불행한 아이들은, 그 부모들이 항상 친절과 사랑으로 대하길 기대 하지만 때로 부모들이 불합리적으로 행동하거나 이성을 잃고 그들을 구박할 때, 이 모든 것을 너무 쉽게 발견하게 된다. 그들은 후에 이 ‘허물’이 그 부모와 가족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형태는 다르고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모든 사람에게는 허물이 있다.

역사는 이 ‘허물’이 모든 시대에 걸쳐 예외 없이 국제 관계에 있어서 고질적인 병폐였음을 보여준다. 모든 과학 기술의 거대하고 유익한 진보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몹시 비이성적인 행동을 통해 드러난다. 만약 나라들이 서로 신뢰하고, 지구의 자원을 개발하

기 위해 경쟁하지 않고 서로 협력한다면, 세상을 낙원으로 바꿀 수 있다. 사막은 열매로 가득하고, 가난과 기근과 전염병은 사라지며, 모든 사람의 복지와 수명은 늘어날 수 있다. 그러나 나라들은 결코 서로 신뢰하지 않고 또 신뢰할 수도 없다. 그 결과 더 복잡한 살상 무기를 생산하는 데 막대한 돈과 시간과 에너지를 쏟아 붓고 있다.

그러나 비이성적으로 행동하는 것은 비단 나라들만이 아니다. 우리 모두가 그러하다. 당신이 그렇고 나 역시 그렇다. 우리의 모든 결단과 선한 의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바울이 수세기 전에 기록한 대로 조만간 이 사실을 받아들여야만 한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롬 7:19)

그렇다면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우리 모두가 고통하고 있는 이 우주적인 질병은 무엇인가? 고대 그리스의 비극 작가, 아이스킬로스, 소포클레스, 에우리피데스는 이 증상을 연구하고 그 원인을 밝혀내고자 했다. 고대의 철학자들도 그러했고, 현대의 철학자들도 동일한 시도를 하고 있다. 그리고 도스토예프스키, 톨스토이, 솔제니친 같은 문학의 거장들도 그러한 노력을 해왔다. 우리가 이 질병을 현실적으로 직면하지 않는다면, 분명 우리 자신이나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를 올바르게 이해할 수 없다. 성경은 우리가 이 질병으로부터 지속적으로 구출될 수 있고 더욱 많이 구출될 수 있음을 기쁨과 확신을 가지고 선언하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질병에서 구출되는 것을 ‘구원’이라 부른다. 하지만 우리가 이 질병에 대한 성경적인 용어를 먼저 이해하지 못한다면,

근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또는 그것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이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용어는 ‘죄’이다. 이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육체의 질병에 비유해서 생각해보자. 의료인들은 질병 자체로부터 오는 증상과 질병의 근원을 반드시 구별해야 한다. 왜냐하면, 누군가가 질병을 치료하려고 할 때, 이 질병을 제거하지 않고 그 증상을 억누르려고 하는 것은 좋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질병의 근원을 추궁해서 제거할 수 없다면 치료에 대해선 아무런 희망이 없을 것이다.

황달을 예로 들어 보면, 황달은 엄격히 말해서 질병이 아니라 내적인 장애, 혹은 간암 등과 같은 질병의 외적인 증상이다. 만약 어떤 사람이 이 질병의 근원에 도달하지 못했다면, 이 황달을 제거하려는 노력은 분명 아무 소용이 없을 것이다.

죄의 구체적 증상들

신약성경은 죄의 증상에 대해 다양한 목록을 제공하고 보통 이러한 증상의 심각성에 관한 경고를 덧붙인다. 그 중 한 가지 목록은 다음과 같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갈 5:19-21)

여기에 또 다른 목록이 있는데, 죄의 질병이 진보된 단계에 이르렀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증상들을 참혹하게 묘사하고 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르니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 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롬 3:10-18)

물론, 이러한 죄의 목록은 이 모든 증상들이 모든 사람에게 동등한 비율로 나타난다고 암시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약성경은 이 죄의 질병이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된 것이므로 몇 가지 일반적인 증상들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난다고 말씀한다.

죄의 일반적 증상들

그러면 좀 더 일반적인 증상이라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그 중 하나는 ‘도덕상의 연약함’ (Moral Weakness)이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롬 5:6)

그 한 예로 로마 총독, 본디오 빌라도를 생각할 수 있는데,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처형에 대한 책임이 있었다(마 27:11-26, 눅 23:1-25, 요 18:28-19:16). 그는 연약하다는 말이 가장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었다. 그는 가장 높은 계급의 군인이자, 유대에 있는 로마 군대를 지휘하는 사령관이었다. 그리고 그는 로마의 법과 질서를 수호할 책임 또한 맡고 있었다.

빌라도는 겉으론 단단하고 강해 보이지만, 속은 벌레 먹은 거대한 통나무와 같다. 외부에서 약간의 충격이 가해지면 곧 무너지는 사람이다.

그가 예수님과 개인적인 대화를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며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박게 된다면 그것이 얼마나 큰 죄악 인지를 인식하게 됐을 때, 그는 자신이 옳다고 생각한 것을 행하며 예수님을 풀어 주겠노라 결심했다(요 19:8-12). 그러나 그가 밖으로 나왔을 때, 군중은 위협적으로 외쳤고 그들의 지도자들은 그를 로마 황제에

게 고소할 것이라고 위협하면서 협박했다. 그리고 빌라도는 거기에 말려들었다. 비록 그는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이 정의를 배반하는 범죄라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을 이기지 못해 끝까지 저항하지 못했고, 이 두려움으로 인해 결국 예수님께 십자가형을 선고했다.

이것은 다음과 같은 질문을 우리에게 남긴다. 나는 진실을 말하므로 당하게 될 결과를 두려워하여 거짓말한 적이 없는가? 나는 내가 속한 조직이 불의하다고 판단되는 어떤 것을 주장할 때, 이 조직에 저항하기를 두려워하므로 거기에 휩쓸려 그 불의한 것을 행한 적은 없는가?

죄의 또 다른 일반적인 증상은 ‘불경건’이다.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 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니.”(딤후 1:9-11)

여기에서 ‘경건하지 아니한 자’ 로 번역된 단어의 그리스 원어는 ‘존경하거나 공경하지 않는 사람들’ 을 의미한다. 이들이 존경하거나 공경하지 않는 대상 중 하나는 우선 하나님이다. 하지만 경건치 않은 것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는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심을 받았기에 사람들이 그 창조주에 대한 존경심과 공경심을 잃어버릴 때, 그들은 그 피조물인 인간의 가치를 떨어뜨리기 시작한다. 그들은 인간의 육체, 즉 그들 자신과 다른 사람들의 육체의 존엄성을 존중하지 않는다. 이것은 더 크고 추한 성적인 죄나 알코올 및 마약을 남용하는 죄를 낳게 되는데, 이들은 육체의 건강을 해치고 우리의 마음을 약화시킨다. 그들은 진리의 존엄성도 존중하지 않는다. 그 결과 온갖 종류의 거짓, 속임, 약속을 어기는 행위 등이 나타난다. 결국, 그들은 생명의 존엄성도 존중하지 않게 된다. 그 결과 폭력 범죄가 끊이지 않게 된다.

‘하나님에게서 멀어짐 및 하나님을 향한 적대감’은 또 다른 증상이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롬 8:7)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골 1:21)

특별히 이 증상에 대한 대규모의 예는 현 시대에 너무도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다. 많은 나라의 정부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체계적으로 말살시키기 위해 모든 권력을 사용해왔다. 그러나 하나님께 대한 적대감은 노골적인 무신론자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때때로 겉으로 종교적인 사람들이 마음으로는 하나님과 원수일 수 있다.

사도 바울도 매우 종교적이었다. 하지만 그는 회심하기 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강한 적대감을 가지고 있었다(딤후 1:12-17).

사실 모든 사람은 마음 속으로 하나님께 반역하고 있다. 하나님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하라고 하거나 또는 하지 말라고 명령하실 때, 이 명령은 종종 우리 속에서 분노를 불러일으키고 그와 정반대로 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한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경험을 통해 한 가지 예를 제시하고 있다(롬 7:5, 5:9). 수년 동안 그는 “탐내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모른 채 살아왔다. 하지만 그 때, 하나님은 이 명령을 그의 마음에 다시 심으셨고, 바울은 바로 이 명령이 자신의 마음 속에서 온갖 종류의 탐욕을 불러일으키고, 이에 대해 아무리 심한 몸부림을 쳐 보아도 그것을 억제할 수 없으며, 심지어 그 마음 속 깊은 곳을 살펴볼 때 전혀 억제하고 싶은 마음조차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물론 하나님께 대한 이 기본적인 적대감이 항상 혹은 자주 하나님께 대한 노골적인 적개심으로 표현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무관심의 형태로 더 많이 나타난다.

만약 누군가가 “저는 음악이나 미술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그가 불쌍하다고 생각할 뿐 그것에 대해 화를 내진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건 그냥 취향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어떤 여인이 “저는 제 남편에게 별로 관심이 없어요”라고 말한다면, 그건 비극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녀가 남편과의 관계에서 떨어져 있다고 하는 명백한 증거가 되기 때문이다. 사랑이 사라진 것이다. 그런데

누군가가 “저는 하나님에게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라고 말한다면, 이것은 극도로 심각한 비극이다. 우리는 자신의 존재에 대해 하나님께 빛을 지고 있다. 하나님께 관심이 없다는 것은 어느 시점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심각하게 멀어졌다는 증상임에 틀림없다.

다음은 이에 대한 몇 가지 증상이다. 이것의 기초가 되는 질병은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고자 하는 욕구’이다.

성경(창 3장)에 따르면, 인간이 범한 ‘최초의 죄’는 살인이나 부도덕과 같이 잔인하거나 끔찍한 죄악이 아니었다. 그것은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라는 마귀의 유혹을 받아 선과 악을 그들 스스로 결정하는 데 이르게 되었을 때 발생했다. 그들은 스스로 충분히 신이 될 수 있을 거라 상상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금하신 열매를 따먹었다. 그것은 즉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했고, 죄책감과 수치를 느끼게 했다. 그로 인해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 숨고자 했으며, 결국 하나님께 대한 적대감을 가지게 됐다. 우리 모두는 불순종과 독립의 길로 아담을 따라갔다. 그러나 그와 같이 사는 것은 거짓과 비현실의 삶을 사는 것이다. 우리는 스스로를 창조하지 않았다.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독립된 삶을 사는 것은 우리의 존재에 대한 근본적인 법에 어긋나는 것이다.

그래서 신약성경은 ‘죄는 불법’이라고 말한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요일 3:4)

우리가 창조주의 물리적인 법칙, 예를 들어, 전기의 법칙을 무시했을 때 어떠한 위험을 당하게 될 것인가? 만약 어떤 사람이 전기 포트를 사는데 제조사의 설명서를 읽거나 따르려고 하지 않는다고 가정해 보자. 그는 자신이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대로 전선을 연결할 것이다. 그 결과 그는 감전 사고를 당하게 된다. 우리는 그런 사람에게 좀처럼 동정을 갖기 어려운 것이다. 오히려 제조사의 설명서를 무시하고 전기의 법칙에 주의하지 않은 그를 어리석다고 할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창조주의 도덕률과 영적인 법을 근본적으로 무시하고 불순종하는 것은 반드시 도덕적, 영적 재앙을 불러올 것이다. 이것이 모든 죄악의 많은 증상에 대한 근본 원인이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치료책이 있다는 것이다. 성경이 그것을 말해 준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딤후 1:15)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요 3:17)

그러므로 다음 장에서 우리는 신약성경이 이 구원을 설명하기 위해 사용하는 용어와 이것이 어떻게 작용하는지에 대해 공부할 것이다.

그 전에 우리가 당장 주목해야 할 두 가지가 있다. 많은 사람들은 구원을 얻는 길이 우리의 삶에서 죄의 증상을 제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렇게 하는 것은 그 자체로 충분히 선한 것이긴 하지만 우리를 구원할 수는 없다. 우리가 사과나무에서 모든 사과를 다 따버릴 순 있지만, 이 나무는 여전히 사과나무이다. 이는 그 속에 내재된 속성의 문제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의 모든 증상을 억누를 수 있다 할지라도 우리 속에는 여전히 죄의 본성이 남아 있다. 그리고 신약성경은 그것이 우리의 잘못이 아니라고 말씀하신다. 우리는 그렇게 태어났다. 우리는 인류 최초의 조상 아담으로부터 이 타락한 죄의 본성을 물려받았다. 그러나 동일한 방식으로 우리는 그리스도로부터 그의 타락하지 않은 거룩한 생명을 선물로 받을 수가 있는데, 이러한 생명의 특성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것이다. “한 사람(아담)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그리스도)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롬 5:19)

그리고 두 번째로 주목할 사실은 이것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이 왜 그렇게 실용적이며 실제로 효과가 있는지를 보여주는 비결이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실 준비가 되기 전이나 그분이 우리 속에서 구원의 위대한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 우리 자신을 더 나은 사람으로 개선시키려 노력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으실 준비가 되어 있다. 이것이 로마서 5장 6-11절

에 나타난 주장의 논거이다. 이 구절은 죄의 문제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하는 사람이 읽고 철저히 생각해 봐야 하는 구절이다.

제 4장

화목 / Reconciliation

화평으로가는 길

이전 장에서 우리는 우리 모두가 겪는 도덕적이고 영적인 질병과 창조주를 떠난 결과로 나타나는 증상에 대해 공부했다. 이제 우리는 그것의 치료책을 설명하는 용어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등장하는 유쾌한 단어는 ‘화목 (reconciliation)이다. 이것은 동일한 어원의 동사 ‘화목하다’ (reconcile)와 함께 쓰인다. 이것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 의미를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 책에 등장하는 모든 단어들 중 가장 이해하기 쉬운 단어일 것이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살면서 한 번쯤은 다음과 같은 경험을 한 적이 있을 것이다. 즉, 나의 행동이나 말을 통해 친구나 다른 사람들에게 깊은 상처를 주었던 일 말이다. 이에 그 친구는 나의 잘못을 지적하며 다가온다. 하지만 나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용서를 구하는 대신, 교만이나 두

려움으로 인해 나의 잘못을 부인하거나 심지어 그것에 대해 거짓말을 지어낸다. 그리고 나는 화를 내면서 오히려 그에 대한 많은 비난거리들을 찾아내려고 한다. 그리고 나서 나는 그의 앞을 떠나며, '다시는 그와 말도 하지 않고 보지도 않을 거야' 라고 속으로 다짐한다. 그 후, 멀어짐, 거리감 및 침묵의 시간이 오래 지속된다. 이 기간 동안 어떤 사람이 이 사정을 모르고 그 친구에 대해 칭찬하는 말을 나에게 한다면, 나는 몹시 화를 낼 것이다. 그리고 대화 중 나의 (왜곡된) 생각을 제시하며 그 친구의 인격을 깎아 내리고 그를 적대시하는 나의 태도를 정당화하려 들 것이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이 행동한다. 그들은 자신들의 기억과 악한 양심을 통해 만약 창조주가 계신다면 그분은 반드시 그들의 죄를 싫어하신다는 것을 마음 속 깊이 알고 있고, 그로 인해 그들도 대적하실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그들은 자신들의 죄를 받아들이기는커녕 창조주가 계시다는 사실을 부인하려 한다. 그들이 만일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며 예배하는 누군가를 만난다면, 마음 속으로 이에 대해 분노를 느끼고, 또 종교인들이 범한 모든 죄악에 대해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잘못인 양 (그리고 무신론자들은 평생 죄를 짓지 않은 사람들인 양) 하나님을 비난하거나 세상에 많은 고통과 비극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원망한다. 그리고 그들은 창조주로부터 계속 멀리 떨어져 그들의 삶은 궁극적인 목적과 소망을 잃고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진 회색빛으로 남게 되며, 가만히 앉아 잠잠하기를 지속적으로 거

부하는 악한 양심의 변덕스러운 반항으로 가득 차게 될 것이다.

화목을 위해 먼저 행동을 취하신 하나님

화목은 이러한 하나님과 떨어진 상태를 극복하고, 그의 근원적인 오해를 타파하며 평화의 장애물을 제거하기 위해 하나님이 먼저 행동을 취하신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준다. 어떠한 행동을 취하셨는지 우리에게 말해 주는 두 구절이 신약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그는(예수 그리스도)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골 1:15-22)

두 번째 구절은 고린도후서 5장 18-21절에 나타나 있다.

화목에 관해 이 구절들이 말씀하는 요점 중 첫째로 주목할 것은 하나님께서 이러한 과정에서 먼저 행동을 취하셨다는 사실이다.

하나님은 그 안에(그리스도 안에) 모든 충만이 거하고 그를 통해(하나님이) 만물을 자기와 화목하도록 정하셨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자신과 화목하고 계셨다.(저자의 번역)

이것은 참 놀라운 사실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반적인 규칙에 따르면, 인간 관계에서 다툼이 있을 때 잘못을 범한 사람이 먼저 화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그리스도도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마 5:23-24)고 말씀하셨다. 그런데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에게 어떠한 잘못도 행하지 않으셨다. 사과할 아무런 이유가 없으셨다. 그분께 반역하여 철저한 원수가 된 것은 인간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 그들을 자신과 화목하게 하기 위해 먼저 행동을 취하신 것은 하나님이셨다.

이것이 놀라운 것은 또 다른 이유가 있다. 인간이 서로 다툼 때 그들

은 종종 다시 친구가 되기 위한 행동을 개시할 수 있길 바란다. 하지만 그들 각각은 상대방에게 거절당하는 것을 두려워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이 거절과 모욕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박혀 죽을 것을 미리 아시면서도 그를 세상에 보내셨다. 사실 그것이 우주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자신의 신령한 영광을 인간의 몸 속에 감추시고 우리 가운데 오신 이유이다. 만약 그분이 자신의 신령한 영광을 드러내셨다면, 인간이 그분께 대한 적대감을 표현하는 것은 물론, 그분께 접근하는 것조차 불가능했을 것이다. 실제로 그들은 하나님께 대한 완전한 적대감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표출했고 십자가에 못박았다.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시며 그리스도를 못박은 것과 그들의 모든 죄(행 2:36-39)를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선포하셨다. 이는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이제 마귀가 인간의 생각 속에 불어넣은 모함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을 소개하고자 한다. 이 모함은, 하나님은 독재자이기에 기회가 닿는 대로 인간이 자신의 개성을 온전히 표현하지 못하게 하고, 자신의 건전한 야망을 추구하지 못하게 막으신다는 것이다(창 3장).

그러나 하나님이 죄에 대해 유연해지신 것도 아니요, 인간과의 친교를 유지하기 위해 인간의 교만과 죄악을 용인할 준비가 되신 것도 아니었다. 전능자는 호락호락한 분이 아니다. 그분은 절대로 인간의 죄를 대수롭지 않게 보실 수도 없었고 그렇게 보시지도 않았다. 따라서

우리는 신약성경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세상을 자기와 화목시키시고 계셨다”는 구절에서 ‘화목’이라는 말이 의미하는 바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를 위해 이 단어가 신약성경이 기록된 언어인 고대 그리스어에서 어떻게 사용되었는지를 상고해 볼 필요가 있다.

만약 ‘A’ 라는 사람이 ‘B’ 라는 사람에게 죄를 범하여 깊은 상처를 주었다면, ‘B’ 는 ‘A’ 에게 화를 낼 충분한 이유와 자신에게 범한 잘못을 기억할 권리를 갖게 된다. 따라서 ‘A’ 와 ‘B’ 가 화해하기 위해서는 ‘B’ 를 ‘A’ 가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바꾸기보다 ‘A’ 에게 화를 내는 ‘B’ 의 정당한 이유를 제거해야만 한다.

그렇다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이 자신의 인격에 맞지 않게 행동하게 하는 어떤 일시적인 흥분이 아니다. 결국 사라지게 될 분노의 감정도 아니다. 그리고 그분의 뇌리 속에 은밀하고 지속적으로 품고 있는 개인적인 불쾌감일 수도 없다. 죄는 하나님의 존재와 인격에 대한 도전이다. 그리고 우주의 도덕적인 통치자로서 하나님은 자신의 전 존재가 죄에 대해 얼마나 분노하는지를 공개적이고 적극적으로 표현하셔야만 한다. 따라서 이것은 그분이 죄를 영원히 간과하실 수 없고, 죄의 문제가 자신에게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죄에 대한 반응을 축소하실 수도 없음을 의미한다. 죄에 대한 형벌이 내려지기까지, 또 그것이 온 우주에 사는 모든 사람들의 눈 앞에 공개적으로 단행될 때까지 하나님의 분노는 진정될 수 없고 그분의 거룩한 속성도 지켜질 수 없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세상을 자신과 화목하기 위해 우선 세상

을 향한 분노의 원인을 제거하셔야만 했다. 그분은 세상의 죄를 벌하셔야만 했다. 그렇지 않고서는 화목이 있을 수 없고, 그분과 인간의 교제 회복도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것이, 삼위의 하나님의 연합된 뜻에 따라, 성자 하나님이 신성을 가지고 인간이 되신 이유이다. 삼위의 하나님의 모든 충만이 그리스도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분은 인간에게 하나님을 나타내실 수 있었다. 인간은 그분께 범한 죄를 하나님께도 범했다. 그분이 인간에게 반응하신 동일한 방법으로 하나님도 인간에게 반응하셨다. 인간은 그분을 통해 하나님이 참으로 어떠한 분이신지 볼 수 있었다.

이와 같이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진정한 인간(인성만 가지신 것은 아니지만)이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인류의 대표자로서 서실 수 있었다. 그러므로 그는 인류의 대표자와 대리자로서 세상의 죄를 스스로 짊어지실 수 있었고, 또 그렇게 하셨다. 또한 그분은 하나님의 분노를 공개적으로 견뎌내고 죄의 형벌을 받으실 수 있었다. 그리하여 그분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분노의 원인을 완전히 제거하셨고, 인간이 하나님과 화목하여 평화로운 관계에 도달할 수 있게 하셨다.

고린도후서 5장 18-21절에는,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고 기록되어 있다. 다시 말해, 죄 없는 그리스도께서 인류의 대표자로서 세상의 죄를 스스로 담당하실 때, 하나님은 세상의 죄가 그분의 죄인 것처럼 그분을 대하셨다. 그리하여 인류의 죄에 대한 정당한 형벌을 그리스도께서 견뎌 내셨고, 그 결과 인간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데 아무런 장애가 없게 되었다. 이제, 정의는 더 이상 세상의 죄에 대한 책임을 인간에게 돌리도록 하나님께 강요하지 못한다.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돌아와 그분과 화목하고 지금부터 영원까지 평화로운 관계를 향유할 수 있다. 인간은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 애쓸 필요가 없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미 화목을 이루셨다. 인간이 해야 할 일은 단지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화목과 평화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따라서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대하시는 것처럼 자신을 받으셨다는 것을 알게 된다. 혹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표현하자면, 인간은 그리스도께서 완전하신 것처럼 하나님께 완전히 의로운 자(“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됨”)로 여겨진다.

그렇다면 이것은, 사람이 아무리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무시하고 죄악된 삶을 살거나 심지어 계속 무신론자임을 고수할지라도 전 세계의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있고 또 미래에는 결국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을 의미할까? 물론 그렇지 않다. 그리스도는 모든 인류를 위해 하나님과의 화평을 확실히 이루셨다. 하지만 우리 편에서 이 화평을 기꺼이 받아들일 것인지, 그렇지 않을 것인지에 대한 문제가 남

아 있다. 때로 우리는 역사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 전쟁 중인 두 나라의 지도자가 휴전을 선언하고 평화조약에 서명했을지라도, 그 중 한 나라의 이탈 그룹이 평화를 거부한 경우이다. 그것은 상대국을 적으로 여기고, 자국에서 평화를 받아들인 자들을 반역자로 치부하는 셈이다. 그리고 전쟁은 계속된다.

우리와 하나님 사이도 마찬가지이다.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평화를 수용한 사람들은 신약성경에 기록된 대로 “평화를 누리게 되고”(롬 5:1), 하나님과 영원히 화목한 관계를 맺게 된다. 그러나 사람들이 이 평화를 거절하고 창조주에 대해 지속적으로 무관심하고 적대시하는 것도 가능하다. 물론 피조물이 그렇게 하면 필연 재앙을 만나게 될 것이다.

관계와 회복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평화를 통해 두 가지 유익을 추가로 얻는다. 첫째는 이것이다.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화목한 사람들은 동일하게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화목한 다른 모든 사람들과도 평화로운 관계를 맺게 된다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 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 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 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 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엡 2:11-18)

이 구절은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오랜 세월의 반목을 끝내셨는지를 설명한다. 이것은 인류에게 깊이 뿌리박은 분리의 문제를 양산시킨 인종, 국가, 사회적 위치, 종교 등의 다른 모든 장벽들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물론 인류 역사상 그리스도인이라 주장하는 국민 또는 나라들이 동일하게 그리스도인이라 표명하는 또 다른 국민 또는 나라들을 박해하고 싸워온 일(예를 들어, 마르크스주의를 표방하는 나라들이 다른 마르크스주의 나라들과 전쟁을 일삼은 일)은 비밀비재하다. 그러나 이러한 행동은 그 당사자들이 진실로 하나님과

화목한 적이 있는지에 관해 심각한 의문을 불러일으킨다. 그것은 오히려 그들이 단순히 형식적이고 표면적으로 기독교를 표방하고 있음을 말해 준다. 신약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고후 6:1) 받는 사람들인 것이다.

두 번째로 큰 유익은 이것이다. 하나님은 장차 우주의 모든 지적인 존재를 자신과 화목하게 하실 것이다(골 1:20의 인용 구절을 참조). 불행히도 이것 역시 마귀를 포함해서 우주의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친구가 되는 것은 아님을 의미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신을 대적하는 자들을 성도로 변화시키는 목적을 가지셨을지라도 피조물의 자유의지를 무시하지는 않으시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상황은 다음과 같다. 하나님은 무작정 영원히 기다리시지는 않을 것이다. 언젠가 그분은 지구와 우주를 회복하시고 재건하실 것이다. 이것은 그분이 자신을 지속적으로 대적하는 모든 사람들을 강제로 저지시키게 될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그분이 그렇게 할지라도 아무도 그분 앞에서 도덕적 정당성을 따지며 대항할 수 없을 것이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모든 반대를 잠재울 것이다. 모든 사람에게는 그리스도의 희생의 대가로 부여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구원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 멸망하는 사람들조차 도덕적인 이유로 하나님을 비판할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우주는 완전한 평화에 도달할 것이다(계 5:11-14).

제 5장

칭의 / Justification

법적으로 의롭게 함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것을 설명하기 위해 신약성경이 사용하는 다음 두 가지 기본적인 용어는 ‘의롭게 하다’ (justify)와 ‘칭의’ (justification)이다. 이 둘은 법적인 용어이다. 이에 대해 언짢아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면 아버지가 자녀들을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셔야 하고, 예수님께서 유명한 ‘탕자의 비유’ (눅 15장)를 들어 말씀하신 대로 아버지가 아들을 대하는 것처럼 죄를 범한 자녀들을 넉넉히 받으실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 아버지는 재판관으로서 행동하지 않았고, 회개하는 아들을 법정에서 세우지도 않았다. 따라서 하나님도 그러하실 거라고 그들은 말한다.

그러나 이것은 알팍한 생각이다. 심지어 이 비유에서, 아버지가 탕자를 용서하고 그를 아들의 위치로 회복시킬 때에도, 그가 탕진해 버린

것을 만회하도록 유산 중 형의 몫을 빼앗거나 유산의 절반을 돌아온 탕자에게 주지 않았다. 그랬다면 그것은 매우 불공정한 처사였을 것이다. 하나님의 용서는 그분 자신은 물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도 공의를 결코 희생시키지 않아야 한다.

당신에게 은행에서 일하는 딸이 있다고 가정해 보자. 어느 날 은행 강도가 은행에 침입해서 그녀를 총으로 쏘고 엄청난 양의 돈을 탈취해 갔다. 그런데 만약 판사가 자신 앞에 선 이 범죄자에게 다음과 같이 말한다면 당신은 이 판사에게 어떻게 반응하겠는가? “비록 이 사람이 범죄자인 걸 인정하지만 그는 내 사랑하는 아들입니다. 게다가 그는 자신이 한 일을 반성하고 죄책감과 미안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판사의 재량으로 그에게 형벌을 부과하지 않고 사면해 줄 것입니다.” 이 경우 당신은 이러한 사면이 당신 뿐만 아니라 딸에게도 완전히 부당하다고 주장하지 않겠는가? 이것은 공정한 시민 사회의 모든 근간을 흔드는 처사라고 항의하지 않겠는가? 탕자의 비유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분명하다.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들을 용서하실 준비가 되어 있다. 그러나 이것은 진리의 한 측면에 불과하다. 또 다른 측면에서, 하나님의 용서는 반드시 보편적인 정의와 일치해야 하고 또 그렇게 나타나야만 한다.

우리는 여기서 ‘의롭게 하다’ (to justify)라는 동사가 두 가지 기본적인 의미를 함축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1. 어떤 사람을 옳다고 선언함

2. 어떤 사람이나 사물이 옳다는 사실을 증명함

이것은 ‘어떤 사람을 의롭게 만든다’는 의미가 아니다. 누가복음 7장 29절에는 “모든 백성이…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고 기록되어 있다. 이것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롭게 한다는 것을 의미할 수 없다. 하나님은 지금보다 덜 의로우신 적이 없다. 누구도 그분을 의롭게 할 필요가 없다. 그 말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의로우시다고 선포하였다”는 뜻이다.

이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 보자. 이 단어가 구약성경 시대에 정의의 법정에서 사용된 예를 살펴보자.

“사람들 사이에 시비가 생겨 재판을 청하면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여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며.”(신 25:1)

“의인을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며”의 구절의 의미는 명확하다. ‘악인을 정죄한다는 것’은 ‘어떤 사람을 악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가 악하다고 선언하는 것’, 또는 ‘그가 잘못되었다고 선언하는 것’을 의미한다. 마찬가지로 ‘의인을 의롭다 하는 것’은 정의롭게 행동했다고 최종적으로 증명된 사람은 의롭다고 선언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불행하게도, 실제로 죄를 범한 사람이 재판관과 배심원에게 뇌물을 주어 거짓 판결을 내리게 하는 일이 인간의 법정에서 때때로 발생한

다. 성경은 이 정의의 왜곡을 분명하게 정죄한다.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 하는 이 두 사람은 다 여호와께 미움을 받느니라.”(잠 17:15)

이것을 염두에 두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아래의 비유를 읽어 보자. 몇 가지 놀랄만한 부분이 있을 것이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 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이레에 두 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십일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눅 18:9-14)

1. 첫째로 주목할 것은 예수님은 여기에서 ‘의롭다 함’ (justify)이라

는 용어를 사용하고 계신다는 점이다. “이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이것은 흥미로운 사실이다. 바리새인과 세리는 지상의 재판관 앞에 서기 위해 지상의 법정에 나아간 것이 아니다. 그들은 기도하기 위해 성전으로 올라갔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서서 그들의 삶을 돌이켜 볼 때, 하나님은 그들의 재판관으로 행사하시면서 그들에 대한 판결을 내리셨다.

2. 둘째로 주목할 것은 두 사람 중 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으로 돌아갔다고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점이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법정의 재판관으로서 이 세리를 의롭다고 선언하신 것이다.

3. 셋째로 주목할 것은 한 사람은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았지만 다른 사람은 그렇지 못했다는 점이다. 이것은 매우 놀라운 사실이다. 왜냐하면 세리는 스스로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있는 상태였고, 당시 로마 제국을 위해 세금을 걷는 일에 있어서 사람들을 속여 재물을 갈취하는 행위가 만연하고 있었기에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것을 가장 가증스런 죄악의 형태 중 하나로 간주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이 의롭다 인정하신 사람이다. 이와는 반대로, 바리새인은 종교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가능한 한 선한 삶을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이었다. 그는 불공정한 사람도, 착취나 음행을 일삼는 사람도 아니었다. 그는 일주일에 두 번씩 금식했고 소득의 십일조를 하나님께

드려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돕곤 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의롭다 하지 않으셨다.

언뜻 보기에 이것은 그저 놀랍기만 한 게 아니라 충격적인 이야기다. 우리가 이미 확인해 본 바와 같이, 성경은 이 땅의 재판관이 죄인을 의롭다 인정하고 의인을 징죄하는 것을 금하고 있다. 그런데도 이 두 사람이 하나님의 법정에 나타났을 때 하나님은 ‘악한 사람’이었던 세리를 어떻게 의롭다 하실 수 있었으며, ‘선한 사람’이었던 바리새인을 의롭다고 인정하지 않으실 수 있었을까? 이에 대한 부분적인 답변은 다음의 원리를 통해 발견할 수 있다.

1. 하나님의 법의 기준은 절대적이다. 하나님의 기준은 우리의 것과 다르다. 한 학생이 학교에서 시험을 봐서 100점 만점의 70점을 받았다면, 그는 비록 100점에서 30점이 미치지 못했을지라도 시험에 합격할 수는 있다. 하지만 하나님의 법은 그렇지 않다. 하나님의 법은 항상 100점 만점을 요구한다. 그런데 우리 중 누구도 거기에 도달할 수 없다. 우리 중 어떤 이는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나은 지도 모른다. 그러나 하나님은 진실하시기에 우리를 실제 우리의 수준보다 높게 과장하실 수 없다. 그분의 판결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롬 3:23)는 것이다.

2. 하나님의 법은 하나의 총체이다. 성경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느니라”(약 2:10)고 말씀하신다. 이것

은 언뜻 보기에 불공정한 것으로 들리지만 하나님의 법은 서로 긴밀히 연관된 명령의 집합체이므로 하나의 명령을 어기게 될 때 그것이 나머지 모든 법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없다. 하나님의 법은 하나의 통합된 총체이다. 그리고 그것의 목적과 요구는 완벽하다. 하나의 명령을 어기게 된다면 나머지 모든 명령을 지켰을지라도 그 결과는 여전히 불완전한 것으로 간주된다. 닳은 체인 줄에서 하나의 고리가 끊어진다면 배는 표류하게 될 것이다. 긴 수열을 합산하는 중에 하나의 수를 빼먹게 되면 전체의 계산이 틀러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 중 가장 훌륭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명령 중 최소 한 가지 이상, 아니 그보다 훨씬 더 많은 명령을 분명히 어겼다.

3. 따라서 하나님의 법은 우리 모두를 정죄한다. 우리가 바리새인과 같이 선행을 했든, 세리와 같이 나쁜 짓을 했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법을 어겼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롬 3:19)고 말씀하고 있다.

우리의 문제의 절반에 대한 답변

이제 우리는 우리 문제의 최소 절반에 대한 답변을 볼 수 있게 되었

다. 이 바리새인은 왜 의롭다 함을 얻지 못했는가? 그가 하나님 앞에 나아왔을 때 그는 자신의 모든 선행과 하나님의 법을 지키기 위해, 자신이 행한 모든 정직한 노력을 열거했다. 그리고 그것들을 근거로 하나님이 자신을 의롭다고 여겨주시기를 바랐다. 그러나 그것은 불가능했다. 그의 노력이 아무리 선행다 할지라도, 그는 여전히 부족했고 하나님의 법을 어겼다. 따라서 그는 형벌을 받아야 마땅했다. 하나님은 그렇지 않은 것처럼 반응할 수 없으셨다. 그분의 말씀은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롬 3:20)고 선언하고 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질문한다.

“만약 그렇다면 그것은 분명 하나님이 아무도 의롭다고 선언하실 수 없고, 그분의 법정에서 있는 어느 누구도 의롭다 하실 수 없음을 의미할 겁니다. 그렇다면 세리는 어떻습니까? 그는 바리새인보다 하나님의 법을 더 많이 어겼을 텐데, 그리스도는 어떻게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성전을 떠나 집으로 돌아갔다고 말씀하실 수 있었을까요?”

우리의 문제의 나머지 절반에 대한 답변

이론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그분의 법을 완벽하게 지키는 것이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그분 앞에서 의롭다”고 선언하실 수 있다. 그러나 이

러한 방법은 사실 우리가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불가능하다. 우리 모두는 이미 하나님의 법을 어겼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또 다른 방법은 하나님의 법을 어긴 것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것이다. 하지만 만약 우리가 그렇게 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분리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는 곤경에 빠지게 된다.

하나님의 해결책은 그분의 아들이 인류의 대표로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견디고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우리를 대신해 죄값을 치르는 것이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은 그분의 죽음을 우리의 죽음으로 간주하실 수 있다. 우리의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치러 주심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 하실 수 있는데, 그것은 그분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시는 것을 의미한다.

성경은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다.

“모든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 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롬 3:23-26)

이것은 모든 남녀가 자동적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는 것을 의미하는가? 아니, 그렇지 않다. 앞의 비유에 의하면 바리새인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했다. 세리는 의롭다 하심을 얻었는데, 이는 그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자신의 가슴을 치며 자신의 죄를 자백하고 스스로를 정죄하며 하나님의 법을 어긴 것에 대한 형벌을 받아야 마땅한 자라는 것을 인정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나서 그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비에 자신을 맡기며, “하나님, 죄인인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말했다. 그 때 그 자리에서 즉시로 하나님은 그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는데, 그것은 죄의 형벌 없이 단번에 영원히 의롭다 하심을 얻어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함을 받은 것을 의미한다.

또한 성경은 우리에게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히 9:27)라고 말한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가 지은 죄 문제로 우리를 그분의 심판대 앞으로 매일매일 소환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단 하루 ‘심판의 날’ 이 있다. 그리고 그날은 우리가 죽은 후에 온다. 이 한번의 심판 때에 우리는 우리의 전 생애를 회고하게 될 것이며, 하나님의 최종 판결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가장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어떤 판결이 내려질 것인지 알고자 심판의 날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요 5:24을 참조).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십자가에서 단번에 영원히 죽으신 그리스도의 죽음이 심판의 날에도 그들의 모든 생명을 담당하기에 충분하다고 말씀하신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두려워할 이

유가 없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일단 의롭다 하심을 얻으면 그들은 영원히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므로 그들은 하나님과 영원한 평화를 누리게 된다(롬 5:1).

지금까지의 내용을 요약해 보자. 우리가 “어떤 조건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나요?”라고 묻는다면, 신약성경이 제시하는 대답은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롬 3:28)이다. 어떤 사람은 “그렇다면 왜 신약성경은 다른 곳, 즉 야고보서에서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약 2:24)고 말씀하고 있나요? 이것은 모순이지 않나요?”라고 반문한다.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는 말의 의미

아니, 그것은 모순이 아니다. 야고보는 다른 의미로 ‘의롭다 함’(justify)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그것은 어떤 사람을 의롭다고 선언한다는 말이 아니라, 의롭다고 증명하거나 확증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람이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은 분명한 진리이다. 하지만 사람이 그의 가족과 친구들에게 자신이 이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자신이 행동하는 방식, 즉 자신의 행함을 통해서이다.

한 사람이 그의 친구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한다고 가정해 보자.

“친구, 내가 지난 주에 편지를 한 통 받았는데, 나의 친척 중 한 부유한 사람이 죽었다는 소식이었지. 그런데 그 사람이 많은 양의 돈을 나에게 유산으로 물려준다지 뭐야. 내가 할 일은 그저 은행에 가서 이 선물에 대한 금액을 청구하는 거였어. 나는 그 편지를 믿었고 그 편지에 적힌 대로 은행에 청구했지. 나는 이제 거부가 되었다네!”

이 때, 그의 친구들은 다음과 같이 반문하지 않을까?

“너는 이 편지를 단순히 믿음으로 부자가 되었다고 말하지만 그걸 어떻게 믿을 수 있지? 너의 믿음과 그 선물이 실제이고 네가 만들어 낸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너의 삶이 변화된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줬으면 좋겠어. 너의 이야기가 거짓이 아님을 행동을 통해 증명해 봐.”

그러므로 행함이 아니라 믿음을 통해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들은 자신들의 믿음이 진실했고 또 여전히 진실하다는 것을 보여 주어야 한다. 당신의 믿음이 진실함을 증명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야고보가 기록한 대로 당신의 행함을 통해서이다.

제 6장

속전과 구속

/ Ransom and Redemption

자유의 대가

이 장에서 우리는 신약성경의 중요한 두 가지 용어를 더 살펴보고자 한다. 그것은 ‘속전 (ransom)과 ‘구속 또는 속량 (redemption)이다.

문자적인 측면에서 이 단어들 이 오늘날 자주 사용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고대 사회에서도 널리 사용되었다. 납치된 사람이 풀려나기 위해 선 몸값(속전)이 요구된다. 그 때 가족들과 친구들은 그를 풀어주기 위해 많은 돈을 지불해야 한다. 오늘날 테러리스트들은 비행기를 납치하고는 자신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승객들을 하나 하나 죽이거나 비행기 전체를 폭파시킬 것이라고 위협한다. 어쩌면 그들은 돈을 요구하지 않을지도 모른다. 그들의 요구는 이전에 정부에 의해 체포되어

투옥된 동료 테러리스트들의 석방일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도 우리는 여전히 ‘값’, ‘대가’, ‘몸값’ 등과 같은 단어를 사용하는데, 오늘날은 주로 비유적인 의미로 사용한다. 그리고 우리는 이 테러리스트들의 석방을, 비행기에 탄 승객들을 죽음으로부터 구하기 위해 정부가 지불해야 하는 ‘몸값’ (Ransom)이라고 말한다. 그렇지 않으면 정부는 비행기가 공중에서 폭발되는 위험을 감수해야 할 것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감옥과 노예로부터, 또는 죽음의 위협으로부터 누군가를 사서 자유롭게 하려고 할 때만 ‘구속하다 또는 속량하다’ (redeem)는 단어를 사용한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어떤 나라에 어느 못된 사업가가 아동 매춘을 목적으로 많은 돈을 들여서 소녀들을 그들의 가련한 부모로부터 시는 행위를 묘사할 때는 이 단어 ‘몸값’ (ransom) 또는 ‘구속하다’ (redeem)를 사용하지 않는다. 그들은 노예로부터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노예로 만들기 위해 이 소녀들을 사기 때문이다.

어떤 상황에서는 사람들이 자신의 소유물인 어떤 것을 되 사기도 한다. 또 돈이 급하게 필요한 사람은 자신의 시계를 전당포에 맡길 수 있다. 전당업자는 시계를 받고 대신 현금을 준다. 그러나 시계가 즉시 전당업자의 소유가 되는 것은 아니다. 엄밀히 말해서, 일정 기간 동안 이 시계는 원래 주인의 소유로 남아 있다. 하지만 그가 그것을 자신의 소유로 다시 얻고 싶다면, 그 기간 내에 그것을 다시 사야 한다. 즉, 값을 치르고 되 사는 것이다. 물론 그가 지불해야 하는 값은 처음 전당업자

로부터 받은 금액보다 훨씬 클 것이다.

그러므로 ‘몸값’ (ransom)과 ‘구속 또는 속량’ (redemption)이란 단어는 일상의 언어에서 서로 조금씩 다른 여러 가지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데, 어떤 것은 문자적인 의미를 가지며 어떤 것은 비유를 함축하고 있다. 이와 유사하게 신약성경에서는 신학적인 문맥에서 이 용어들을 항상 비유적인 의미로만 사용한다. 금전거래에 대한 개념은 없다. “너희가 대속(代贖; redeemed)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 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벧전 1:18)라고 사도 베드로는 기록하고 있다. 이것은 모든 신약성경에서 다음과 같은 주제를 표현하는 데 사용된다.

1. 빛, 노예속박, 감금, 형벌의 위협, 또는 죽음 등으로부터 사람들을 사거나 되사는 것

2. 이러한 구매 또는 구속(救贖)을 담당하는 주체는 항상 하나님 또는 그리스도이다. 성경은 어떤 사람도 자기 자신이나 친구를 구속할 수 없다고 말한다.

3. 값 또는 몸값의 지불. 그리고 여기에서 값을 지불하거나 몸값을 치르는 주체는 오직 하나님 또는 그리스도라고 다시 한번 말하고 있다. 사람들은 자신의 구속의 값을 치르는 데 아무 것도 기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아무 것도 요구받지 않는다. 이것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노력이나 고난 또는 심지어 속전을 치르는 대가로 구원을 성취하라고 요구하는 많은 종교와 정반대의 입장을 취하는 것이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상인들이 백성들에게 돈으로 구원을 살 수 있고 또

사야 한다는 인상을 주었을 때, 그리스도는 그들 모두를 쫓아내셨다 (요 2:13-16).

4. 구속의 목적은 항상 사람들을 자유롭게 하는 것이며, 또한 그들을 영원한 기업으로 부요하게 하는 것이다.

무엇으로부터의 자유를 얻는 것인가?

1. *과거의 죄에 대한 죄책감으로부터의 자유.* 사람은 과거를 돌이킬 수 없다. 하나님 자신도 과거 역사를 바꾸지 않으신다. 일어난 일은 이미 과거가 돼 버렸다.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과거의 죄에 대한 죄책감으로부터 자유를 얻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은 과거에 얽매여 산다. 과거에 일어난 일을 잊고 새롭게 시작하려고 아무리 노력한다 하더라도 이전의 잘못에 대한 죄책감을 떨쳐 버릴 수 없다.

양심이 더 무딘 사람들은 잠언에서 “그가 먹고 그의 입을 씻음 같이 말하기를 내가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다” (30:20)고 말하는 음녀와 같이 그들의 과거를 쉽게 떨쳐 버릴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 그러나 이러한 무책임함은 진정한 죄책감의 사슬을 끊지 못한다. (이것은 심리적인 죄책감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몇 년 전 영국에서 강도들이 기차를 공격해서 운전자의 생명을 해친 후 수백만 파운드의 돈을 탈취해서 남미로 도주한 사건이 있었다. 그들은 그곳 정부 당국에 뇌물을 주어 그들

을 본국으로 인도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했다. 아마도 이 강도들은 지금 자신들의 죄에 대해 아무런 죄책감을 느끼고 있지 않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영국 땅을 밟게 될 때에 즉시 기소되고 투옥될 거리는 사실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 언젠가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법정에 서게 될 것이다. 단지 수년간의 세월이 흘렀다고 해서, 또는 편하게 기억을 잊어버렸다고 해서 과거의 사실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들을 과거에 얽매이게 하는 죄책감을 그리스도께 의탁해서 제거하지 않는 한, 이 사슬은 영원히 그들에게 남아 있을 것이다.

구속은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이 이생에서 우리를 죄에 얽매이게 하는 사슬을 깨뜨릴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 사슬을 깨뜨리는 행위를 ‘용서’ 라고 한다. 신약성경의 그리스어 원어에서 가장 빈번하게 사용되는 단어인 ‘용서’ 는 ‘석방’ 또는 ‘해방’ 을 의미한다. 이것은 감옥에서 어떤 사람을 풀어주거나 빛을 탕감해주거나 혹은 노예를 해방시켜 줄 때 사용되는 단어이다. 이 해방의 몸값을 그리스도께서 치르셨다. 신약성경은 “우리는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엡 1:7)로 기록하고 있다. 따라서 이 죄의 사슬은 다시 채워질 수 없도록 완전히 깨뜨려졌다. 그리스도께서 지불하고 이루신 구속(救贖)은 영원한 구속이다(히 9:11-12).

2. *하나님의 법으로 선고된 저주로부터의 자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

니.”(갈 3:13)

하나님의 도덕법에 따라 선고된 저주는 무의미한 말이 아니다. 그것은 이 법의 어떠한 조항이라도 위반하면, 반드시 형벌이 뒤따를 것이라고 선언하는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어떤 명령과 금령을 반포하거나 형을 선고할 권리가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할 것이다. 그러나 이 주장은 거짓이다. 창조주의 법은 모든 인간의 마음 판에 기록되어 있다(롬 1:14-16). 어떤 사람이 도덕적으로 범한 잘못에 대해 지적하고 비난할 때마다, 또 우리 자신의 도덕적인 경범죄에 대해 스스로 변명할 때마다, 그리고 좀 더 바른 행동을 자신에게 요구하며 다음에는 꼭 그렇게 하리라고 스스로 다짐할 때마다, 우리는 도덕법이 우리의 마음 판에 새겨져 있고 그것의 권위와 타당성을 스스로 인정한다는 사실을 아마도 무의식적으로 증거하게 될 것이다. 신약성경의 비유를 사용하자면, 그것은 마치 하나님의 도덕법이 문서의 형태로 우리 앞에 제시되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우리 자신을 변호하며 우리의 행동을 개선하려는 도덕적인 결심을 통해 우리 모두가 개인적으로 이 문서에 서명하여 이 법의 권위와 요구사항 및 형벌에 동의한 것과 같다.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은 자신이 서명한 이 ‘문서’가 최후의 심판대에서 그들을 처벌하기 위한 증거로 작용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러나 회개한 사람들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며 손으로 서명한 이 법적 문서, 다시 말해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을 하나님께

서 지우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박으셨다는 확신을 하나님께로부터 얻게 될 것이다. 이를 위하여 하나님은, 회개하고 그분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대신하여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율법의 저주를 담당하셔서 그들을 자유롭게 하셨다는 사실을 전 세계적으로 공표 하셨다(골 2:13-15 참조).

구속을 위해 지불된 값

인류의 구속 또는 속량을 위해 지불된 값은 다름 아닌 바로 그리스도의 죽음이었다. 사실,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에 오신 목적이라고 이것이라고 직접 말씀하셨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속전으로) 주려 함이니라.”(막 10:45) 그리고 “너희가 대속함을 받은 것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고 베드로전서 1장 18-19절에서 기록하고 있다.

이 구속(救贖)의 값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 이해하기 위해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기억할 필요가 있다.

“그 이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서 함께 셤느니라.”(골 1:14-17)

다시 말해, 구원자는 다름이 아닌 육신을 입으신 창조주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가 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해 자신을 대속물로 주실 수 있다(딤후 2:5-6). 이것은 어떤 사람들이 상상하는 것과 같이 인류를 사랑하신 예수님이 어떤 매정한 하나님께 인류에게 진노를 내리시지 못하도록 설득하기 위해 이 몸값을 지불해야 했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생명을 인간의 대속물로 주시게 한 사랑은, 인간에 대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의 완전한 표현이었다. 하나님의 본체이셨던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완벽한 형상이자 표현이셨고 또 언제나 그러하시다. 신약성경은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요일 4:10)고 기록하고 있다.

“하지만 그런 경우, 만약 예수님이 하나님께 값을 치르지 않으셨다면 누구에게 값을 지불해야 했나요? 누군가에겐 틀림 없이 지불했을 텐데요”라고 어떤 이는 말한다. 그러나 이와 같이 논쟁하는 것은,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 즉 신약성경의 이러한 문맥에서 ‘대속물’(속전,

ransom)이라는 용어가 하나님과 그리스도께 치러진 대속의 값을 표현하기 위한 비유로 사용되고 있음을 잊고 있는 것이다. 이 값은 어떤 제3자가 받을 수 있는 문자적인 현금 지불을 말하는 게 아니다. 이 값은 고난과 죽음이라는 대가였다.

한 구조선이 너무 많은 사람을 실어서 가라앉을 위험에 처해 있었는데, 한 남자가 죽을 줄 알면서도 얼음으로 덮인 바다에 자발적으로 뛰어 들었다고 상상해 보자. 우리는 그가 살아남은 승객들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매우 비싼 값을 지불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누구에게 이 값을 지불한 것인가?” 라고 묻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

또 다른 의문이 제기된다. 성경은 우리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피조물이기에 그분의 소유라고 가르친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자신의 소유를 되 사기 위해 어떤 대가나 값을 지불해야만 하셨을까? 만약 우리가 죄악의 습관에 빠져 있고, 사탄의 손에서 놀아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죄수가 되었다고 상상해 보자. 왜 하나님은 그저 자신의 전능한 능력을 사용해서 사탄을 떨하고 우리의 사슬을 끊어 대가를 지불할 필요 없이 강제로 모든 인간을 자신에게로 돌이키게 할 수 없으셨는가?

이에 대한 답변은 죄의 문제는 도덕적인 문제이고, 우리는 강제로 도덕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다. 아무리 전능하신 하나님이 라도 하실 수 없는 것들이 있다. 그분은 원이면서 사각형인 형태를 그

리는 것과 같이 논리적으로 불가능한 것들을 행하실 수 없다. 또 그분은 도덕적으로 옳지 않은 일을 하실 수 없다. 그분은 거짓말을 하실 수 없다(딤후 1:2). 그분은 자신의 도덕법을 어기실 수 없다. 하나님의 법은 그분의 인격에 대한 표현이다. 우리가 그분을 부인하면 그분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분은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다(딤후 2:13). 단지 능력을 임의로 행함으로 우리를 죄에 대한 속박으로부터 풀어 주시는 것이 그분에게 용납되지 않는다. 이에 대한 유일한 방법은 우선 그분의 도덕법이 요구하는 형벌을 받는 것이다. 그리고 그분은 사랑으로 인해 우리를 위해 그렇게 하셨다. 그래서 대가를 치르셨다. 그래서 고난을 받으셨다.

무엇을 위한 자유인가?

우리가 어떤 사람을 노예로 만들기 위해 값을 주고 산다면 우리가 지불한 그 값을 ‘속전’ (ransom)이라 부를 수 없다는 것은 앞에서 이미 살펴보았다. 그리스도는 사람들을 죄책감으로부터 해방시키고 그들에게 자유를 주시기를 위해 대가를 지불하셨다. 그런데 무엇을 위한 자유인가? 분명 처벌을 받지 않고 계속 자유롭게 죄를 짓도록 하기 위해서는 아닐 것이다. 왜냐하면, 죄는 중독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회개치 않고 지속적으로 그것을 행하는 사람들을 노예로 만들기 때문이다(롬 6:16-23).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을 무엇으로부터, 또 무엇을 위해 구속

하셨는지에 대한 기록이 여기에 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 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 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딤후 2:11-14)

그리스도께서 이 새로운 삶의 방식이 종교적인 노예의 삶이 아니라 자유인의 삶의 형태로 나타남을 어떻게 보장하셨는지 다음 장에서 확인해 볼 것이다. 신약성경이 지금 이 지상에서 아직 우리에게 구원의 모든 열매가 주어지지 않는 것을 매우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에 잠시 주목해 보자. 그리스도의 대속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 얻으신 유익 중 하나는 “우리 몸의 구속”이다. 우리 몸의 구속이 이루어지면,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롬 8:18-25, 빌 3:20-21).

다른 한편으로, 하나님은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지금 이 지상에서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 이 성령님은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신뢰할 수 있음을 모든 신자에게 확신시켜 주시며, 언젠가

그들의 소유가 될 모든 기업에 대해서 성령님 자신이 보증이자 담보가 되어 주셨다. 그 때가 되면 하나님은 자신의 모든 약속을 이루시고, 아들 예수님의 보혈로 사신 사람들을 천국에서 자신에게로 인도하실 것이다(엡 1:13-14, 행 20:28).

제 7장

영생 / Eternal Life

지금 이곳에서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 선언하신 가장 위대한 말씀 중 하나는 그분이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시는 권한을 가지셨다는 말씀이다(요 17:1-3).

우리가 알다시피 이러한 선언은 종종 사람들의 비웃음을 샀다. 어떤 비판론자들은 이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육체적으로 죽지 않을 것을 약속하신 것으로 가정했다. 그리고 그들은 이러한 가정을 바탕으로, 예수님 자신도 그 후 얼마 되지 않아 죽으신 사실을 들어 예수님을 이단 사상에 현혹된 종교적 광신자라고 단정지었으며, 이 후 그들의 추종자들도 동일한 결론을 내리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비평은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완전한 무지에서 생겨난다. 성경을 아주 단순하게 읽어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곧 십자

가에 죽으실 것을 말씀하실 뿐 아니라 자신이 죽은 이후에 주님을 위해 목숨을 버릴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도 말씀하셨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눅 9:22, 12:4, 요 16:1-3).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든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영생을 주실 수 있다고 한 말씀은 육체적으로 죽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좀 더 심각한 비판론자들은 약속된 ‘영생’을 선택한 사람들이 이 세상을 떠난 후에 얻게 될 삶이라고 생각했다. 다시 말해, ‘그들이 죽은 후 천국에 가는 것’이다. 그래서 이 비판론자들은 이 영생에 관한 모든 말씀을 위협하고 따분한 동화와 같은 것으로 경멸하게 되었다. 배고픈 사람들이 쇠고기 스테이크를 꿈꾸는 것과 마찬가지로 가난하고 억압받고 실망하고 아픈 사람들이 삶의 고통을 덜고 자신들의 비극을 악화시키기 위해 상상의 천국을 만들었다고 말한다. 하지만 무신론자들은 이러한 마약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들은 자신의 용맹과 지성을 사용해서 삶을 개선하기 위해 발버둥친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들이 경멸하는 상상 속의 천국에 대한 소망조차 가져보지 못한 채 머지않은 장래에 죽음이라는 냉엄한 현실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신약성경은 이것을 “세상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빌 1:23), 또는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것”(고후 5:8) 등으로 조금 다르게 표현하기도 한다. 어쨌든 신자들이 ‘죽을 때 천국에 간다’고 가르치고 있음은 완전한 사실이다. 그러나 미래의 천국에 대한 이 소망은 사람들이 이생에서 열심히 살아가고자 하는 삶의 의욕을 말살시키고,

혹 그렇지 않더라도 필연적으로 그것을 약화시킬 것이리라는 비판론자들의 주장은 명백히 거짓이다. 신약성경은 영생이 죽음 후에 천국에 갈 때 얻게 되는 어떤 것이 아님을 아주 분명하게 말하고 있다. 그것은 우리가 죽어 천국에 가기 훨씬 전인, 바로 지금 이 지상에서 얻을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삶이다. 말하자면 인류가 자연스럽게 향유하는 단순한 육체적, 감정적, 심미적, 지적인 삶을 뛰어넘는 또 다른 차원의 삶인 것이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마 4:4)고 말씀하실 때 가리키신 그 삶이다.

가능하다면 이런 상상을 해 보자. 육체적인 결합 외에 아무 의미 없는 결혼 생활, 즉 부부가 서로 대화하지도 않고 내면의 생각과 희망, 기쁨, 두려움, 슬픔, 좋아하는 음악 또는 미술 등에 관해 서로 나누지 않으며, 서로를 알아가지 않는 결혼 생활은 어떠할까? 이러한 결혼은 동물의 짝짓기와 큰 차이가 없을 것이다. 이것은 참으로 인간적인 차원에 못 미치는 것이다. 이와 유사하게, 육체적, 감정적, 심미적, 지적 차원에서 삶을 누리는 데 만족하지만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지금 이 지상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삶을 잃어버린 상태에 있다. 또한 그는 장차 올 세상에서의 영원한 삶도 잃어버릴 가장 심각한 위협에 처해 있다. 신약성경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다. 여기 사용된 동사의 현재시제를 주목해 보자. 지금 이곳에서 영생을 소유하는 것이다. 이와 반대로, 성경은

또한 “아들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요 3:36)고 경고하고 있다.

여기에서 우리는 또 다른 구별된 개념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신약 성경이 말하는 영생은 영원히 존재하는 것과 동일한 것이 아니다. 모든 인생은 육체의 죽음 이후에도 여전히 살아 있을 것이다. 모든 사람은 영원히 존재한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성경이 말하는 ‘영생’ 이 아니라 ‘둘째 사망’ 이란 영적인 상태로 존재하게 될 것이다. (요한계시록 20:11-15, 우리는 이 주제를 이 책의 마지막 부분에서도 살펴볼 것이다.)

이 점에서 몇몇 비평론자들은 아마도 이생에서 향유할 수 있는 영생에 관한 이야기는 모두 심리적인 자기기만의 일종이라며 반박할 것이다. 즉, 그것은 순전히 주관적인 이론일 뿐, 객관적인 현실에 대해 어떠한 답도 주지 못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그들이 예술작품 감상에 대해서도 똑같은 말을 할 수 있다면, 동일한 오류에 사로잡히게 될 것이다. 사실, 미술 걸작품을 보고 캔버스 위에 묻어 있는 물감 이상을 들여다볼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 면에서 소경들은 미술의 세계에 대해 아무런 개념도 가질 수 없다. 그러나 단지 볼 수 없다고 해서 예술의 세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거나, 예술을 즐기는 행위가 심리적인 자기기만이라고 논증하진 못할 것이다. 물론 물리적인 사물을 볼 수 없는 어떤 소경들은 시력을 얻기를 원하지 않을 것이다. 필자는 어린 아이와 같이 낮은 시력을 가진 한 사람을 알고 있었다. 머지않아 그는 시력을

있었고 완전한 소경이 되었다. 그는 비록 시력이 회복될 수 있다고 해도 시력을 회복하길 원하지 않는다고 종종 말하곤 했다. 그는 자신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에 만족했다. 그는 시력을 얻게 될 때 자신이 볼 수 있는 수천 가지 것들로부터 오는 혼란을 겪게 될 것과 삶이 매우 복잡해질 것을 두려워했다. 그는 보지 않고 단순한 삶을 사는 것을 더 좋아했다.

이와 마찬가지로, 많은 사람들은 그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영생을 얻는 가능성을 받아들인다면 삶이 너무 복잡해지고 너무 많은 급진적인 변화들을 겪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들은 무신론의 단순함을 선호한다. 그래서 ‘하나님’과 ‘영생’은 가상적인 개념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 주장한다고 해도 사실이 바뀌진 않는다. 이것은 오히려 그들이 영적으로 소경이라는 사실을 보여줄 뿐이다.

그렇다면, 영생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1. 영생을 얻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을 나누는 뜻이다. 신약성경에서 사용된 용어의 의미를 살펴볼 때, 사람들은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를 맺고 그분을 알기 전까지 영적으로 죽어 있다. 육체적으로가 아닌 영적으로 죽은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유명한 탕자의 비유는 ‘죽음’이라는 단어가 적절하게 사용된 예시를 제공한다. 탕자가 돌아온 후 아버지가 큰 아들에게 말했다. “이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

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눅 15:32)

탕자는 아버지를 배반하고 집을 떠나 먼 나라로 갔다. 그는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았고 관심조차 두지 않았다. 탕자는 아버지와 전혀 의사소통을 하지 않았다. 그는 아버지의 관심사나 삶을 나누기를 원치 않았다. 아버지에 관한 한 그는 죽어 있었다.

그러나 탕자가 회개하고 집으로 돌아와 아버지와 화목하게 되었을 때 그는 ‘살아났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영적으로 죽어 있던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과 화목할 때, 영적인 삶이 시작되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큰 것이 뒤따라 온다.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때, 그들은 하나님을 발견할 뿐 아니라, 이전에 완전히 죽어 있었기 때문에 볼 수 없었던 영광스런 영적인 세계를 발견할 수도 있을 것이다. 사람들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고 그리스도를 믿게 될 때, 하나님은 그들 안에 이전에 없었던 새로운 생명을 창조하신다. 신약성경의 용어를 다시 한번 사용하자면, 하나님은 그들을 ‘살리신다’(quicken). 한 아버지가 자신이 낳은 아이에게 육신의 생명을 전달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들 안에서 자신의 영적인 생명을 낳으신다.

“공홀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엡 2:45)

유추를 통해서 살펴보자. 포장용기에 동봉되어 있는 전구는 아직 빛을 내지 않는다. 포장용기에서 꺼내어 램프스탠드의 소켓에 장착한 뒤, 천장에 달린 큰 전등에 의해 이미 밝게 비추고 있는 방 안에 놓아 보자. 이제 이 전구는 방 천장 중앙에 있는 광원으로부터 비치는 빛으로 둘러싸여 있다. 그러나 아직 자체로 빛을 내지는 못한다. 아직은 '죽은' 상태에 있다. 그리고 이 전구는 천장의 전등에 공급된 전류와 똑같은 전류를 흘려 보내기 전까지 계속 '죽은' 상태로 남아있을 것이다. 그러나 전력을 공급하면 전류는 전구를 통해 빠르게 흐르게 된다. 이제 이 전구가 어떻게 '살아나는지' 눈으로 관찰해 보라.

2. 영생의 선물은 그것을 받는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개인적인 관계를 형성한다. 초현대식 컴퓨터는 컴퓨터를 사용하는 사람의 목소리를 인식하도록 만들 수 있다. 사람이 컴퓨터 앞에서 말하기만 하면 컴퓨터는 그가 말한 것을 문서의 형태로 재생한다. 하지만 이 컴퓨터는 그의 자녀나 아내가 그를 이는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그를 알 수 없고, 그의 자녀들이 사랑하는 것처럼 그를 사랑할 순 없을 것이다. 컴퓨터는 인간의 생명을 가지고 있지 않다. 하지만 사람이 자녀들을 낳고 자신의 생명을 전달해 줄 때, 자녀들은 이 생명과 함께 그들의 아버지를 알고 사랑하며, 아버지와 더 깊은 관계를 누릴 수 있는 능력을 부여 받는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자신의 영적 생명을 전달해 주실 때, 그분은 그들의 영혼을 다시 살리시고 중생의 역사를 일으키시

며, 이 중생의 역사는 그들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형성하여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게 된다. 이것이 신약성경이 “영생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요 17:3)고 말씀하는 이유이며, 그것은 곧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생명을 공유하는 것이다(요일 1:14).

3. 영생 : 현재의 선물, 영원한 소유. 영생이란 그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영생은 그야말로 영원하다. 하나님이 한 사람과 영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또 그 사람과 자신의 생명을 공유하실 때, 그것이 정의하는 대로 그 관계는 영원하다. 영생은 육체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소멸하지도 않는다. 일단 하나님이 어떤 사람과 영생의 선물을 통해 개인적인 관계를 형성하셨다면, 하나님은 영원히 그 사람을 신실하게 대하시고, 그 관계는 영원히 유지된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요 10:28)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요 3:16)

그러므로 영생은 육체의 죽음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우리가 이 땅에서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인간의 육체는 신약성경에서 장막에 비유되고 있다. 이는 일시적인 이 땅에서의 순례에 적합할 뿐만 아니라, 비교

적 깨지기 쉽고, 또 쉽게 쓰러지고 꺾이는 성질을 의미한다. 이와는 반대로, 부활 시에는 모든 신자들이 영광스러운 몸을 받게 될 것인데, 이 몸은 그분께 구속을 받아 완전해진 인격을 표현하도록 설계되었고, 신약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지은 집, 곧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고후 5:1)으로 묘사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영생과 함께 오는 것은 그리스도를 기꺼이 받아들이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타 모든 영원한 것들이다. 따라서 신약성경은 구원이 영원하다고 선언한다(히 5:9). 속죄와 그 효과도 영원하고(히 9:12),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에게 약속된 기업도 영원하며(히 9:15),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삶의 경험과 고난이 가져다 줄 영광 또한 영원하다(고후 4:17). 그리고 여기에서 놀라운 것은 영생은 거저 주시는 선물이며, 이것은 참된 회개와 믿음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와 구주로 영접한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이다.

“죄의 값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롬 6:23)

영생의 잠재력

영생은 육체의 생명과 같이 정적이지 않다. 아기는 태어나자마자 육체의 생명을 가진다. 그러나 세월이 흘러감에 따라 그는 생명의 잠

재력을 개발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영생도 마찬가지이다. 그것은 잠재력으로 가득 차 있으므로 항상 미래에 대한 소망이 넘친다. 우리가 세계적으로 유명한 운동선수가 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젊은이에게 그가 가진 재능을 소홀히 여기지 말고 그것을 최대한 활용할 것을 권하는 것과 같이, 신약성경은 영생을 얻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신 목적인 영생을 취하도록 권하고 있다(딤후 4:7-8, 6:11-12). 그리고 영생의 잠재력을 개발한 것에 대해 주어지는 주요한 상급은 이 생명을 누릴 수 있는 능력이 계속 상승하는 것이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갈 6:8)고 신약성경은 말한다. 운동선수는 많이 달리면 달릴수록 심장과 폐, 근육, 및 호흡을 더욱 단련하게 된다. 그리고 더욱 더 단련시키면 달리기를 더욱 더 잘하게 된다.

물론, 운동선수에게는 단련, 절제, 한 가지 목표 및 강도 높은 운동 등과 같이 혹독한 훈련이 요구될 것이다. 그리고 그가 선수권대회에서 우승하길 바란다면 경기의 규칙을 잘 지켜야 한다. 규칙을 지키지 않을 경우, 생명을 잃지는 않겠지만 분명 상을 얻지 못할 것이다. 영생도 마찬가지이다. 영생의 잠재력을 개발하고 최대의 상급을 얻기 위해서, 이를 소유한 사람들은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 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라”(히 12:1)를 준비해야 한다. 그들은 자신을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좇을 준비를 해야 한다. 또한, 절제력을 배양하고 “법대로 경기하라”를 배워

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은 실격될 것이고 어떠한 상급도 얻지 못하게 될 것이다(고전 9:24-27, 딘후 2:5).

그러나 영생에 관해 더욱 놀라운 사실은 이것이다. 영생은 그것을 소유한 사람들이 잠시 스쳐 지나가는 이 세상의 경험, 책임, 즐거움 및 고통 등에 영원의 의미를 부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하고 영원한 상급에 자기 자신을 헌신할 수 있게 해준다(요 12:25, 벵후 1:5-11).

우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 수 있는 가능성: 어떤 사람들, 심지어 어떤 종교인들도 우리가 이생에서 이미 영생을 소유하고 있음을 확신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이 주제에 대해 신약성경에서 명확하게 진술된 것을 아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깊이 있게 다룰 것이다. 그러나 우선 이것에 해당되는 구절을 소개하자면 아래와 같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은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요일 5:11-13)

제 8장

회개 / Repentance

잘못을 시인하는 것 이상의 행위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이 사람을 화목하게 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구속하시며, 허물과 죄로 인해서 죽었던 우리 영혼을 살리시기 위해 행하신 일을 설명하기 위해 신약성경이 사용하는 용어들을 공부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행하셨고, 지금 행하고 계시며, 또 장차 행하실 일이 우리에게 실질적인 유익이 되도록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을 설명하는 용어들을 공부해야 할 것이다.

이 용어들 중에 첫 번째는 ‘회개’이다. 그리스도께서 가장 먼저 공표하신 내용은 이렇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막 1:15)

그리스도께 회개는 큰 기쁨의 시간이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눅 15:10). 회개는 또한 건전한 것이다. 비가 땅을 부드럽게 하고 씨가 싹을 틔우고 자라게 하는 것과 같이, 회개도 영적인 삶으로 가는 길을 열어 준다. “그들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행 11:18)고 신약성경에서 이를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회개는 복합적인 것인데, 진실하고 건전하고 효과적이라는 필수적인 구성요소를 모두 갖출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온전한 회개는 건강한 슬픔을 수반할 수 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고후 7:10) 반면, 온전한 회개에 미치지 못하는 슬픔은 구원과 생명에 이르지 못한다는 점에서 효과가 없을 뿐 아니라 병적이며 파괴적이다.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고후 7:10)

이것의 확실한 예는 예수님을 배반한 가롯 유다이다. 예수님이 정죄 받으시는 것을 목격했을 때, 그는 ‘스스로 뉘우쳤다’. 그는 자신이 저지른 악행을 되돌리려고 노력했지만 그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물론 십자가로 달려가서 죽어가는 강도가 했던 것처럼 예수님께 울면서 공훈과 용서를 구할 수도 있었다. 그의 뉘우침은 신약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온전하고 건강한 회개가 아니었다. 그것은 단지 후회와 자책에 불과했다. 그런 것은 생명과 구원으로 인도하지 못

한다. 그와 반대로 유다는 자기 길로 가서 스스로 목을 매었다(마 27:3-5).

회개의 신약적 의미는 그 번역 과정과 일반적으로 사용되어 오는 과정에서 종종 왜곡되기도 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를 아주 조심스럽게 고찰해야 할 필요가 있다. 신약성경의 그리스 원어에서 회개에 대해 두 가지 단어가 사용되었다.

1. *Metanoia*(메타노이아)와 그 동사형인 *Metanoeo*(메타노에오). 이 단어들의 기본적인 의미는 ‘생각의 변화’이다. 다양한 감정과 느낌은 이 생각의 변화를 초래하거나 수반하고, 또는 이로부터 생겨날 수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그것은 도덕적 판단의 연습이다.

2. *Metamelomai*(메타멜로마이)와 비인칭 동사, *Metamelei*(메타멜레이). 이 두 동사도 회개의 개념을 표현하는 데 사용되었다. 그러나 이 두 동사는 자신이 행한 일에 대한 슬픔을 보다 강조한다.

그러므로 회개는 주로 생각의 변화, 이전의 도덕적 판단의 전환 및 이전 행동에 대한 부인이라 할 수 있다. 그것은 부정적인 요소를 내포하고 있다. 신약성경은 거짓되고 악한 것들로부터 회개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죽은 행실을 회개함”(히 6:1)이다. 반면, 회개는 긍정적인 요소도 포함한다. “하나님께서로의 회개”(행 20:21)이다. 다음 구절이 회개의 지적 요소(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 부정적 요소(악한 길을 버림), 그리고 긍정적 요소(주님께로 돌아감)를 어떻게 강조하는지 주목해 보자.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사 55:7-8)

회개의 세 가지 영역

우리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세 가지 주요 영역이 있다.

1. **하나님에 대해** : 우리가 무신론자라면, 분명 회개는 무신론을 버리고 하나님의 존재를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할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 회개할 필요가 있는 무신론자에게 국한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믿으면서도 행위로는 부인하며, 회개하고 구원을 받으라는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무시하고, 그의 법을 어기며 그분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살아갈 수도 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사실이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사 53:6) 회개는 다름 아닌 바로 우상(유일하신 참 하나님 대신 우리가 붙들고 있는 모든 것)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와 살아 계시고 참 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살전 1:9).

2. **우리 자신에 대해** : 신약성경은 회개의 두 가지 명확한 단계를 요

구한다. 이것은 쉽게 간과될 수 있기 때문에, 우선 이 둘 사이의 차이점에 대한 예화로 시작하고자 한다.

어느 50세 남자는 건강이 좋지 않다. 그는 의사를 찾아간다. 검사를 받은 후, 의사는 그 병의 원인이 과도한 흡연 때문이라고 말한다. “네, 이제 알 것 같습니다”라고 그는 말한다. “그리고 저는 그것을 회개합니다. 담배를 끊는 데 도움이 되는 약을 좀 주십시오.”

여기까지는 좋았다. 이 남자는 흡연에 대한 개인적인 죄를 회개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의사는 이렇게 말한다. “담배를 끊는다니 현명한 결정을 하셨군요. 그러나 담배를 끊는 것이 당신의 생명을 구할 수 없습니다. 당신의 폐는 눈에 보일 정도로 심하게 망가졌고, 심장은 심각한 손상을 입었습니다. 당신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당신의 심장과 폐를 이식하는 것입니다.”

이제 중차대한 질문이 남겨진다. 이 남자가 이 초기 단계에서 기꺼이 회개할 것인가? 다시 말해, 폐와 심장의 상태가 매우 나빠져서 단순히 담배를 끊는 것으로는 생명을 구할 수 없고, 폐와 심장을 새 것으로 교체해야만 살 수 있다고 한 의사의 소견에 수긍할 것인가?

이 사람이 의사의 판단을 거부했다고 가정해 보자. “아니요, 저는 아직 이 큰 수술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당신이 말하는 것처럼 제 병이 심각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제가 담배를 끊는다면 제 몸이 완전히 회복될 수 있을 거라 확신해요.” 그가 이렇게 반응한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오래지 않아 바로 죽음을 맞이할 것이다.

반대로, 그가 이 초기 단계에서 회개하고 의사의 진단에 동의하여 수술을 받아들이고, 다른 사람의 폐와 심장을 이식 받는다면 어떻게 될까? 그렇다고 해도, 흡연의 죄를 회개하는 것은 여전히 중요한 문제로 남게 될 것이다. 실제로 의사는 병원을 떠나는 그에게 다음과 같이 말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제 당신은 담배를 완전히 끊어야 합니다. 그리고 담배를 다시 피고 싶은 유혹을 이길 수 없다면, 즉시 제게 말씀해주세요. 제가 금단현상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는 약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이다. 하나님의 판결은 우리가 너무 악해서 개인적인 죄를 회개하는 것이 중요하긴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우리에게는 소위 ‘근본적인 회개’라 할 수 있는 어떤 것이 필요하다. 이것은 우리의 죄뿐 아니라 우리 자신에 관한 하나님의 판결에 동의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것은 우리의 행위뿐 아니라 우리의 존재에 관한 질문이다. 하나님의 판결은 우리가 과거에 죄를 범했다는 것과 현재에 여전히 하나님의 거룩의 기준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뿐 아니라 우리가 본질적으로 “진노의 자녀”(엡 2:1-13)라는 것이다. 우리의 본성은 죄악으로 가득 차 있고 하나님의 미움을 불러일으킨다. 물론 이것은 우리의 모든 부분이 악해질 수 있는 만큼 극도로 악하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그것은 우리의 어떤 부분도 죄로 인해 야기되는 폐해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과나무는 사과 열매를 맺음으로 사과 나무가 되는 것이 아니다.

이미 그 본성이 사과나무이기에 사과 열매를 맺는 것이다. 보이는 모든 사과를 나무에서 제거한다 해도 그것은 여전히 사과나무이다. 많은 적든 개인의 죄를 단순히 자백하는 것은, 나무에서 사과를 따내는 것과 같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본성적으로 우리가 죄인이란 사실을 해결해 주진 못한다. 세례 요한이 말한 대로, 사실 우리는 잘려져서 불 속에 던져져야 마땅한 “못된 나무” 이기 때문이다(마 3:10).

그러나 이 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판결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한다. 그들은 회개하려고 하지 않는다. 그들은 아마도 엄청난 죄를 지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을 것이다. 심지어 자기의 인격에 어두운 영역이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들은 그저 자신들의 과거의 잘못에 대해서만 회개하고 그 잘못된 습관을 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기만 하면 된다는 생각을 고집하고 있다. 그들은 이렇게 함으로서 항상 생각했던 대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은, 기본적으로 선한 사람들이 되길 바란다.

그러나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직접 말씀하신 대로 환상일 뿐이다.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짙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눅 6:43-44)

가시나무가, “나는 상당수의 가시를 내긴 했지만 실제로는 가시나무

가 아니야. 나는 원래부터 무화과나무였어” 라고 말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

그러므로 근본적인 회개는 스스로에 대한 평가를 포기하고 개인적인 죄에 대한 회개가 결코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는 하나님의 판결에 동의하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는 우리의 외부에 있는 어떤 근원에서부터 오는 새로운 영적인 생명이 필요하다. 이 근원은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이제는 우리의 구주(救主)로 살아 계신 그리스도이다.

사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침례에 대한 역사적인 의미이다. 그래서 신약성경은 침례가 상징적인 장례식이며, 이를 통해 침례를 받는 사람은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고 장사되어야 마땅한 무가치한 죄인이라는 하나님의 판결을 받아들였음을 공적으로 고백한다. 그것은 한 사람의 인격의 나쁜 부분이 어떻게든 씻겨지고 좋은 부분이 자라서 번성하게 하는 마법과 같은 수술이 아니다. 한 사람이 살인죄로 사형을 당해 죽을 때 그를 살인으로 몰아간 성마른 기질이나 질투심만이 아니라 그 사람의 모든 육체가 죽음을 당하고 묻히는 것처럼, 침례를 통해 그의 전 인격이 장사된다. 이와 마찬가지로, 한 사람이 살인죄로 사형을 당할 때, 이 죽음은 그의 모든 생명의 결말을 가져온다. 침례를 받는 것은 단순히 그의 과거로부터 현재까지의 삶을 취소하고, 그의 남은 생애는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살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 바로 죽음을 의미하며, 죽음은 바로 종결이다. 그의 전 생애가 끝이 난 것이다. 죽음은 결코 반복될 필요도 없고, 그럴 가능성도 없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셨을 때, 그는 한 번 죽으셨다. 그리고 결코 다시 죽지 않으실 것인데, 왜냐하면 그럴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롬 6:8-11 참조). 그의 한번의 죽음은 그분을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들의 죄에 대한 대가를 완전히 지불했다. 그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생애에 짓는 죄에 대한 값을 지불하신 것이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침례를 받을 때, 그는 또한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 제공하신 희생제물과 구주로 영접했고, 한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통해 하나가 되는 것(고전 6:15-17)과 같이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그분과 하나가 되었음을 선포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그리스도가 죽으셨을 때 신자도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가 묻히셨을 때 신자도 함께 묻혔으며, 이것으로 그의 죄악된 자아가 법적으로 영원히 끝나버린 것이다. 침례를 통해 그는 사도 바울과 같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박혔나니” (갈 2:19-21)라고 고백한다.

또한 침례는 상징적인 부활이다. 이것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처럼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모든 사람에게 새로운 영적인 삶을 주신다는 것을 의미한다. 어느 정도 개선이 가능한 옛 삶이 아니라, 이전에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삶을 말한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삶과 다름이 없는 삶이다. 따라서 신자는 (사도 바울의 진술을 따라서) 다음과 같이 진심으로 고백할 수 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갈 2:19-21)

침례가 상징에 불과하다고 굳이 말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침례는 침례가 상징하고 있는 죽음과 부활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도 않는다. 그저 결혼 반지와 같다. 결혼하지 않은 여인이 결혼 반지를 착용할 수도 있다. 반지를 끼는 것이 반드시 그녀가 결혼한 사람이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 반지는 그녀가 한 남자를 남편으로 받아들이기로 승낙한 후에야 비로소 의미를 갖게 된다. 그러므로 사람은 침례를 받기 전에 우리가 지금까지 논의한 본질적인 방식으로 회개해야 하고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침례는 공허한 상징이며, 거짓된 어떤 것의 껍데기일 뿐이다.

3. 우리가 지은 죄들에 대해 : 회개를 촉구하는 다음 영역은 우리가 지은 죄들에 대한 것이다. 근본적으로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은 이제 법적으로 자유롭다. 그는 더 이상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기 위해 자신을 개선하려 몸부림 칠 필요가 없다. 이미 받아들여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인해 그를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가 진실로 그리스도인다운 삶에서 성장하길 기대할 수 있다. 여기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이란, 하나님이 죄로 여기

시는 태도와 행동이 무엇인지 발견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이러한 죄를 회개하며, 이를 제거하기 위해 그리스도의 힘과 능력을 구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때때로 연약과 유혹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때마다 하나님께 그것을 자백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한 약속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요일 1:9)이다. 이러한 종류의 회개는 평생에 걸쳐 해야 할 일이다. 그것은 매일매일 반복될 필요가 있다(계 2:5, 16, 21, 3:3).

진정한 회개의 또 다른 몇 가지의 특징

1. 회개는 단순히 말에 관한 문제가 아니다. 회개는 회개를 나타내는 행위의 진실됨을 요구한다. 세례 요한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말했다(마 3:8).

2. 반면, 회개를 했다고 해서 구원에 대한 자격을 부여 받거나 구원을 획득할 수 없다. 죄사함은 죄에 대한 우리의 슬픔의 강도에 따라 결정되는 것도 아니요, 고행을 통해서 획득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죄사함은 파산한 죄인에게 거저 주시는 완전한 선물이요, 믿음으로만 얻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께 대한 회개”에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수반되어야 하는 이유이다(행 20:21).

3. 회개는 시급하다. “하나님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행 17:30-31)라고 말씀하셨다. 그리스도도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눅 13:3, 5)고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을 하셨다.

제 9장

믿음 / Faith

맹신이 아님

앞선 장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류를 위해 과거에 행하셨고, 지금 행하고 계시며, 미래에 행하실 모든 일들로부터 혜택을 얻기 위한 첫 걸음이 하나님께 대한 ‘회개’라는 사실을 살펴보았다. 하지만 그 다음으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이다 (행 20:21).

신약성경에 따르면 구원의 조건은 다음과 같다.

1)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고” (이것은 객관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로, 주관적으로는 개인의 주님으로 영접하는 것을 의미한다.)

2) “만일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롬 10:9)

여기서 즉각적으로 생겨나는 질문은 이렇다. “이러한 믿음은 어떻게 오는 것인가?”

믿음과 관련된 어려움 : 믿음과 과학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다음과 같이 말하는 것을 들을 수 있다. “우리는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믿고 싶습니다. 하지만 수년간 무신론에 세뇌되어서 우리들에게는 믿는다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이란 자의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과학에서는 증거와 증명이 있고 믿음은 필요치 않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에서는 증거나 증명 없이 단순히 믿기로 작정해야 합니다. 그것은 캄캄한 밤에 높은 건물의 창 밖으로 눈을 감은 채로 뛰어내리면서 어딘가에는 안전하게 착륙하리라 기대하는 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믿음이 예술적인 능력이라고 생각한다.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거나 가지고 있지 않거나 둘 중 하나이고, 이에 대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 것도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견해는 모두 사실이 아니다. 게다가 과학에는 믿음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생각 또한 거짓이다. 사실, 믿음은 과학적인 노력에 대한 기초를 제공한다.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은, “과학은 진리와 이해에 대한 영감으로 충만한 사람들에 의해서만 창조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감정의 원천은 종교의 영역에서 비롯된다. 또 존재의 세계에 필요

한 규칙들이 합리적일 것이라는 가능성, 즉 그것들이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라는 가능성에 대한 믿음도 바로 이 종교에 속한다. 나는 이 깊은 신앙을 공유하지 않는 사람들을 진정한 과학자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현상들은 이미지를 통해서 표현될 수 있다. 종교가 없는 과학은 설득력이 없고, 과학이 없는 종교는 맹신이다.”¹⁾고 말했다.

물론, 과학자들이 설명한다고 하는 세계가 실제로 존재하는지에 대해 의문을 가진 과학자들과 철학자들은 늘 있어 왔다. 이들은 그 세계가 과학자들 스스로의 생각과 공식에만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그들은 과학자들의 이론이 객관적인 현실에 어떠한 해답도 주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것은 당연히 극소수의 의견일 뿐이다.

대다수의 과학자들은 자신이 직접적으로나 기구를 사용해서 탐구하는 세계가 실제로 존재한다고 믿는다. 그들은 관찰, 측정, 가정, 이론, 실험 및 해석을 통해 그 세계를 창조해내지 않는다. 그들은 그 존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 사실, 그들은 소립자와 같은 미세한 물질들을 발견해 왔는데, 이러한 것들은 이전엔 존재하는지조차 미처 알지 못했던 것들이다. 이 미세 물질들은 그들에 의해 발견되기 전에 이미 존재했었다. 그러므로 과학자는 연구를 통해 그 세계를 창조해낸 것이

1) *과학과 종교*(1941) ; 뉴욕에서 열린 “*과학, 철학 및 종교, 심포지엄*”에서. 이 컨퍼런스는 1941년 ‘민주주의 생활 양식 주식회사’ 주최로 “*과학, 철학 및 종교*”를 주제로 함. 이것은 이후 1950년 출간된 “*나의 말년의 회고록*”에 수록됨.

아니라 단순히 그 세계를 이해하려고 한 것에 불과하다. 이러한 목적으로 과학자는 그 세계가 제시하는 증거에 집중하고, 이 증거를 설명하기 위해 실험을 통해서 입증할 수 있는 만큼만 자신의 이론의 진위를 판단한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주를 공간에 두셨기 때문에, 두신 그곳에 존재한다고 단언한다. 하나님이 온 우주를 창조하셨다. 그분은 창조적인 말씀을 사용하셔서 우주를 존재하게 하셨다(창 1장, 요 1:1-4, 히 11:3). 그것은 하나님의 생각의 계시이자 창조주의 생각의 표현이다. 케플러가 말한 바와 같이²⁾, 이 계시를 연구함에 있어 과학자는 자신이 알든 모르든 자신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을 먼저 고려하기 마련이다.

이와 유사하게, 성경은 하나님이 창조를 통해 자신을 드러내신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내셨다고 단언한다. 그리스도는 교회가 만들어낸 개념이나 종교적, 신학적 추측의 산물이 아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 자신을 드러내셨는데, 창조를 통한 것보다 훨씬 더 직접적이고 완전하게 우리 인류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성경은 그분을 ‘하나님의 말씀’이라 지칭한다.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힘과 위엄을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또한

2) 하나님과 과학적 연구에 관한 요하네스 케플러의 결론은 그의 저서, “세계의 조화(Harmonices Mundi)”를 참조하라. 1997년 미국 철학자 협회 E. J. 에이튼, A. M. 던켄, J. V. 필드가 공동 번역함

하나님의 말씀인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신의 속 마음을 우리에게 알리셨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과학자들이 창조 안에서 하나님께서 '자기계시'를 제공하신 증거를 연구하는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자기계시' (Self-revelation: 스스로 자신을 드러내 보여주심)를 통해 제공하신 증거를 연구하는 것이다.

사실, 과학자들은 너무 쉽게 풀리는 과학적 설명에 대해 조심하고 있다. 그들은 우주가 예측 불가능한 것들 및 일반 상식을 뒤엎을 때에만 설명이 가능한 현상들을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나타내고 있음을 경험을 통해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들은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 손쓸 수 없는 어려운 설명을 거부하지는 않는다. 실로, 과학자들은 일반 상식보다 이러한 것들을 더 신뢰할 준비가 되어있다. 그리고 이러한 신뢰는 그 근거에 대한 실험을 통해 이러한 설명들이 실제로 작용한다는 것이 밝혀질 때에야 비로소 궁극적으로 입증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이 '자기계시'를 인간에게 전달할 때도 동일한 원리가 적용된다. 우리가 알다시피 신약성경은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자 인간이라고 말한다. 이 주장은 많은 사람들에게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완전히 모순된 것처럼 보인다. 그리고 그들은 성경 자체도 그리스도가 어떻게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사람일 수 있는지에 대해 완벽한 설명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고서는 그것을 원시적인 신화로 일축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살펴본 대로 과학적인 반응이라 하기 어렵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계실 때 그를 만난 사람들은 애초부터 그분이 진실로 사람이셨음을 알았다. 그와 동시에 그들은 그분이 인간을 훨씬 초월하는 분이심을 입증하는 확실한 현상을 여러 차례 나타내셨음을 발견했다. 그리스도는 자신이 인간이면서 동시에 하나님 이신 것을 설명하셨다. 그리고 우리가 이러한 설명을 어떻게 믿을 수 있냐고 묻는다면, 신약성경은 우리가 해볼 수 있는 조사와 실험을 제시하여 이 설명이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명해 줄 것이다(요 7:16-17, 20:30-31). 실제로, 신약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에서 부활한 역사적인 실존 인물일 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살아 계신 분이라고 선포한다.

왜 신약성경을 읽어야 하는가?

하지만 이 부분에서 어떤 사람은 다음과 같이 반대할지도 모른다.

“저는 신약성경을 읽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신약성경에서 유익을 얻기 위해, 제가 그것을 읽기도 전에 거기 기록된 말씀이 사실이라는 것을 믿어야 되니까요. 그런데 저는 그것이 사실이라고 믿지 않으니까 그것을 읽는 것이 제겐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이러한 반대는 오해이다. 왜냐하면, 신약성경을 읽기 전에 그것이 사실임을 믿을 필요는 없기 때문이다. 다른 면에서, 만약 신약성경을 진지하게 읽어 본 적이 없다면, 정직하고 과학적으로 따져서 그

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도 미리 알 수는 없다. 예를 들어, 신문을 읽을 때 이러한 태도를 취하지는 않을 것이다. 신문을 많이 읽다 보면 우리는 신문이 사실이 아닌 내용을 기사로 다룰 때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이유로 신문 읽는 것을 거부하진 않는다. 우리는 참과 거짓을 구분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신문을 읽는다. 그리고 잠시 동안 그러지 못할 경우 판단을 유보한다. 신약성경도 동일한 방식으로 읽어 보자. 그리고 일단 한 번 읽어 보고 예수님이 진리를 말씀하셨는지 스스로 판단해 보자. 먼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들어보지 않고서는 그분께 대한 믿음이 생길 수 없을 것이다. 듣기조차 거부한다면 그러한 사람을 지적인 용기를 가진 사람이라 할 수 없을 것이다. 그것은 반계몽주의이다.

물론 이 문제는 신문 기사를 읽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문제이다. 실제로 앞서 살펴 본 것과 같이 구원의 첫째 조건은 신약성경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이다. 이것은 예수님을 개인의 주님 및 주인으로 영접하고 그렇게 세상에 고백할 준비를 하는 것이다. 하지만 여기엔 그 이상의 것이 포함된다. 구약성경에서 하나님은,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사 43:11)고 말씀하신다. ‘여호와’는 창조주 하나님과 동의어이다. 만약 예수님이 이 ‘여호와’가 아니라면, 또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으신 하나님이 아니라면, 그분은 누구도 구원하실 수 없다. 이러한 주장은 엄청난 것이며, 신약

성경이 이 믿음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를 우리에게 제공하지 않으면서 그것을 믿으라고 강요하지 않을 것이라 확신한다. 그렇다면,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여호와이심을 믿을 수 있는 증거는 무엇인가?

그리스도께서 직접 말씀하셨다는 증거

우선, 이것이 처음에는 순진하게 들리기는 하지만, 예수님을 하나님
의 아들이라 믿는 가장 주된 이유는 그분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
이다. 이는 곧 그분의 진실성에 대한 질문을 불러 일으킨다. 그리고 충
분히 그럴 만도 하다. 그분의 신성을 확실하게 뒷받침하는 모든 증거
들이 제시되었을 때에도 인간의 영혼이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와 마주
하게 된다면 그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궁극적으로 하게 된다. ‘그분은
진실한 분이신가?’, ‘그분은 진리를 말씀하시는가? 그분이 종종 반복
적으로 말씀하시는,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라는 말에 우리는
어떠한 가치를 부여할 수 있는가? 이 상황은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이
다. 궁극적인 질문은 ‘하나님이 계시는가? 가 아니라 ‘하나님은 진실
하신가?’, ‘그분은 믿을 수 있는가? 이다. 야고보는 다소 비꼬는 투로
“귀신들도 유일하신 한 하나님이 계심을 믿는다”(약 2:19)고 말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도 순종하지도 않는다. 이와 같이 하
나님의 존재를 믿는 많은 사람들도 하나님을 신뢰하지도 않고 또 이생
이나 다가올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의 진실성에 자신의 생애를 맡

길 준비가 되어 있지도 않다. 그들은 그럴 수 없다고 믿는다.

어떤 이는 “하지만 단순히 예수님이 자신을 하나님께 아들이라 말씀하셨다고 해서 우리가 그분을 믿을 거라고 기대하지는 마세요. 그것은 합리적이지 않아요”라고 말한다. 그리스도와 동시대에 살았던 사람들도 동일한 질문을 했다. 그들은 “당신은 당신을 위하여 증언한다”고 예수님께 말했고 이를 통해 “당신의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다”라는 결론을 도출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의 증언이 타당하지 않다는 것이다(요 8:13).

그리스도는 즉시 이 부당한 결론에 대해 반박하셨다. 그분은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요 8:14)고 말씀하셨다. 그분은 자신이 오신 곳과 이제 곧 돌아가실 곳인 천국을 지칭하고 계셨다. 그분의 말씀에 담긴 이러한 권위는 개인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한 것이었다. 아무도 천국을 경험해 보지 못했고 오직 그분만이 천국에 대해 말씀하실 수 있었음을 감안할 때, 그분의 증언이 반드시 타당하지 않다고 결론 짓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 정당성을 인정 받을 수 없다.

유추의 방법을 사용해서 설명해 보자. 3천년 전 지중해 유역에 살았던 사람들은, 정오에 태양을 향해 섰을 때 태양이 오전에 왼쪽에서 떠올라서 오후에는 오른쪽으로 지는 것이 불변의 사실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하루는 남아프리카 출신의 한 고독한 사람이 생전 처음으로 자

기 나라를 떠나 지중해 유역을 방문하기 위해 그곳에 이르렀다고 생각해 보자. 그는 자기가 태어난 나라에서는 정오에 태양을 향해 섰을 때 태양이 오전에 오른쪽에서 떠서 오후에 왼쪽으로 진다는 것이 불변의 진리라고 말할 것이다. 그러면 지중해 지역 사람들은 과연 그의 말을 믿는 것이 옳은가 하는 의문이 생긴다. 그의 말은 그들 모두가 경험한 것과 정반대였고 당대의 과학과 우주론을 역행하는 것이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한 사람은 당신 밖에 없었어요. 당신이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을 믿을 순 없어요. 당신의 증언은 타당하지 않아요. 당신이 말한 대로 태양이 그런 식으로 움직이는 그런 나라가 있다는 것은 믿을 수 없습니다.”라고 말했을지도 모른다.

그 때, 그는 이렇게 대답할 것이다. “이렇게 말한 사람이 저 혼자라고 해도 저의 증언은 타당합니다. 저는 제가 온 나라, 또 이제 곧 돌아갈 나라를 알고 있어요. 당신들은 그 나라를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의 말은 옳다. 그의 증언은 타당했고, 그들이 그것을 믿었다면 실제로 그것이 진리라는 것을 믿었을 것이다.

물론, 지중해 사람들이 남아프리카 출신의 낯선 사람을 믿는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 지구 끝까지 가서 환상적으로 경이로운 것들을 보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 소위 ‘허풍’에 해당하는 터무니 없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기 때문이다. 그 어떤 것도 사실이 아니다. 그것은 전부 상상일 뿐이다. 그렇다면, 그들은 어떻게 이 허풍의 말과 이 남아프리카인이 한 말을 구별할 수 있

을 것인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미신적이고 종교적인 신화와 그리스도의 말씀을 구별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스도는 자신이 한 말이 자체로 타당하게 들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의 주장을 입증하는 추가적인 증거가 있음을 지적하시면서 이러한 질문에 대답하셨다. 그 증거는 그분이 행하신 기적들이었다(요 5:36). 그분은 아무도 행하지 못했을 만큼 위대한 일을 행하셨다고 말씀하셨다(요 15:24). 이에 대해서는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 살펴볼 것이다.

제 10장

믿음 / Faith

증거에 대한 반응

우리는 앞선 장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은 그분이 행한 기적에 의해 확증된다는 결론으로 마무리했다. 신약성경은 그리스도께서 일으키신 기적 자체가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진리를 뒷받침하기 때문에 이를 ‘표적’이라고 부른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요 20:30-31)

그리스도의 기적에 대한 증거

어떤 사람은, “좋습니다. 그렇다면 복음서에 기록된 기적들이 실제로 일어났다는 것을 보여주는 어떤 증거가 있나요?” 라고 묻는다. 우리는 그곳에서 기적들이 일어나는 것을 직접 보지는 못했다. 그러면 이 기록들이 사실이라는 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 그리고 사실 여부를 떠나 이 기적들이 갖는 의미는 무엇인가? 성경에 기록된 엘리야와 같은 다른 사람들도 기적을 행하지 않았는가?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 중 어느 누구도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명하지 못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기적은 어떻게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는가?

예수님이 실제로 행하신 기적에 대한 역사적인 증거는 사도들의 증언에 의존한다. 우리는 기적을 믿지 않을 만한 설득력 있는 ‘선형적’ 이유를 갖고 있지 않다. 이는 기적이 불가능하다는 생각 자체가 과학에 의해 증명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것은 어떤(모두는 아님) 세계관에 대한 증명되지 않았고 또 증명할 수도 없는 원리(자명한 이치)이다.

이제 의문이 되는 것은 과학적인 관점이 아니라 역사적인 관점이다. 즉, 우리가 사도들의 증언을 신뢰할 수 있느냐이다.

첫째로, 우리는 사도들이 알지도 못하면서 고의로 거짓말을 했다고 속단할 수도 있다. 사도 요한은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는다” (요일 2:21)는 것을 공리로 전제했다. 그는, 거짓은 그것이 더 큰 진리

를 전파한다는 이유라 할지라도 결단코 허용될 수 없고, 또 거짓은 자신을 '진리'라고 선포하셨고 모든 거짓 증언을 금하셨던(마 5:33-37) 분과 전적으로 배치된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요한이 자신과 그의 동료 사도들이 예수님이 그들의 목전에서 기적을 행하시는 것을 직접 보았다고 말할 때, 그가 실제 역사적인 사건을 기록하고 있다고 스스로 믿고 있음이 분명하다.

둘째로, 우리는 요한이 기적을 기록할 때 그는 자신이 전해 들은 말을 단순히 반복하고 있다고 한 말에 주목해 보아야 한다. 그와 그의 동료 사도들은 그것을 직접 경험한 증인들이다. 그들이 기록한 기적들은 “제자들의 눈 앞에서” 행해졌었다.

셋째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가 행한 기적의 본질에 주목하는 것이다. 이 기적들은 단지 역사적인 사건만은 아니다. 이것들은 역사를 뛰어 넘는 ‘직접성(immediacy)’을 가지고 오늘날까지도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또 다른 종류의 증거를 제공한다. 신약성경에 사용된 그리스어가 이것을 우리에게 일깨워준다. 즉, 그리스도의 기적은 ‘특별한 능력의 역사’(그리스어: *dunamis*)와 사람들의 관심을 사로잡는 ‘기이한 일’(그리스어: *teras*)일뿐 아니라, 물리적인 기적 자체보다 훨씬 더 중요한 어떤 것을 가리키는 ‘표적’(그리스어: *semeion*)이라는 점이다.

오병이어의 기적(요 6장)을 예로 들어보자. 그것은 일차적인 의미에서 사람들의 육체적인 굶주림을 궁핍히 여기셔서 그리스도가 행하신

일이었다. 하지만 그것이 다가 아니다. 게다가 육체적인 굶주림을 해결하는 것, 그것이 이 기적을 행하신 주된 목적도 아니었다. 사람들은 다음 날 자연적으로 다시 배가 고프기 마련이었다. 그러나 성경은 그들이 예수님께 이 물리적인 기적을 반복해 달라고 아우성칠 때, 그분이 이 요구를 거절하셨다고 기록하고 있다. 왜 그러셨을까? 예수님이 이러한 기이한 능력을 가지셨다면, 왜 이것을 매일 매일 사용하셔서 모든 육체적인 배고픔이 세상에서 사라지도록 하지 않으셨을까? 또 오늘날에도 여전히 그렇게 하시지 않는가? 왜냐하면, 그들이 더 큰 목적, 즉 이 표적의 진정한 의미를 볼 수 없었거나 일부러 무시하려 했기 때문 이라(요 6:26)고 예수님은 말씀하셨다. 이 기적의 목적은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신 창조주라는 사실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영적 배고픔을 만족시킬 ‘생명의 떡’으로 자신을 주시기 위해 하늘에서 내려오셨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일깨워주려는 것이었다. 인간의 육신의 배는 물질적인 것들로 충족될 수 있다. 하지만 인간의 영혼은 영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물질적인 것들이나 단순히 심미적 혹은 지적인 즐거움으로 완전히 충족될 수 없다. 우리 영혼은 한 인격과의 교제를 필요로 하고 이 ‘인격’은 다름 아닌, 그들의 ‘창조주’이다. 그분 없이 인간의 영혼은 계속적인 배고픔을 겪기 마련인데, 이것은 수만 가지의 물리적인 기적으로도 결코 해소될 수 없다.

이 단계에서 우리는 이 기적 이야기의 진리를 스스로 시험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시험해보는 일은 인간의 필요에 대한 진단을 제공한다.

결과는 우리가 무엇에게 (더 정확히는 누구에게) 굶주려 있는지 의식적으로 알든 모르든 영적인 배고픔 가운데 있다고 말해줄 것이다. 사실이지 않은가?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알고 있다. 우리 각자는 이 진단이 사실인지를 스스로 판단해 볼 수 있다.

다수의 사람들은 자기의 영적 배고픔을 억누르라는 가르침과 훈련을 받아 왔다. 이에 성공한 어떤 이들은 아무런 영적 배고픔을 느끼지 못한다고 정직히 말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것은 위험을 경고하는 증상일 수 있다. 우리는 사람들이 양식이 없어서 육체적으로 굶게 됐을 때, 우선 매우 고통스럽다는 얘길 들었다. 그러나 잠시 후에 그 통증은 사라지고 죽음이 임박하고 피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를 때까지 통증을 느끼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영적 기아와 그 최종 단계인 둘째 사망도 그럴 수 있다.

하지만 자신의 영적 기아를 인식하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는 자신을 '산 떡'으로 주신다. 이 지상에서 시작되어 무덤을 지나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확장되는 영원한 하나님과의 교제를 의미하는 이 영적인 차원의 삶을 그들은 갈망하고 있는가? 그리스도는 자신이 그것을 주실 수 있는 분임을 보장하셨다(요 6:28-58). 또 그들은 죄책감과 죄의 사슬에 의해 드리워진 어둠의 그림자로부터 자신의 영혼을 해방시키길 바라고 있는가? 이것 역시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죽음을 통해 그들에게 주실 수 있다(요 8:31-36).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분이 진실하시며, 그분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인간의 몸을 입으신 우리의 창조주이심을 알 수 있는가? 알기 쉽게, 한 덩어리의 빵은 우리의 육체적인 배고픔을 실제로 만족시킬 수 있다. 빵에게 와서 그것이 이상 없음을 믿고 그것을 취해서 먹기만 하면 된다. 이와 같이, 영적인 굶주림 가운데 있다고 진단하시는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을 인정하는 사람들에게 그분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주리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요 6:35) 와서 믿는 자들은 그분이 진실하심을 알게 될 것이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기적으로 남겨진 것과 사뭇 다른 또 다른 종류의 증거를 살펴보자.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남겨진 증거

신약성경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자아내기 위해 의도하신 것은 그리스도의 기적만이 아니며, 그것이 주된 방법인 것도 아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하는 게 더 정확할 것이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 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전 1:22-23, 2:2, 5, 1:18)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어떻게 우리가 그분이 육신을 입으신 우리의 창조주이심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도록 인도하는가? 십자가가 우리의 믿음을 유발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아들의 십자가가 하나님이 참으로 어떠한 분이신지를 드러내기 때문이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고 신뢰한다면, 우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분명하게 알 필요가 있다. 철학이 이를 우리에게 알려주지 못한다. 철학이 하나님에 관한 내용을 기술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분의 마음에 있는 것을 말해 줄 수는 없다. (그것은 심지어 옆집에 사는 사람이 어떠한 마음을 품고 있는지도 알려줄 수 없다.) 하나님의 창조도 우리에게 그것을 말해 줄 수 없다. 창조는 단지 그분의 능력을 보여줄 수 있지만 그분의 마음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주지는 못한다.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마음의 태도가 어떠한지를 알고자 한다면, 하나님 편에서 먼저 행동을 취하셔서 자신을 드러내시고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보여주셔야만 한다. 그렇기 때문에 ‘성육신’(Incarnation), 즉 하나님의 말씀인 그리스도께서 육신이 되신 것이다.

하지만 여기에서 말하자면 하나님께 문제가 발생된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당대의 사람들에게 제기했던 문제였다.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대중의 신뢰와 지지를 얻기 위해서 최대한의 대중성을 추구하고 일련의 모든 극적인 기적들을 무대에 올려야 한다고 다소 냉소적으로 주장했다. 그러나 그들은 근본적인 어려움을 고려하지 않았다. 그분은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요 7:7)로 말씀하셨다. 그분의 증언은 자기의 의를 내세우는 자만이나 편협한 종교적인 인간 혐오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었다. 그분은 완벽한 하나님의 표현이자 하나님이 스스로 인간의 언어로 소통하신 분이시다. 그러므로 그분은 유례가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셔야 했다. 거룩을 드러내면 드러낼수록 인간의 죄성도 더욱 드러났고, 더 많은 사람들이 분개했으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주장을 더욱 더 거부했다.

이 점은 충분히 이해할 만하다. 친구가 나에게 내가 한 일이 비열하고 상스러운 행동이라고 말한다면 나는 당장 그것에 분개할 것이다. 하지만 잠시 후 그것은 그저 그 친구의 개인적인 의견일 뿐이라 여기고 결국 그가 나의 친구임을 되 뇌이며 스스로를 위로할 수도 있다. 이에 나는 그 말을 무시하고 그와의 우정을 이어가기로 한다. 하지만 어떤 사람이 나에게 “당신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죄인이야”라고 하며, “이렇게 말하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니라”고 한다면, 나의 자연스런 반응은 아마도 우선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는

말을 비웃을 것이고, 그가 계속 주장한다면 혼신의 힘을 다해 저항할 것이다. 왜냐하면, 만약 그의 말이 옳다면 나는 죄인이 되기 때문이다.

고대 라틴어 시인이었던 루크레티우스는 자신의 장대한 작품에서 초기 그리스의 원자론과 자신의 동료 로마인들의 유익을 위해 당대의 진화론을 자세히 설명했는데, 그의 작품, ‘사물의 본질에 관해서 제 1권’ (De Rerum Natura, Book I)의 서두에서 자신이 어떻게 이러한 이론들에 그토록 강력하게 매료될 당했는지, 그 이유를 고백한다. 그는 초반부에서 이 이론들이 죽음의 모든 것을 끝낸다는 사실을 증명하려는 것으로 보았다. 다시 말해, 사후 세계는 없으며, 이 생각이 장차 죄의 형벌에 대한 모든 걱정과 두려움을 덜어준다는 것이다. 따라서 그는 전도자로서 모든 열성을 다해 이러한 이론들을 강론했다.

이것은 오늘날 많은 사람들에게도 여전히 동일하다. 그들은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주장을 받아들여지게 될 때, 그 즉시 거룩한 하나님, 최후의 심판, 그리고 죄의 형벌 등에 대한 두려움도 함께 오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이러한 주장을 거부하고 설득을 당하지 않기로 결심한다. 그렇게 될 때, 그리스도가 초자연적인 능력을 순수하고도 단순하게 표현했던 모든 일련의 기적들을 행하신 사실은 사람들의 두려움을 증가시키고 그들의 거부감을 강화시키며 그리스도의 능력을 설명하는 다른 방식을 찾도록 유도하는 경향을 띠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인간의 마음을 돌이키는 데 그리스도의 기적에만 의존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맡기신 것이다. 그리스도도

자신이 반대파들의 죄악을 드러냈을 때 분노한 그들의 적개심을 달래 주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 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요 8:28)

물론 하나님은 아들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의 죄를 드러내신다. 그리고 그것을 드러내실 뿐 아니라 모든 세상 사람들의 눈 앞에 그것을 보여주신다. 인간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있고 거역하고 있기에 만약 하나님의 ‘성육신’ (incarnation: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심)을 통해 그들의 창조주를 십자가에 못박을 기회가 주어진다면 인간은 기꺼이 그렇게 했을 것이고, 실제로 역사상 그분을 십자가에 못박았다. 물론, 하나님도 아들의 십자가를 통해 자신의 양보할 수 없는 거룩을 나타내셨다. 죄는 그분의 타협할 수 없는 노여움만 살 뿐이다. 죄는 반드시 처벌 받아야 한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아들의 죽음을 통해 피조물을 향한 자신의 모든 마음을 쏟아내신다. 그들이 사탄에게 죄임을 받고 죄가 그들을 하나님의 원수로 만들긴 했지만, 그분은 여전히 그들에게 신실하시다. 하나님은 창조주만이 피조물에게 줄 수 있었던 그러한 사랑으로 그들을 사랑하신다. 그분은 그들 중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가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벰후 3:9). 그들이 죄에 대한 형벌을 받아 멸망하는 것보다, 자신의 거룩한 아들이 친히 고난을 받으므로 이 형벌을 대신 받아 죄값을 치르도록 하여 완전하고 영원한

구원을 정정당당하고 후하게 부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

십자가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는 것, 즉 하나님이 실제 누구시며 우리를 향한 그분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발견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사실을 선포한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세상에 보여주시기 위해, 아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해 자신을 대속물로 내어주셔서 우리를 사랑하시려는 하나님의 소원이 성취될 수 있게 하셨다(딤후 2:3-6). 그분의 완벽한 사랑은 우리의 모든 두려움을 쫓아버리길 원하신다(요일 4:18). 따라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지금까지 있어 왔거나 앞으로도 영원히 있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완전한 표현이다. 하늘의 그 어떤 즐거움도 갈보리에서 아들을 주신 것보다 더 온전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이것은 하나님의 마지막 메시지이다. 그분에게 있어 우리의 믿음과 사랑을 얻기 위해 이보다 더 강력하고 더 영광스런 수단은 없다. 문제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볼 때 그것을 알아볼 수 있느냐이다. 양들은 연약한 동물이긴 하지만 참된 목자를 만날 때만 그의 사랑과 돌봄을 본능적으로 알게 된다. 그리스도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요 10:11)라고 말씀하셨다. 사도 요한은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요일 3:16)라고 말했다. 또 그리스도는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

니라.”(요 10:14-17)고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이제 중요한 것은 “이 예수님이 (그분의 말씀대로) 정말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셨는가, 이 예수님이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신가?” 라는 질문이다. 이것은 유일무이한 질문이다. 다른 어떤 종교 지도자나 세계 종교의 창시자도 당신 앞에 서서, “나는 너의 창조주이다. 그리고 내가 창조주이기에 나는 너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너를 있는 그대로 사랑한다. 그리고 그 증거가 바로 이것이다. 나는 친히 너를 위해 죽었다.” 라고 당신의 마음에 직접적으로 호소할 수는 없다.

그리스도의 선포는 아주 거대한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보여줄 증거는 많이 있다.

그리스도의 부활로 제공된 증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기독교의 중심 사상이라는 것은 일반적인 상식이다.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은 초기 기독교인들이 믿기 위해 안간 힘을 써야 할 어려운 신학적인 교리가 아니었다. 이것은 초대교회 제자들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에서 활기찬 복음 전도자들로 변화시킨 위대한 능력을 촉발시킨 두 가지 강력한 사건이었다. 그들의 믿음에 부담을 주는 것과는 전혀 다르게 그리스도의 부활은 오히려 믿음을 천배나 증가시켰다. 그것은 그들이 전에 알 수 없었던 살아 계신 하나님의 실존을 경험하게 했다. 그들이 말한 것을 들어보자.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벧전 1:21)

그들의 소망도 크게 성장했다. 하나님이 없다면 죽음은 모든 희망의 끝이요 몸의 최종적인 수치이며 발전을 위한 모든 노력을 좌절시키는 최종적인 모순이자 절망이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부활은 이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다. 사도 베드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하나님은… 그 많으신 긍휼대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니 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벧전 1:34, KJV 직역)

그리스도인들은, 사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모든 구속 받은 사람들이 영원한 영광으로 들어가는 문이 열린 것을 즉시 보았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들의 부활에 대한 원형이자 약속이었다(고전 15:20-23).

또한 그리스도의 부활은 놀라운 현상을 발생시켰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비록 그리스도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으나 실제로 그분을 사랑했다. 그들이 말한 것을 들어보자.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벧전 1:8)

누군가가 “나는 차이코프스키를 사랑해요” 라고 말한다면, 당신은 “나는 차이코프스키를 개인적으로 사랑해요” 라고 할 게 아니라 “나는 그의 음악을 사랑해요” 라고 말해야 한다고 그에게 말할 것이다. 누구도 전자와 같이 말할 수 없다. 말이 안 되는 얘기다. 차이코프스키는 죽었다. 그리고 당신은 죽은 사람을 사랑할 수 없다. 일반적으로 과부들은 “나는 남편을 사랑했어요” 라고 하지 “나는 남편을 사랑해요” 라고 말하진 않는다.

그러나 이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에 대해 말하는 방식이다. 그들에게 예수님은 단지 역사적인 인물이나 과거의 한 성인이 아니다. 그분은 살아 계신 인격체이다. 그들이 예수님을 보지는 못했지만 그분을 사랑하고 (기도로) 그분께 얘기하고 (성경을 통해) 그들에게 개인적으로 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분께 노래하며,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의 능력으로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산다. 이러한 것이 부활의 실재성이 만들어내는 믿음의 모습이다.

어떤 이는 “하지만 그것이 반드시 현실이진 않아요. 이 모든 경험은 그리스도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우선적으로 가정한 사람들에게만 일어납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살아 있다고 스스로를 설득시키고 이상화된 그분의 정신적인 형상을 만들어내며, 그 형상과 사랑에 빠집

니다. 이걸 분명 순전히 주관적인 환상일 뿐입니다. 예수님이 실제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했다는 객관적이고 역사적인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말한다.

이에 대한 대답은 이렇다. 많다! 그것도 아주 강력하고 서로 다른 수 많은 사람들로부터 다양한 종류의 증거들이 축적되어 있다. 여기에는 그에 대한 몇 가지 예만 제시해보고자 한다.

1. 빈 무덤의 증거 : 신약성경의 기록에서 볼 때, 그리스도가 묻히신 후 주일에 그의 무덤에 처음으로 방문한 사람들이 그분의 시체를 무덤에서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 것이 매우 분명하다. 그들은 그 시체에 방부처리를 하기 위해 향신료를 가져왔고, 이를 통해 가능한 한 이 시체를 보존하려고 했다. 그들이 사도들에게 빈 무덤을 발견했다고 보고했을 때, 사도들도 놀랐고 요한과 베드로는 즉시 실제로 무슨 일이 발생했는지 알아보기 위해 그 무덤으로 달려갔다(요 20:1-10). 그들은 자신들이 발견한 것을 우리에게 말해준다. 무덤은 확실하게 비어 있었다. 시체는 없어졌지만 유대인의 장례 절차에 따라 시체를 씻던 수의는 시체가 안에 있을 때의 위치에 그대로 놓여 있었는데, 이 수의는 납작하게 개어 있었다. 머리를 감았던 세마포는 시체의 머리를 받치는 쿠션으로 설계된 무덤의 납작한 돌 위에 다른 세마포와 약간 떨어진 위치에 놓여 있었다.

이 두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심을 제일 먼저

믿게 한 것이 바로 이 증거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 준다. 예수의 시체는 세마포를 건드리지 않은 채 그것을 통과했다. 다른 어떤 설명이 있을 수 있을까? 그들은 다른 제자들 중 아무도 시체를 가져가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다. 그들이나 다른 누구도 그럴 수 없었는데, 이는 로마 정부가 시체의 도난과 부활의 조작을 방지할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무덤 주변에 병력을 배치했기 때문이다.

시체가 그곳에 더 이상 남아 있지 않다는 사실을 발견하고는 자기들이 잠든 사이에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훔쳐갔다는 소문을 퍼뜨린 이들은 이 군병들이었다(마 27:62-66, 28:11-15). 하지만 그에 대한 설명은 표면적으로 볼 때 믿을 수 없다. 그들이 자고 있었다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어떻게 알 수 있었던 말인가? 그러나 좀 더 깊이 살펴보면, 어떤 제자들이 보초병 사이를 뚫고 무덤을 막았던 그 무거운 돌문을 옮겨 시체를 훔치고 그것을 숨긴 후 예수님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했다는 거짓말을 의도적으로 꾸며냈다는 말을 믿는다는 것은 더더욱 어려운 일이다. 이는 다음의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믿기 어렵다.

2. 압박을 당하는 사도들의 행동 : 찰스 콜슨은 미국 닉슨 대통령의 후기 보좌관 중 하나였는데, 소위 '워터게이트 사건' (Watergate Affair) 이라고 불리는, 대통령이 야당의 사무실을 습격한 범행을 감추기 위해 거짓 이야기를 꾸며냈다. 얼마 동안 이 거친 사람들은 거짓을 고수했다. 그러나 압박이 커지고 가혹한 처벌의 위협을 받을 때, 한 사람씩 그

동료들을 배신하고 진실을 자백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자신들이 지어낸 거짓을 위해 고통을 감수할 수 없음을 알았다.

콜슨은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 이러한 결론을 내린다. 사도들은 정치 외교적으로 복잡한 이해 관계에 놓인 사람들이 아니었다. 부활에 대한 그들의 말이 스스로 지어낸 거짓이라면, 실제로 그랬던 것처럼 엄청난 압박이 밀려왔을 때, 그들은 서로 간의 결속을 유지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들 중 한 사람이나 다른 몇몇은 위협과 압박에 못 이겨 무너졌을 것이고, 그 모든 말이 조작된 것임을 자백했을 것이다. 그러나 부활의 이야기를 순수하게 믿는다는 이유로 많은 사람들이 박해를 받는 것을 보았을 때나, 그로 인한 순교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 속에서도 그들 중 아무도 그러지 않았다.

비록 압박 속에서도 내부 결속을 철저히 유지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인정한다 해도, 그들의 이야기가 다소 사람 사울(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을 어떻게 설득시킬 수 있었을까?

3. *다소 사람 사울의 증언*: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증거는 모두가 그리스도인들의 증언이라는 이유로 신빙성을 크게 잃는다고 사람들은 자주 이야기한다. 그들의 주장에 따르면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 중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한 사람은 없다는 것이다. 물론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확신하게 된 모든 비그리스도인들은 자연스럽게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하지만 이해해야 할 점은 그들이 그리스

도의 부활을 확신하기 전에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었다는 것이고, 그들에게 확신을 준 것도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것이다.

그 유명한 사례가 다소 사람 사울이다. 그는 회심하기 전 예수님과 그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믿기를 거부했을 뿐 아니라 그렇게 믿는 사람들을 강경하게 박해했다. 다소 사람 사울의 최종적인 회심은 의문의 여지없이 역사적인 사건이다. 세계는 여전히 그가 끼친 영향에 대한 흔적들을 간직하고 있다. 그렇다면 무엇이 그를 회심하게 했을까? 죽어서 땅에 묻힌 줄로만 알았는데 부활하시고 살아 계신 그리스도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그를 만나셨다(행 9장).

어떤 사람은 사울이 매우 특별한 경우라고 반박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사울만이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만나는 경험을 통해 그분의 부활을 확신한 것은 아니다.

4. 초대 그리스도인 여인들의 행동: 3일째 되던 날 그리스도의 무덤을 가장 먼저 방문한 사람들은 그분의 시체에 향유를 부으러 온 어떤 그리스도인 여인들이었다. 이 일이 그들에게 맡겨졌다면, 다른 많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그랬던 것처럼, 또 실제로 후에 기독교에서도 미신적인 세대가 행했던 것처럼, 의심의 여지없이 그들은 이 무덤을 성지와 순례의 장소로 바꾸었을 것이다. 하지만 이 여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들과 모든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사실상 이 무덤을 버렸다. 왜일까? 그것은 그들이 무덤이 비어있음을 알았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신 주 예수님을 직접 만났기 때문이었다. 살아 있는 사람의 묘지를 사원으로 만드는 사람은 없다(마 28:1-10, 요 20:11-18).

5. 목격자들의 증언 : 고린도전서는 바울의 초기 서신서들 중 하나이다. 15장에서(3-8절), 그는 복음을 요약한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3일 만에 살아나셨다는 선언문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 그분을 실제로 본 목격자들의 명단도 함께 기록하고 있다. 이 명단이 모든 목격자들을 다 포함하고 있진 않지만, 각양각색의 개성을 가진 다양한 사람들이 목격자였음을 보여준다. 그들이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본 환경도 이와 같이 다양했다. 어떤 사람들은 홀로 있었고, 어떤 이들은 무리를 지어 있었으며, 다른 이들은 500명이 넘는 무리 중에 있었다. 우리는 또 다른 곳에서 그리스도가 저녁에 문이 잠긴 집 안에 있는 어떤 사람들에게 나타나셨고(요 20:19-23), 다른 이들에게는 밝은 대낮 산 위에서 나타나셨으며(마 28:16-20),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른 아침 호숫가의 고깃배 옆에서 나타나셨고(요21장), 또 다른 사람들에게는 여행 중에 동행하는 가운데(눅24장) 나타나신 사실을 알게 된다. 이 모든 다양한 사람들이 환각이나 집단최면의 희생자라고 치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인용할 수 있는 이러한 역사적인 증거들은 훨씬 더 많다. 하지만 또 다른 반론을 생각해 보자.

“신약성경에 따르면, 사도들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실제로 보고 만져야 비로소 그분의 부활을 믿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경

우 그분을 보고 만져볼 수 없다면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이러한 반론은 충분히 이해할만 하지만, 겉으로 보이는 것처럼 합리적인 사고라고 할 수는 없다. 이런 비유를 사용해 보자. 아주 원시적인 나라에서 태어나 평생 전등을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 보자. 그가 당신의 집을 방문했을 때, 당신은 그에게 다음과 같이 말한다.

“벽에 있는 스위치를 누르시면 방에 전등이 켜질 거예요.”

“네? 어떻게 그게 가능하죠?”

“전등불은 멀리 떨어진 ‘발전소’ 라고 하는 건물에서 보내는 전기에 의해 발생합니다.”

“이 전기를 보신 적이 있나요?”

“아니요.”

“그러면 발전소를 본 적은 있나요?”

“아니요, 한 번도 가본 적은 없어요.”

“그렇다면, 이 ‘발전소’ 나 ‘전기’ 나 하는 것들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는 거죠?”

이에 당신은 인내심을 가지고 자세히 설명한다.

“우리가 처음 이 집으로 이사 왔을 때, 발전소에서 보낸 한 사람이 우리를 방문했어요. 당시 우리 집은 전력공급이 끊어진 상태였고, 그는 발전소로 돌아가서 전기를 연결해 주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 후 전기가 다시 흘러 스위치만 누르면 전등이 켜질 수 있을 거라 했어요.

우리는 그의 말에 따라 스위치를 눌렀고 전등이 켜진 거죠. 그러니 이제 당신의 방에 들어가서 스위치를 눌러 보세요. 그러면 그 방의 전등도 켜질 겁니다.”

만약 그가 다음과 같이 말한다고 생각해 보자.

“아니요, 저는 그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요. 어쩌면 저는 제 자신을 속여서 전등에 불이 켜지는 걸 봤다고 믿을 수 있을 것도 같아요. 차라리 발전소에서 온 그 사람을 직접 보고 당신이 스위치를 누르기 전에 했던 대로 제가 직접 해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당신은 그가 이상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는가?

사도들은,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 그리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에 그들을 떠날 계획을 알려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 준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기 위해 자기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셨다(요 16:7-14, 28). 그들은 몇 일간 예루살렘에서 기다린 후 성령을 받도록 되어 있었다. 그리고 난 후 주님은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라가셨다(행 1:4-9). 그들은 그분의 말씀을 따라 기다렸고, 그 후 성령을 받았으며, 성령과 함께 하나님과 매일 교제하며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빛, 평안, 능력도 부여 받았다.

그 때 그들은 그 주위 사람들에게 죄를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들도 성령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행 2:38). 그들은 성령을 보지 못했고 볼 수도 없었으나 그분의 빛과 능력을 경험했다. 사도들은 오늘날 우리에게 동일한 메시지를 전한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그들이 3

년 동안 함께 살았던 예수님과 동일한 분이라는 사실을 세상에 확신시켜주기 위해 그들은 부활하신 분을 직접 보아야 했다(행 1:21-22). 그러나 우리는 “밭전소에서 온 사람”을 직접 볼 필요는 없다. 우리는 그러지 않고도 그가 실존하는 인물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회개와 믿음이 라는 스위치를 누른다면, 성령의 빛과 능력이 우리의 마음 속에 찾아올 것이다.

우리를 단순한 주관론의 위험으로부터 지켜줄 또 다른 안전장치가 있다. 예수님의 부활은 단순한 한 인간의 부활이 아니었다. 구약성경은 구원자가 세상에 오실 때 사람들이 그분께 기대한 바가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하나님의 지침서였다. 구약성경에 따르면, 그분은 우선 세상의 죄를 위해 하나님이 예비하신 희생제물로서 죽으신다. 그 후 하나님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으로 이 희생제물을 입증하신다(사 53:4-6, 10-12). 예수님은 자신이 그 구원자이심을 선포하셨다. 이것이 기독교 복음이 단순히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만을 말하지 않는 이유이다. 복음은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고전 15:3-4)라는 선언이다. 구약성경의 예언이 복음의 진실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이 성경 구절들을 읽어보라. 그리하면 이 복음이 참되다는 것을 스스로 깨닫게 될 것이다.

제 11장

믿음 / Faith

믿는 대상이 누구냐는 문제

지금까지 믿음의 개념에 관한 장들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도록 우리를 안내하는 근거들을 살펴보았다. 성경은 이 사실을 믿는 데에는 상당한 고난을 받는다는 의미도 포함될 수 있음을 우리에게 직언한다. 그렇다면 믿음은 그 믿는 바가 정확하게 무엇이냐의 문제로 아주 분명하게 귀결될 필요가 있다. 예수님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주의 주인이자 모든 만물의 창조주와 소유주이시라면, 그분으로 인해 받게 되는 손실이나 고난은 그분 안에서 우리가 소유한 것과 비교할 때 아무 것도 아니다. 다른 한편으로, 만약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면, 우리가 그분으로 인한 고난이나 손실을 자처하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일이 될 것이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들은 “우리는 그리스도도 믿고 다른 모든 종교

도 믿습니다”라고 말한다. 그러나 이러한 범신론적인 생각은 위험하게도 비논리적이다. 신약성경에 따르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다”(딤후 2:5-6)는 사실을 믿는 것을 의미한다. 그것은 “다른 이로써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행 4:12)는 사실을 믿는 것이다. 이는 죄를 위한 그분의 희생이 우리 모두에게 충분하다고 믿는 것을 의미한다. 다른 누구도 할 수 없고 다른 어떤 것도 필요하지 않다(히 10:11).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또 다른 어떤 구원자도 함께 믿는다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지성도 아니며) 불신일 뿐이다.

그러나 참된 기독교의 믿음은 어떤 사실을 믿는 것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한 인격체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뢰하며 그분께 자신을 전적으로 맡기는 것을 의미한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세상의 구주라는 사실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불행하게도 자신을 개인적으로 구원하시도록 그분께 자신을 전적으로 맡기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이상하게도 이것은 특별히 종교적인 사람들이 (물론 종교적인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지만) 빠지기 쉬운 유혹이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을 개인적으로 그리스도께 위탁(의지)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 그들은 하나님의 법을 지키려는 정직한 노력에 대한 경력(공적)과 교회의 성찬식에 정기적으로 참여한 것이 자신들을

끝까지 도와줄 것이라고 확신한다. 그들은, 율법의 행위에 속한 모든 사람들은 저주 아래 있다는 하나님의 엄위하신 말씀을 의식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인다(갈 3:10-12).

어떤 사람들은 구원을 위해 오직 그리스도께만 자신을 의탁하는 것을 두려워한다. 그들은 그리스도가 그분 편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역할을 하셨지만 우리 인간 편에서도 자신을 스스로 구원하기 위해 상당히 많은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들은 이것이 무척이나 힘든 일이고, 결국 자신을 구원하기에 충분할는지 온전히 확신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들은 우리를 자유케 하는 신약성경의 말씀에 다시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롬 3:28, 4:5)

구조대원이 물에 빠져 위험에 처한 사람을 구출하기 위해 물에 뛰어 들었을 때, 그 사람에게 도달하는 순간 즉시로 그를 구하려 하진 않을 것이다. 그 이유는, 공포에 질린 그 사람은 스스로를 구하기 위해 계속해서 몸부림치기 십상이고, 구조대원을 꼭 붙들고선 구조가 이루어지지 못하게 방해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구조대원은 일정한 거리를

두고 접근해서 그 사람이 지쳐서 스스로를 구원하는 것을 포기할 때까지 기다릴 것이다. 그리고 나서 그는 사고 지점까지 가까이 접근해서 모든 구조작업을 시행할 것이다. 그리스도도 많은 경우에 이와 같이 하셔야만 한다. 그분은 사람들이 자신을 구원하기 위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 것도 없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까지 기다리신다. 그리고 나서 그분은, 모든 구원의 일을 행하시는 구세주로서 자신을 그들에게 나타내신다.

다른 사람들은 또 다른 문제를 가지고 있다. 구원이 믿음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깨닫고 그들은 열심히 믿으려고 한다. 그러나 믿기 위한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의 믿음이 충분히 강하지 못하기에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없다고 생각한다. 그들의 실수는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믿음을 공로로 생각하는 것인데, 이 공로가 충분히 높을 경우에만 구원을 얻을 자격이 부여된다는 생각이다. 구원은 진정한 선물이다. 그러나 믿음이 있다고 해서 구원 받을 합당한 자격이 있다는 말은 아니다. 믿음은, 받을 자격이 없고 수고한 것 없이 거저 주어지는 선물을 단순히 받아들이는, '빈털터리가 된 거지가 내미를 떨리는 손' 이라 할 수 있다(엡 2:8-9).

어린 아이는 어머니가 자기를 안전하게 지켜줄 것으로 믿고 어머니의 품에서 행복하게 잠이 든다. 어머니에 대한 아이의 믿음이 어머니의 돌보심을 받을 합당한 자격을 주거나 또는 자격이 있다는 것을 보장해주지도 않는다. 아이는 거저 베푸는 어머니의 사랑을 누리기 위해

열심히 일할 필요가 없다.

다른 측면에서, 믿음은 단순한 자기 확신이 아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들은,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도 결국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을 베푸실 것이라는 큰 믿음이 있습니다.” 라고 말한다. 그러나 이러한 믿음 또는 확신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말하는 사람의 개인적인 견해에 근거한 것이기에, 신약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아니다. 이러한 확신은 사실 위험하게도 잘못된 것이다.

어머니가 아이를 위해서 약을 구입한다고 가정해 보자. 약병에 붙은 라벨에는 이 약을 신체의 외부에만 발라야 하고, 몸 속으로 들어가면 유해하다고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어머니는 이 라벨을 읽으려 하지 않고 큰 수저에 약을 담아 아이에게 마시게 한다. 그녀는 이 약이 아이에게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그러나 실제 그러할까? 물론 그렇지 않다. 이 아이는 죽을 수도 있다. 그러므로 확신이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근거할 때에만 유효하다.

그리고 또 다른 중요한 차이점이 있다. 믿음은 감정이 아니다. (모두는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이 처음 그리스도를 믿고 완전한 죄 사함과 구원의 확신을 받아들였을 때, 큰 안도감과 흥분을 느낀다. 이것은 좋은 것이다. 하지만 잠시 후에 이러한 감정은 자연스럽게 가라앉기 마련이다. 이 때, 그들의 믿음이 그리스도가 아닌 그들의 감정에 의존하고 있었다면, 그들은 아마도 자신이 구원을 잃어버렸거나 아니면 전혀

구원 받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과 감정을 혼동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사실 우리에게 때때로 슬픔과 고통의 감정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예를 들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잘못된 행동과 그것이 초래한 피해를 우리에게 지적하거나, 하나님이 우리가 돈을 벌기 위해 사용해왔던 비윤리적 관행을 포기하라고 요구하시거나, 또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학대나 박해를 견뎌내야 할 때 그러하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궁극적인 지침으로 삼아야 한다.

한 여인이 어떤 아파트 건물 5층에 산다고 가정해 보자. 그녀가 사는 아파트에 불이 났다. 당시 한 소방관이 긴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집 창문 밖에 나타난다. 그는 건물 안으로 들어와서 그녀에게 자신이 사다리를 통해 그녀를 밖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허락해줘야 한다고 말한다. 그녀는 옮겨갈 것을 동의하고 자신을 그에게 맡긴다. 그러나 그녀는 아래를 내려다 보고 멀리 있는 지면을 바라보고서는 공포감에 휩싸이게 된다. 그녀의 감정은 그녀의 안전에 어떠한 영향도 주지 못한다. 소방관은 철제 손잡이로 그녀를 붙들고 안전하게 지면으로 안내한다. 그러므로 일단 우리가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게 되었을 때, 우리의 구원을 보장해 주는 것은 그분의 능력과 신실하심이다. 우리의 감정은 우리의 안전과는 무관하다.

도덕적 판단을 내리는 것을 포함하는 믿음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가 저에게 영생의 안전을 줄 것으로 믿는다면, 내가 그것을 소유한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라고 질문할지도 모른다. 이 질문에 대해 신약성경의 대답은 이러하다.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라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요일 5:9-13)

이 하나님의 말씀 구절은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자는 자신이 영생을 가졌다는 사실을 두 가지 근거로 완전히 확신할 수 있음을 말해 준다.

1.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셨을 때, 우리가 그분을 믿지 않는 것은 그분을 거짓말쟁이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하고 단순하고 솔직하다.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요일 5:11)

이것은 모든 신자에게 충분한 해답이 된다.

어떤 사람이 당신을 처음 만나 당신의 이름을 물었고, 당신은 “제 이름은 엘리자베스입니다.” 라고 대답했다고 생각해 보자. 그 때 다른 누군가가 와서, “저 숙녀분의 이름이 뭐예요?” 라고 그에게 물을 때, 만일 그가, “잘 모르겠어요. 엘리자베스라고 하긴 했는데, 확신이 들진 않네요.” 라고 대답한다면, 당신은 어떻게겠는가? 아마도 그가 당신이 한 말을 믿지 않음으로 당신을 거짓말쟁이로 취급한 것에 대해 매우 화가 날 것이다. 사실 그는 당신의 도덕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심각한 문제일 수 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인격에 이같은 의문을 제기하는 것만큼 심각한 것은 세상 어디에도 없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의 도덕성에 대한 판단을 포함하는 것이다. 즉, ‘그분은 믿을 만한 분이신가?’, ‘그분은 진리를 말씀하시는가?’ 에 대한 판단이다.

인간의 모든 문제는 에덴 동산에서 사탄의 교묘한 꾀임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의심하게 됨으로써 시작됐고, 이로 인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었다(창 3:1-7). 이러한 멀어짐은 인간이 회개와 믿음을 통해, 거짓말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인격을 절대적으로 신뢰할 때야 비로소 해소된다.

2. “믿는 자는 그 안에 증거가 있기”(요일 5:10) 때문이다. 우리가 아플 때, 의사는 우리에게 약을 주면서 “이 약을 복용하세요. 그러면 병이 나을 겁니다.”라고 말한다. 우선 우리는 그를 믿을지 말지를 결정해야 한다. 이 의사는 제대로 자격을 갖춘 사람인가? 그가 처방해 주는 약이 좋은 약이고 독성이 없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을까? 그런데 우리가 만약 이 의사가 제대로 자격을 갖추고 신뢰할 만한 인성을 가진 사람이라고 판단했다면 어떨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 약을 먹을 것이다. 그리고 이 약이 효과가 있어 치료가 되었을 때, 우리는 이 의사가 진짜 의사이고 또 이 약도 좋은 약이라는 증거를 마음 속에 간직하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신다. 우리가 그분을 믿는다면, 우리에게 이 선물이 주어졌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이는 우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며, 또한 그것이 우리 안에서 일으키는 실제적인 변화 때문이기도 하다.

믿음의 삶

이 장의 서두에서 우리는 구원을 받는 문제에 있어서 믿음은 행위에 반대가 된다고 배웠다. '믿음으로' 라는 말은 '행위로서가 아닌' 이라는 말로 바꾸어 말할 수 있다. 이제 우리는, 참된 믿음이 행위로 연결되고 행위를 낳는다는 사실을 배우게 될 것이다. 실제로 행위를 낳지 못하는 믿음은 진실된 믿음이 아니다. 이것이 모순적으로 들린다면 다음 비유를 생각해 보자.

한 농부가 심장이 약해져서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게 되었다. 이 때, 심장 전문의사인 한 친구가 심장이식 수술을 무료로 해 준다고 제안한다. 수술과 새 심장은 무료로 제공될 것이다. 농부는 의사를 믿고 그에게 자신을 맡긴다. 이후 수술이 진행되어 새로운 심장이 성공적으로 이식된다. 그 결과, 이 농부는 새로운 생명력과 에너지로 가득 차게 된 자신을 발견하고 다시 즐겁게 일을 하게 된다. 이는 새로운 심장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미 그것을 소유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새 심장이라는 영적인 선물을 주신다. 이것은 진실로 거저 받은 선물이지 수고의 대가로 얻은 이익이 아니다. 그러나 이 새 심장과 함께 새로운 삶, 새로운 에너지, 새로운 목표, 새로운 동기 및 그리스도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드리고 싶은 소원도 함께 온다(겔 11:19-20을 보라). 바울이 회심자들에게 지적한 것과 같이 실제로 이것이 구원의 목적이다. 바울이 에베

소서에서, 행위와 상관없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주는 구절 뒤에는, 그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엡 2:8-10)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말해주는 구절이 이어져 있다.

물론, 인생 여정의 모든 걸음은 ‘지속적으로 믿음을 연습하라’는 부르심이다. 그리고 믿음은 근육과 같이 연습을 통해 더욱 강해진다. 믿음은 신자들이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 살고 일할 수 있게 해준다. 믿음은 신자들을 강하게 해서 모든 시대에 그리스도를 위해 위대한 공을 세우거나 큰 고난을 견딘 위대한 믿음의 영웅들의 본을 따라갈 수 있게 해준다(히 11장 참조).

더 나아가, 하나님은 때때로 심할 정도로 믿음을 시험하셔서 그것이 진실됨을 증명하려 하실 것이다. 이를 통해, 믿음은 금이 달구어져서 불순물이 제거되고 더욱 더 가치 있는 금(벧전 1:6-7)이 되는 것처럼 더욱 정결케 된다. 하지만 하나님은 신자가 감당할 수 있는 한계 이상으로 시험 당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신다. 실제로 그리스도는 오래 전 베드로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신자들을 위해 중보기도하심으로써 그들의 믿음을 유지시키시고, 믿음이 흔들릴 경우 그것을 회복시키는 일을 하신다(눅 22:31-32, 히 7:25).

믿음은 또한 신자들이 신약성경이 ‘믿음’ (the faith)이라고 부르는 기독교의 근본 교리를 굳게 붙들 수 있도록 능력을 부여해준다. 바울이 기록한대로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한다”(딤후 6:12-

16). 그리고 가장 확실한 것은 믿음의 결과로 마지막에는 상급이 주어
진다는 사실이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
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
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
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딤후 4:7-8)

제 12장

성화 / Sanctification

부전자전(아들이 아버지를 닮는 것)

이 장에서는 ‘성화’ 라는 용어를 공부한다. 성화는 하나님이 죄인을 성도로 변화시키시는 과정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신약성경에는 성화에 대해 아직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 곳곳에 놀라운 구절들이 기록되어 있다. 하지만 ‘성도’ 라는 단어만큼 자주 사용되고 있지는 않다. 일상에 흔히 쓰는 ‘성도’ 라는 타이틀은 보통 ‘성 베드로’, ‘성 바오로’ 등과 같은 기독교 사도들을 지칭하는 존칭으로 사용된다. 그리고 그것은 ‘성 시므온’ 이나 ‘성 소피아’ 등과 같이 일생 동안 높은 수준의 거룩을 달성했다고 인정되는 사람들에게도 적용된다.

그러나 신약성경의 용례는 이것과 현저히 다르다. 원문 어디에도 (서신서의 원문에는 제목이 붙어 있지 않았다. 이것은 후에 덧붙여진 것이다.) 사도 개인이 ‘성 베드로’ 또는 ‘성 바오로’ 등으로 언급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물론 사도들과 선지자들은 집단으로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 (엡 3:5, 벧후 3:2)로 언급되기도 한다.) 반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외 없이 성도라고 지속적으로 불리고 있다. 예를 들어, 사도행전 9장 32절에서 베드로가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라고 기록할 때, 그것은 그리스도인들 중 선택된 몇 명만을 방문하려 갔다는 것을 의미하진 않는다. ‘성도들’ 이란 말은 한 지역에 함께 사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지칭하는 신약성경의 일반적인 방식이다.

더 놀랍게도, 고린도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서신은 그 교회 구성원의 많은 행동이 부적절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서두 인사말에서 그 모든 구성원들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이라고 부르고 있다(고전 1:2).

그러나 이러한 언어는 형식적이고 외교적인 공치사가 아니다. 그것은 복음의 심장에서 나온다. 고린도 교회의 신자들 중 몇 명은 과거에 극도로 부도덕했었고 모든 이들이 죄 가운데 있었으며, 그들 중 많은 이들이 여전히 영적으로 약하고 미성숙했었다. 바울은,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고전 6:11)고 말한다. 이와 같이 말할 때, 신약성경은 사람들이 이미 신분적으로 거룩해지고 성도가 되었다고 해서 실제적인 거룩을 (즉 성화됨) 지속적으로 이루어 나갈 필요가 없다고 말하진 않는다. 오히려 신분적 거룩이 그리스도의 희생의 산물이기에 그분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즉시 진실로 거룩하다고 하나님께 인정

받고 '성도' 라고 불림을 받는 것이 합당하다는 것을 강조한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는지 알기 위해 '거룩' (holiness)의 정의 부터 논의를 시작해 보자. 성화(sanctification)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하나는 소극적인 측면이고 다른 하나는 적극적인 측면이다.

1. 소극적인 의미에서 성화는 불결함과 부정함으로부터의 분리를 의미하는데, 다른 말로 '정화 또는 정결' (purification)이다.

2. 적극적인 의미에서 성화는 하나님 및 그분께 대한 섬김을 위해 분리됨을 의미하는데, 다른 말로 '성별' (consecration)이다.

이 둘 다 히브리서 9장 13-14절에서 잘 나타나 있다. 여기에서 히브리서 저자는 고대 유대의 정결 의식을 기독교의 정결 의식과 대비시키고 있다. 그는 성화를 오염으로부터의 정결하게 되는 것과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성별과 결부시키고 있다.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재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 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히 9:13-14)

다음으로 우리는 신약성경이 '성화' 를 초기 성화, 점진적 성화, 최종

성화라는 세 단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말하고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

초기 성화

우선, 초기 성화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살펴보자.

1. 그리스도의 몸을 드림으로써: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히 10:5, 7, 10)

그렇다면, 우리가 성도가 된 것은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그분의 뜻을 행하는 우리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다. 이 목적을 위한 우리의 모든 노력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정결, 거룩, 헌신 등에 불행하게도 미치지 못할 것이다. 복음은 다른 누군가가 행한 일, 즉 그리스도가 행하신 일에 의해서 우리가 거룩하게 되고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게 된다고 말한다. 그분이 우리를 위한 죄 없는 희생제물과 대속물로서 자신의 몸을 드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 그리고 그분은 십자가에서 자

신을 하나님께 드리실 때 그것을 단번에 영원히 이루셨다.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결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게 된 것은 우리의 노력이 때문이 아니라 바로 이 희생제물 때문이다.

2.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 (위의 히브리서 9:13-14을 참조) 아무도 자기의 양심이 죄책감으로 인해 오염된 상태로는 살아 계신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 죄책감은 모든 인류와 그들이 하는 모든 일에 부패와 질병의 기운과 그림자를 드리운다. 우리 편에서 종교적인 활동을 아무리 증가시킨다 해도 이러한 더러움을 없앨 수 없다. 어떤 종교 의식과 정결 의식도 마찬가지이다(마 15장).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그리스도의 피는 할 수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기”(요일 1:7) 때문이다. 이로써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하고 우리를 자유케 해서 살아 계신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피는 성화에 있어서 우리가 소극적인 요소라고 지목했던 ‘더러움으로부터의 정결’을 가져온다. 그러면, 성화의 다른 측면, 즉 ‘하나님께 성별’이라는 적극적인 요소에 영향을 주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 편에서, 그것은 우리의 마음 속에서 일하시는 성령의 사역을 통해 성취된다. 성령의 사역이란 우리에게 죄를 일깨워주고 우리를 구원자에게로 안내하며,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을 드러내고 중

생의 능력을 통해 거룩한 삶을 이루어가는 데 필요한 모든 잠재력과 함께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 안에 심어준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으니.” (딤후 3:5)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 (벧전 1:2)

그리고 우리 편에서 볼 때, 성화의 소극적(정결) 요소 및 적극적(성별) 요소는 믿음을 통해 우리의 마음 속에서 효력을 발휘한다.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방인)이나 우리(유대인)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행 15:8-9)

우리의 마음 속에서 행하시는 성령의 사역에 대한 반응으로써,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 우리 자신을 의지하는 믿음을 버리고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희생만을 의지하게 될 때, 그것은 우리의 마음의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는 결과를 낳게 된다. 하나님께 대한 과거의 거리감과 적개심은 사라진다. 하나님께로부터 독립하려는 마음과 하나님

을 경시하는 태도도 사라진다. 그 대신 성령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인식할 수 있게 해 준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 바 됨이니.”(롬 5:5) 성령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과 속성을 나누게 되었으며, 이로 인해 본능적이고 자연스럽게 그분을 ‘아바 아버지’ 라고 부를 수 있게(롬 8:14-17) 되었음을 알게 해 주고, 아버지 하나님이 거룩하심 같이 우리 자신도 거룩하게 해야 할 책임과 가능성(벧전 1:14-16)을 감지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동시에 우리는 “그분(그리스도)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유대인과 이방인 모두가) 아버지께 한 성령으로 나아가게 됨”(엡 2:18)을 알게 된다. 물론 이것이 항상 그런 것만은 아니다. 그리스도의 출생, 삶, 죽음 이전의 수 세기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죄를 위해 드렸던 희생제물은 단지 상징일 뿐이었다. 이 희생제물은 실제로 그들의 죄에 대한 값을 치를 수 없었기에 그들의 죄를 온전히 담당할 수 없었다. 그 결과, 보통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막이나 성전의 바깥 뜰까지만 들어가도록 허용되었다. 제사장들은 성소까지만 들어갔을 뿐 그 이상은 들어갈 수 없었다. 대제사장만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도록 허용되었다.

하지만 이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죄를 위한 완전한 희생제물을 드리심으로써 모든 것이 변화되었다. 그리스도는 거룩하게 된 사람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다(히 10:14). 그러므로 특별히 선택된 소수의 성직자들만이 아니라 모든 신자가 지금 이 지상에서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

는 하늘의 지성소에 영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권리와 그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다는 확신을 얻게 됐다. 히브리서 10장 19-22절은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준다. 예수님은 자신의 피를 통해서 그들을 위한 길을 여셨고, 모든 신자는 마음에 피 뿌림을 받아 죄로 물든 양심에서부터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몸을 씻었는데, 비유적으로 말해서, 이는 맑은 물로 목욕한 것과 같다(요 13:6-11과 비교).

이와 같이 신자들이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지속적으로 나아가게 될 때, 그들은 그들 모두가 하나님께 제사장이 되었고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 하나님을 섬기도록 드러졌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계 1:5-6, 5:9-10). 따라서 사도 베드로는 모든 동료 신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려 준다.

“너희도 산 돌 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 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공황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공황을 얻은 자니라.”(벧전 2:5, 9-10)

이 모든 것은 신자 안에 하나님께 대한 깊은 사랑을 불러일으킨다. 사도 요한은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요 일 4:19)고 말한다. 이것은 결국 집에서, 학교에서, 공장이나 사무실에서, 또는 농장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자신의 삶을 기쁘게 헌신하는 동기가 된다. 사도 바울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을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롬 12:1-2)고 말한다.

이 호소는 피할 수 없는 논리에 기반을 두고 있다. 신약성경의 여러 구절들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다. 그 중 한 예는 이러하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데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 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 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고전 6:19-20)

여기에서 우리는 전과 동일한 논리를 발견한다. 신자는 그리스도의 피의 대가로 구원을 받았다. 이제 후로 신자 자신이나 그의 육신 조차

도 자기의 것이 아니다. 이 둘은 그리스도께 속했다. 하지만 여기에 그치지 않고 그리스도의 구원을 통해 신자의 몸은 성령의 전이 되었는데, 이는 신자들이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그 안에 부어 주셨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성령의 임재는 신자들의 몸 안에서 그 몸을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이 거하실 집으로 드러지도록 구별한다. 이 놀라운 사실로 인해, 신자의 몸 안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성전이 된 몸을 더럽히지 않게 하는 마땅한 의무가 신자에게 부여되는 것이다.

여기에서 일어난 사건의 순서는 놀라운 사실을 가르쳐 준다. 신자가 우선 자신의 삶을 충분히 깨끗하게 했을 때에야 비로소 성령이 오셔서 그의 몸을 성전으로 만들 가능성이 생긴다는 말이 아니다. 오히려 그 반대이다. 그리스도는 자신의 희생과 피를 통해 이미 신자의 몸을 씻어 거룩하게 하시고 성령의 전으로 만드셨다. 그것이 이미 이루어진 사실이기 때문에 신자는 이제 그의 몸을 더럽힐 수 있는 행동을 삼가야 할 책임과 동기가 부여된다는 말이다.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것을 정리해 보자. 우리가 이미 지칭했던 ‘초기 성화’란 거룩한 삶을 살려고 하는 우리 스스로의 노력을 통해 달성되거나 성취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

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고전 1:30)

이 초기 성화는 모든 신자들을 성도로 만든다. 그것은 모든 신자들이 즉시 그리고 직접적으로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게 해준다. 그것은 모든 신자들을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으로 성별하여 하나님께 신령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과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게 한다. 또 모든 신자들의 몸이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게 한다. 그것은 모든 신자들 속에서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자기 속에 아버지의 생명이 거하여 아버지께서 거룩하심 같이 거룩할 수 있는 모든 필요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음을 본능적으로 알 수 있게 해 준다. 그리고 모든 신자들 속에서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일으켜서 삼위의 하나님께 헌신된 삶을 살게 해준다. 아울러 하나님과 그리스도께 대한 사랑 뿐만 아니라 인종이나 국적에 관계없이 동일한 아버지께로부터 태어난 모든 사람들(요일 5:1)에 대한 사랑도 불러일으킨다.

하지만 이 시점에서 어떤 사람은 다음과 같이 반박할 수 있다.

“하지만 이것은 모든 것을 너무 쉽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몸부림, 분투, 그리고 전쟁의 삶으로 나타내고 있지 않나요?”

그렇다. 실제 그러하다. 이 부분은 다음 장에서 함께 생각해 보자.

제 13장

성화 / Sanctification

노예가 아닌 아들

지난 장에서 우리는 ‘초기 성화’ (Initial Sanctification)에 대해 공부했다. 이제 ‘점진적 성화’ (Progressive Sanctification)와 ‘최종 성화’ (Final Sanctification)에 대해 신약성경이 가르치고 바를 차례로 탐구해 보자.

점진적 성화

여기에서 첫째로 주목할 것은 다음과 같이 간단한 사실이다. 성경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거룩하게 되어 진정한 성도가 되지만 그 후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할” (고후 7:1)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이것을 유념할 때, 우리가 흔히 범할 수 있는 실수를

피할 수 있다. 성경은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만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지, 구원이 회심 전후의 자신의 행위나 영적인 성취에 근거하지 않는다(롬 3:19-28)고 분명히 가르치고 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처럼, 일단 사람이 구원을 받으면 자유롭게 죄를 지으며 살아도 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바울의 이중적인 항변에 귀를 기울여 보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롬 6:1-2,15)

게다가, 바울은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는 일을 하실 때, 그분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더욱 더 거룩하게 하길 원하신다고 논쟁의 여지없이 명백하게 말하고 있다. 그래서 그는 회심자들에게(엡 4:17-24) 진정한 회심이란 자신의 죄악된 옛 생활 방식인,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들을 위해 예비하신 새 생활 방식인, “새 사람을 입기로” 시작부터 그리스도께 결정적으로 동의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상기시켜 주었다. 이것은 개인의 남은 생애 동안 이 ‘벗는 것’과 ‘입는 것’을 적극적으로 지속하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자신의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믿음으로 의롭

다 하심을 얻은 사람들에게는 점진적 성화가 선택 사항이 아니다. 신약성경에 따르면, 그것은 의무이다. 사실, 이 의무를 거부하는 사람을 진정한 신자라 할 수 없다.

그러면 이제 이 점진적 성화가 어떤 수단을 통해 성취될 수 있는지 살펴보자.

이에 대해 기본적으로 두 가지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 두 가지 방법은 우리 편에서의 긍정적인 행동과 인내를 포함한다. 하지만 하나는 잘못된 방법이고, 다른 하나는 옳은 방법이다. 그 하나는 노예의 방법이다. 그것은 비효율적이며 좌절과 절망으로 이끈다(롬 7:7-25 참조).

다른 방법은 자유가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의 방법인데, 이것은 그들을 하나님 아버지와 더욱 깊은 교제 가운데로 인도하고 그분이 생각하고 행동하는 방식을 더욱 더 닮아가게 한다(마 5:43-48). 이것은 로마서 8장 13-17절에 잘 요약되어 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써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با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전자의 잘못된 방법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다. 즉 하나님의 법이 거룩하고 공의롭고 선하다는 것과 하나님의 명령이 합리적이라는 것, 그리고 이 법을 완성함으로 얻는 유익이 모두 바람직하다(롬 7:12)는 것을 인정한다. 그러나 이로부터 점진적 성화를 위한 신약성경의 해결책이 단순히 다음과 같을 것이라는 성급한 결론을 내려선 안된다.

“여기에 하나님의 법이 있습니다. 여기에 십계명이 있습니다. 여기에 그리스도의 산상수훈이 있습니다. 이제 당신의 마음을 정하세요. 뜻을 정하시고 그것들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세요. 그러면 당신은 더욱 더 거룩한 사람이 될 겁니다.”

이러한 생각은 다음의 3가지 사실을 간과한 결과이다.

1. 인류는 죄로 인해 피해를 입었고 쇠약해졌으며 부패했기 때문에 아무리 노력한들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없다. 그들은 사도 바울이 한 때 자신도 그러했노라고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지식적으로 받들고 자신의 의지를 발휘해서 그것을 지키기로 결심할 수는 있다(롬 7:22, 25, 15, 18-19). 그러나 그들은, 바울이 경험한 대로, 실제 행동에 있어서 그것을 온전하고 변함 없이 실천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실제로 그들은 자신들의 마음 속 깊은 곳에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못하게 하는 강력한 저항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이 저항은, 죄의 통치를 유지하기 위한 악령의 군사 작전에서 만들어진 모든 결정에 따라 작용하고 있다(롬 7:23).

2.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법은 자체로 선하긴 하지만 사람에게 어떠한 도움도 줄 수 없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것은 육체의 연약함 때문에 성공을 가져다주지 못한다(롬 8:3). 그리고 한 사람의 계속되는 실패를 강조함으로써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약화시킨다(롬 7:21-24).

3.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쉽게 잊어버리는 것이 있다. 하나님의 법은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를 가르쳐 주지만 그 이상은 아니다. 그것은 명령인 동시에 실패나 불순종에 대한 형벌이 가미된 것이다. 그리고 궁극적인 형벌은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이다. 인간은 한 번 실패하고 나면 그 후 어떠한 성공도 이 실수를 보상하거나 형벌을 취소시킬 수 없다. 지속적인 완벽을 요구하는 시스템에서는, 아무리 많은 선이 있다 하더라도 약간의 불완전함조차도 보상할 수 있는 길은 없다.

이것의 실제적인 의미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한 가지 비유를 사용해 보자. 결핵 환자를 위한 요양원이 먼 계곡에 위치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자. 이 계곡의 먼 끝자락에 원자력 발전소가 있고, 이 발전소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 몸에 치명적인 방사능을 유출시키기 시작한다. 따라서 정부는 이 환자들에게 피신할 것을 권고한다. 불행하게도 그 유일한 출구는 높이 3,600 미터에 이르는 네 겹의 산길을 통과하는 것이고, 정부는 환자들에게 이 모든 산맥을 통과하기까지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한다.

정부의 조언은 건전하다. 지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 조언을 따르고자 할 것이다. 하지만 정부가 환자들이 이 산맥을 통과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없거나, 때로 돕지 않는 일들이 발생한다. 헬리콥터나 버스도 없고 심지어 말이나 노새도 없다. 최대한 걸어서 통과해야 할 뿐이다. 치명적인 방사능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들이 영웅적인 노력을 다해도 망치려 할지 모르나 불쌍하게도 질병으로 인해 그 걸음이 점점 느려지고 이 산맥을 건널 수 있다는 희망도 점점 더 희미해져 결국 결핵이나 비바람, 또는 방사능 효과에 굴복하고 말 것이다.

그런데 정부가 추가적으로 이들에게 사흘 이내에 네 개의 산맥을 모두 건너야 한다고 말한다면 어떨까? 건너는 데 더 오랜 시간이 걸리는 사람은 방사능에 심하게 노출되어 다른 사람들에게 위험을 줄 수도 있다. 따라서 그들이 방사능에 노출된 사실이 발견된 즉시 엄격한 격리 조치를 취할지도 모른다. 또 그들이 연약한 상태에서 첫 두 개의 산맥을 건너는 것은 허락된 사흘보다 더 많은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그들이 자신들의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결국 죽음을 맞이해야 한다면, 다음 두 개의 산맥을 건너기 위해 몸부림쳐야 할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 존재의 모든 조직은 하나님께서 그런 분일 수 없다고 저항한다. 그리고 물론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다! 점진적 성화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 사람들에게 자신의 법을 주어 그저 최선을

다해서 지키라고 명령하는 것이 아니다. 만약 그렇다면, 우리의 처지는 이 환자들의 처지와 별반 다를 게 없을 것이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우리의 현실을 잘 이해하시는 분이시기에 전적으로 다른 길을 제시해 주셨다.

우리 인생의 삶에서 극심하게 목을 조여 오는 듯한 죄의 권세를 깨드리기 위한 첫 번째 단계는 하나님의 법을 완벽하게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한 형벌을 우리에게서부터 완전히 제거하는 것이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롬 6:14) 그리스도는 자신의 죽음으로 이 죄값을 단번에 영원히 지불하셨다(롬 6:6-11).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자유롭다. 우리가 만약 여전히 ‘율법 아래에’ 있고 그 죄값을 지불해야 할 책임이 있다면, 하나의 실수, 타락 또는 아주 조그만 죄라도 형벌을 받게 하기에 충분한 이유가 될 것이다. 이러한 경우 성화의 진보를 이루기 위한 모든 노력은 무의미하게 될 것이다. 이리하여 죄는 그것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나려는 우리의 모든 노력을 물리치고 좌절시키는 것으로 작용한다.

그러나 성화의 노력은 결코 무의미하지 않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결국 죄를 범하고 넘어지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자백할 수 있고,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요일 1:9) 그리고 지금뿐 아니라 미래에도 아무런 형벌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롭게 다시 일어서서 점진

적인 성화의 길을 가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죄가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비참함을 깨뜨리기 위해 취하신 두 번째 단계는 율법이 줄 수 없는 도움과 능력을 제공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그리스도)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롬 7:4) 반복하건대, 그것은 하나님의 법이 나쁘거나 그 요구조건이 무시될 수 있다는 말이 아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가 율법의 요구조건을 만족시키는 것이다(롬 8:4). 그러나 율법 자체는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지 못한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한 신약성경의 대답은, 비유적으로 말해서, “그리스도와 결혼하거나” 앞서 인용한 대로 “다른 이(그리스도)에게 가서” 그와 연합하는 것이다(고전 6:16-17도 참조).

한 여인이 생리학에 관한 책을 수없이 많이 읽고, 아이를 갖기를 원한다고 생각해 보자. 하지만 그녀는 남편 없이는 아이를 가질 수 있는 희망이 없다.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그분을 믿는 모든 자에게 살아 있고 사랑 많고 영적인 남편이 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생명과 능력을 공급하여 주심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점진적 거룩의 형태로 “하나님께 열매를 맺도록” 하셨다.

신약성경은 이러한 관계를, 신자의 개성을 목살하고 한 여인이 남편과 결혼함으로 단순한 기계로 전락해버리는 관계로 묘사하지 않는다.

신자는 여전히 책임 있는 개인으로서 남아 있다. 각 개인은 기록에 있어서 부지런히 진보를 이루어 가야하고(벧후 1:1-11),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러나 그것은 더 이상, 단순히 책이나 기록된 설명서, 또는 십계명과 같이 돌판에 새겨진 명령문을 읽고 실천하려는 노력의 차원이 아니다. 이러한 노력은 다음 구절에 기록된 대로, “율법 조문의 목은 것으로 섬기는 것”이라 불린다.

“이제는 우리가 얽매었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의 목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롬 7:6)

하나님의 기록한 성품을 표현하기 위한 목적으로 성경에 하나님의 법을 기록한 하나님의 성령은, 이제 한 인격체로서 신자 안에 내주하시면서, 신자를 통해서 이러한 법을 살아내신다. 그분은 신자 안에서 역사하여 마음을 새롭게 하고 세계관을 바꾸고 가치의 기준을 재정립하고 의지를 강화시키며 야망의 방향을 바로잡고 헛된 욕망을 거부하게 한다. 그분은 “육체를 거스리셔서 (즉 육체의 욕망을 저항할 강력한 힘을 주셔서)…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신다(갈 5:16-24을 보라).

그러나 성령을 통한, 신자와 그리스도의 이러한 관계는 뜬 구름 잡는 듯한 허무한 이야기나, 모호하고 이해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는 환

상과 같은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는 지속적으로 성도들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내하는 일을 하신다. 신약성경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제자들의 성화가 진보를 이루도록 기도하실 때,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요 17:17)고 말씀하셨다고 기록되어 있다. 물론 신자는 여전히 “육체를 위하여 심을 것인지 성령을 위하여 심을 것인지”(갈 6:8 참조)를 선택할 수 있다. 하지만 그 선택에 있어서 그는 더 이상 하나님의 법의 형벌을 두려워하여 채찍의 통제를 받는 노예로서 끌려 다니는 게 아니라, 그가 아버지의 사랑, 생명, 성품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 수 있게 도와주는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롬 8:14-17). 그리고 마치 항공기가 회전나침반에 의해서 그 항로를 유지하는 것과 같이, 신자는 그 마음의 소원을 따라서, 성령의 중보를 힘입어 하나님이 그를 위해 계획하신 길을 따라 걷게 된다. 이 길은 그를 부르신 ‘소명’(calling)과 ‘칭의’(justification)의 과정을 거쳐 ‘영화’(glorification)라고 하는 최종 목적지로 안내한다(롬 8:26-30).

이 길을 따라 걷는 행보가 항상 순탄하려면 위선이나 가식이 없어야 한다. 하나님의 자녀가 어린 아이들처럼 자기 고집을 부리거나, 이 경로를 벗어나려는 충동을 따라 행동하고자 할 때, 하나님은 아버지로서 지체 없이 그를 징계하신다. 이 징계는 고통스러울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아버지의 사랑과 지혜로 가해지는 것이기에 신자는 아버지의 거룩에 더욱 참여하게 된다(히 12:1-13). 그리고 그 목표는 분명하고 확실

하다. 이 길의 시작점에서 신자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확실한 만큼, 그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될 것이다(롬 5:1-2).

최종 성화

때때로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 이생에서 죄가 없는 완전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상을 고안해냈다. 성경은 이것을 거부한다.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우리 모두는 바울의 고백을 받아들여야 한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빌 3:12)

신자의 성화는 그리스도의 재림 시에 완성될 것이다. 그 때 신자는 신체적, 도덕적, 영적으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될 것이다. 그리고 성경은 그 방법을 우리에게 말해준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요일 3:2)

제 14장

최후의 심판

/ The Final Judgment

공의의 요구

어린 아이들은, 심지어 아주 어렸을 때부터, 정당하고 공정한 것과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해 매우 뛰어난 감각이 발달되어 있다. 이는 아주 흥미로운 사실이다. 아이는 동생이 자신의 장난감을 빼앗아 가거나 부모가 그것을 동생이 가지고 놀도록 허락할 때, 종종 “엄마, 그건 불공평해요”라고 말한다. 또 선생님이 한 어린 학생에게 그가 실제로 범하지 않은 잘못에 대해 나무라고 벌을 줄 때, 이 학생은 “선생님, 그건 불공평해요”라고 말한다.

공의에 대한 우리의 직감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우리는 부당함에 대한 분노의 강도도 점점 무더지는 것 같다. 이는 단순히 이러한 상황을 많이 목격해서 마음이 완고해지고 냉소적으로 변했기 때문일 수도 있다.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는 여전히 분노를 느낄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공공의 재산을 팔아 수익금을 챙겨서 엄청난 부자가 되었을 때 그러하다. 우리가 그에 대해 어떤 일도 할 수 없다는 사실에 자신을 체념해 버릴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그건 불공평해요”라고 항의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항의 이면에는 말로써든 암묵적으로든 누군가가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생각이 깔려있다. 불공정이 지속되도록 방치해서는 안 된다. 사기꾼, 거짓말쟁이, 살인자 및 다른 모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반드시 벌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역사와 우리의 최근 경험을 통해 볼 때, 그러한 사실들을 정확히 확인할 수 있다. 범죄자를 처벌할 책임이 있는 정부에서조차도 부정부패와 때로 극악무도한 범죄가 드러나는 것을 너무도 자주 보았다. 그러나 죽음은 준법자와 범법자, 성도와 죄인을 가리지 않고 결국은 이들 모두를 무차별하게 끌고 가는 것으로 보인다. 이럴 경우, 우리는 범죄와 죄, 사소한 부정 및 심한 부정 등이 제대로 처벌 받지 않는다고 단정지어야만 하는가? 선악에 대한 우리의 판단은 조롱받을만한 환상에 불과한 것인가? 공의에 대한 우리의 희망은 영원히 좌절되어야

하는 것인가?

결코 그렇지 않다! 성경에 따르면, 선악에 대한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창조주는 우리의 마음 판에 자신의 법을 새기셨다(롬 2:14-15). 그리고 양심은 이 법을 어기지 말라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그것을 어겼을 때, 우리가 잘못을 범하고 있다고 증언하며, 악행을 했을 때 우리의 마음을 죄책감으로 채우는 내적인 감시자이다.

신약성경은 하나님이 언젠가 자신의 법의 정당성을 입증하실 것이라고 분명히 말한다. 결국 최후의 심판이 오게 되는데, 이는 다음 장에서 다룰 주제이다. 이 시점에서 ‘둘째 사망’이라는 또 다른 용어가 사용된다. 이 용어는 최후의 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는 사람들의 영구적인 상태가 어떠할지를 나타낸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자나 작은자나 그 보좌 앞에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계 20:11-15)

최후의 심판이 있을 시기

각 개인에게 있어서 심판은 죽음 이후에 온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히 9:27) 그러나 개인의 죽음 이후 얼마 만에 최후의 심판이 올 것인지를 묻는다면, 그 대답은 최후의 심판은 하늘과 땅이 피하여 간 데 없을 때, 다시 말해 세상 끝이나 세상이 끝난 후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왜 그러해야만 하는지를 아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다. 일단 사람이 죄를 범하면, 죄는 그 범한 사람이 죽은 이후에도 오랫동안 지속되는 연쇄적인 반응을 보일 수 있다. 예를 들어, 한 아버지가 어린 아들에게 가혹한 학대와 사랑의 결핍으로 인해 정신적인 상처를 줄 수 있다. 정신적으로 열악한 환경 속에 적응하며 자란 이 아들은 자신의 아내, 자녀, 친척 및 직장 동료에게 상처를 주는 방식으로 행동할 수 있다. 그 결과 이들은 그를 패썹하게 여기는 반응을 보이게 된다.

같은 방법으로, 역사적으로 위대한 독재자들이 수백만 명의 사람들에게 안겨주었던 피해와 불의는 그들이 죽기 전까지 중단되지 않았다. 그것은 연못 위의 잔물결처럼 계속 퍼져나갔다. 인류 역사의 모든 복잡한 실타래가 세상의 종말에 시간의 베들로부터 완전히 끊어져 나가기 전까지는 어떤 한 가지 죄가 가진 진정한 심각성을 온전하게 그리고 올바르게 판단하는 일은 가능하지 않다.

철저한 심판

위에 인용된 신약성경 구절은 “책들이 펴 있고… 그리고 죽은 자들이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이다. 우리는 하나님이 기록하신 책들이 지상에서 우리가 가진 책들과 똑같은 것이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다. 여기에서 ‘책들’이라는 단어는 은유적 표현이다. 이것은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한 모든 것에 대한 기록을 가지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준다. 이러한 기록을 유지하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 믿지 못할 눈으로 바라보지 않아야 한다. 인간은 현재 거의 용량의 한계가 없는 기억 장치를 가진 컴퓨터를 스스로 만들 수 있지 않는가?

또한 신약성경은 사람들이 죽음 이후에 영원히 존재할 뿐 아니라 자신들의 과거의 삶을 기억할 수 있으며, 아마도 이생에서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자세하게 기억해낼 수 있다는 사실(눅 16:25)을 우리에게 일깨워 준다. 하나님은 사람의 외적인 행동뿐만 아니라 은밀한 것까지 심판하실 것이다(롬 2:16). 우리가 비디오를 통해 우리의 행동을 촬영한 뒤 재생하게 되면, 우리가 수년 전에 말하고 행동한 것을 현재 다시 볼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도 사람들이 수년 또는 심지어 수 세기 전에 가졌던 은밀한 생각과 드러난 행동들을 그들의 눈 앞에 재생해 보이실 수 있다.

따라서 성경에 기록된 대로 각 개인이 자신의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을 것이기에 심판은 그야말로 정당하다. 아무도 다른 사람이 행한 일 때문에 대신 벌을 받거나 보상을 받지 않을 것이다.

또한 심판자는 (다른 이가 아닌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요 5:22 참조) 사람들이 행하거나 행하지 못한 선과 악에 대해 알고 있었는지도 고려할 것이다. 그분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눅 12:47-48)

야만인은 주변 다른 종족의 사람들을 죽이는 것이 선하고 영광스러운 것이라고 가르치는 문맹 종족에서 어린 시절부터 자랐기 때문에 살인을 일삼은 것이 당연하다. 그의 행위는 하나님의 눈에 죄다. 하지만 그는, 살인이 죄라는 사실을 너무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상대 마약 조직원을 살해하는 문명국의 마약계 대부만큼이나 혹독한 처벌을 받진 않을 것이다.

이 심판자는 자신의 판결을 이끌어 내는 또 다른 원칙을 밝혀 두셨다.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할 것이니라.” (눅 12:48)

탁월한 두뇌와 신체의 건강을 가진 사람이 가난한 사람들의 고통을 무시한 채 재물을 축적하는 데에만 자신의 재능을 이기적으로 사용하고 이웃을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가난하고 재능이 없어서 이웃을 돕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가난에 처한 사람보다 더 심한 벌을 받게 될 것이다(눅 16:19-31).

회개하지도 않고 믿지도 않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운명

사람에게 부과되는 형벌은 개인에 따라 다를 것이다. 반대로, 모든 회개하지 않고 믿지 않는 사람들의 ‘운명’은 동일할 것이다. 요한계시록 20장 11-15절은 이것을 ‘둘째 사망’ 또는 ‘불뚝’으로 묘사하고 있다.

1) *둘째 사망*: ‘둘째 사망’ (the second death)이란 우리가 현세에서 알고 있는 육체적인 죽음과 구별하기 위해 불리는 말이다. 육체의 죽음은 한 인간이 위의 말씀 구절에서 소위 ‘음부’ (‘보이지 않는 세계’를 의미하는 그리스어)라고 부르는 보이지 않는 세계로 들어가기 위해 통과하는 문이다. 이 보이지 않는 세계에 회개하지 않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감금되어, 말하자면 최후의 심판을 기다리는데, 이는 현세에서 한 범죄자가 체포되었을 때 판사에게 재판을 받기 위해 법정에서 서기 전까지 구금되는 것과 동일한 방식이다(유다서 6절 참조).

이러한 영혼들이 재판에 설 준비를 하기 위해 최후의 심판 전에 부

활이 있을 것이고, 그들은 일시적인 감금에서 벗어나 그들의 부활된 몸을 입게 될 것이다. 이것을 요한계시록 20장 13절은,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라고 언급하고 있다. 바다에 익사한 사람들(또는 시신의 재가 파도에 흩어진 사람들)의 몸도 부활할 것이다. 그들의 영혼들은 이 일시적인 감금상태를 떠나 그들의 부활된 몸과 재결합할 것이다. 물론 이것은 다양한 장소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죽은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도 동일하다.

그렇다면 최후의 심판에서 정죄 받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 다시 육체의 죽음을 경험하는 선고를 받게 될까? 아니다! 현재로부터 보이지 않는 세계로 들어오는 관문인 육체의 죽음은 더 이상 어떠한 기능도 할 수 없을 것이다. ‘둘째 사망’ 이라 불리는, 또 다른 종류의 죽음에 넘겨지고 그것으로 대체될 것이다. 그렇다면 이것은 어떤 종류의 죽음일까?

(1) 이것은 개인에게 있어서 도덕적이고 영적인 죽음의 상태일 것이다. 앞선 장에서 배운 것들에 다시 주목해 보자. 신약성경은 구원 받지 않은 모든 사람은 이미 이생에서 죽어 있고 총명이 어두워져 있으며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고 선언한다. 각 사람은 영적으로 죽어 있고 지적으로 어두워져 있으며 감정적으로 죽어 있다(엡 2:1-3, 4:17-19). 이 땅에서의 삶은, 회개하고 하나님과 화목하고 영적으로 거듭나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하나님의 생명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하지만 한 사람이 이 기회를 저버리고 육체의 죽음을 통과해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 최후의 심판대에서 유죄 판결을 받는다면, 둘째 사망은 그를 하나님의 생명에서 떨어진 상태로 영원히 가두게 될 것이다. 이것은 완전한 소멸이 아니라 영원히 변하지 않는 ‘영적인 병리 상태’로서, 생명을 주는 하나님의 공훈이나 개선의 희망이 일제히 중단된 상태를 의미한다.

(2) 이것은 개인뿐 아니라 그가 존재하는 사회 전체의 영적인 죽음일 것이다. 죄는 한 개인이 다른 모든 죄인들로부터 완전히 고립된 상태에서만 겪을 수 있는 영적인 질병이 아니다. 죄는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대한 개인의 태도와 행동을 통해서도 표현된다. 이생에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정욕적이고 속이고 잔인하고 교만하며 공격적인 사람들은 육체의 죽음을 통과하여 최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난다고 해서 성도로 갑자기 변화되진 않는다. 죽음은 마법이 아니다. 성경에서 장차 올 세상을 묘사한 것은 동화가 아니다. 우리가 이러한 영적, 도덕적 질병으로 굶아 터진 사회에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을 의미할지 한번 상상해 보자.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 한 때 받아들일 뻔 했지만 결국 영원토록 거절해 버린, 이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되지 않고 순화되지 않는 그런 사회에서 산다면 말이다.

신약성경은 우리가 천국에서 하나님과 구원받은 사람들과 함께 누리는 삶의 복을 천국 밖에 존재하는 사회와 비교하면서 설명하고 있다.

“자기 두루마기를 찢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하늘의)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짐승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밖에 있으리라.”(계 22:14-15)

2) 불못 : 회개하지 않고 믿지 않는 사람들의 운명은 ‘불못’ (the lake of fire)으로도 묘사된다. 이러한 용어가 은유적인 표현일 뿐, 문자적으로는 그렇지 않다고 가정하더라도, ‘불못’은 이 용어가 전달하는 문자적인 해석보다 훨씬 더 끔찍한 현실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은 확실하다.

우선,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다는 사실을 양심적으로 아는 고통이 있을 것이다(롬 2:4-6). 둘째로, 죄악의 태도와 행동으로 인한 결과 및 파급효과를 견뎌야 하는 고통이 있을 것이다(갈 6:7-8). 그리고 셋째로, 회한의 고통인데, 이 회한을 불러일으킨 죄를 회개하려는 의지와 능력이 자신에게 없음을 자각할 때 그 고통은 더욱 커지게 될 것이다(히 6:4-8).

이 불못은 지상에 있는 문자적인 의미의 불처럼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소멸하진 않는다. 주 예수님은 그것을, “지옥은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막 9:47-48)라는 말로 묘사하셨다. 탈 것이 없으면 불은 꺼지고, 구더기도 먹을 것이 없으면 죽는다. 그러나 죄인들의 죄악된 태도는 결코 변하지 않을 것이며, 그들이 초래한 하나

님의 진노로 받는 고통도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마치 '회한'의 불에 연료로 가해지는 나쁜 기억들은 결코 꺼지지 않을 것이다.

반면, 소금이 고기의 부패를 방지하는 것처럼 이 영원한 불은 죄인들의 도덕적, 영적 타락이 증가하지 못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막 9:48-49). C. S. 루이스는 다음과 같이 기록했다.

“하나님은 그분의 자비하심을 따라
지옥의 고통을 정하셨다.
이 비극은 지속될 것이다.
하나님은 그분의 자비하심을 따라
영원한 한계를 정하셨다.
그 비극의 파도가 경계를 넘어오지 못할 것이다.”³⁾

각 개인의 도덕적, 영적 타락은 무한에 이르기까지 무한히 증가되도록 허용되지 않았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따라, 그것은 최후의 심판 때의 상태로 머물게 될 것이다. 이 '불'은 더 이상 크게 증가되지 못하도록 통제될 것이다.

3) 천로역정(1933년 런던, 1977년 콜린스/파운트 편찬)의 227쪽

제 15장

최후의 심판

/ The Final Judgment

하나님의 선하심과 엄위하심

공의가 결국 실현되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처벌을 받는다는 생각은 올바른 마음을 가진 모든 사람들을, 승리의 기쁨은 아닐지라도, 깊은 만족으로 채우는 것이 마땅하다. 성경에 나오는 고대의 한 시인은 이것을 다음과 같이 표현했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은 박수할지어다 산악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그가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임이로다 그가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공평으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시 98:5-9)

최후의 심판에 대해 믿지 않는 무신론자라 할지라도 어떠한 형태로든 심판이 있기를 바라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다. 그들의 이론에 따라, 이생에서 불의의 희생을 당하고 부당하게 죽은 수백만 명의 사람들에게 공의가 실현될 기회가 전혀 제공되지 않는다면, 그들은 분명 이것을 기쁘게 받아들일 수 없을 것이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 생각해 볼 또 다른 측면이 있다. 모든 사람이 공의의 편에서 있고 우리의 도덕적 판단도 공의가 마땅히 실현되어야 한다고 동의함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마음 속엔 항상 자신만의 이유가 있고 인간이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한다는 생각에 대해서도 주춤한 반응을 보인다. 이 형벌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심각하고 파격적이다. 인간의 본능도 자비가 엄격한 공의를 이겨야 한다고 말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하나님도 더욱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는가?

우리가 최후의 심판을 사실로 받아들이는 것에 주춤하는 데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 그 이유는 단순히 이렇다. 우리 각 사람은 죄를 범했고, 잘 알려진 죄인들의 죄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의 죄도 마땅히 벌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러한 사실을 인식할 때, 본능적으로 영원한 형벌과 같은 것들은 존재할 수도 없고 또 존재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스스로 증명해내기 위해 반론을 제기하려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반론들 중 몇 가지를 살펴보자.

반론 1:

“사랑의 하나님은 결코 사람을 벌하지 않으실 것이다.”

1) 첫 번째 대답: 사실은 오히려 정반대이다. 하나님이 죄를 심판하시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만약 어떤 마약 밀매업자가 당신의 딸을 납치해서 마약에 중독시켜 그녀의 뇌를 망가뜨렸다면, 하나님은 그것이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일인 것처럼 반응하지 않으실 것이다. 그분은 당신의 딸을 사랑하신다. 그녀에게 범한 죄는 아무 작은 죄라도 그분의 진노를 불러일으킨다. 그리고 그 범죄자가 회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그의 범죄를 결코 잊지 않으실 것이다.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것은 그분이 그 범죄자에 대해 영원히 진노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의미한다.

2) 두 번째 대답: 하나님은 참으로 사랑의 하나님이며, 어느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보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많이 말씀해 주신 분이 없고, 그 실체를 더 깊이 느끼게 해 주신 분이 없다. 아마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가장 위대하고 유명한 표현은 이 말씀일 것이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요 3:16)

이 구절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멸망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 하신 일에 하나님의 사랑이 최고로 잘 나타나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 하나님은 모든 상상할 수 있는 선물들 중 최고의 선물을 주셨는데, 바로 자신의 본체인, 아들을 내어주셨다. 그리고 이 선물을 주심으로 우리같이 죄 많은 사람들이 용서 받을 수 있고 또 우리의 죄로 인해 영원한 형벌을 받지 않을 수 있게 해주셨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멸망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 이처럼 극단적인 행동을 하셔야만 했다는 사실에 비추어서, 사람이 멸망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더욱 심각하게 생각해야만 한다.

이와 동일한 표현이 그리스도의 말씀에 나타나 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요 5:24)

여기에서 그분은 우리의 믿음과 신뢰를 호소하여 모든 정죄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고 영원한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신다.

그렇다면 그분은 무슨 권리로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으며, 무슨 근거로 이런 호소를 하실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자연스럽게 생겨난다. 그 대답은 우선, 그분은 최후의 심판 때에 재판관이 되실 분이므로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사실이다.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이들에게 맡기셨으나…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요 5:22, 27)

그리고 두 번째 대답은 최후의 심판 때에 재판관이 되실 분은, 회개하고 믿는 모든 자들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법에 의한 심판과 형벌을 십자가에서 담당하신 바로 그분입니다. 이로 인해 그들은 자신의 죄에 대한 심판과 형벌을 받을 필요가 없게 됐다. 하지만 또한 이로 인해 피할 수 없는 필연적인 결과가 생겨났다. 그것은 사람이 회개와 믿음을 추구하는 그리스도의 호소를 무시하게 될 경우, 반드시 멸망 받게 될 것이라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이 시점에서 우리는 앞선 장에서 공부한 성경 구절(계 20:11-15)을 다시 살펴보아야 하고, 이 말씀이 한 사람이 지옥 불못에 던져질지의 여부를 결정하는 중대한 요소가 됨을 정확하게 인식해야 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 관련 구절들이 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계 20:11-15)

우선,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은 것에 주목해 보자. 그것은 사람이 많은 죄를 범하거나 아주 악한 죄를 범하면 불뭇에 던져진다고 하지 않았다. 또는 사람이 비교적 가벼운 죄를 범하고, 많은 선행으로 그 죄값을 보상하면 불뭇에 던져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지도 않았다. 그렇다. 이 성경 말씀에 따르면, 결정적인 요소는 이것이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뭇에 던져지더라.”(계 20:15)

이 생명책은 ‘어린양의 생명책’이고(계 21:27 참조), 이 책에는 회개하여 하나님의 어린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모든 자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이 어린양이 그들의 죄값을 치렀기 때문에 신약성경은 그들에게 영광스러운 확신을 제공한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라).”(롬 8:1, 5:8-9) 그리고 이에 덧붙여, 그리스도를 자신의 대속제물과 구세주로 받아들인 모든 사람들은 이생에서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사실을 알 수 있다. 사도 바울과 그의 친구들이 그러했고(빌 4:3), 우리도 그러하다.

하지만 사람들이 하나님이 제공하신 구세주를 거절한다면, 슬프게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듯이, 그들의 이름은 어린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된다면,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무엇을 하실 수 있겠는가? 그들이 스스로 선택한 것이다. 그들은 불뭇에 던져질 운명을 피할 수 없을 것이고, 자신의 죄에 대한 형벌과 결과를 감당해야만 할 것이다. 하지만 그들은 누구도 원망할 수 없고, 오직 스

스로를 닮았 뿐이다. 분명 그들은 이에 대해 하나님을 비난할 수 없을 것이다. 하나님은 모든 선의 총체이시다. 그분을 거절하는 사람들을 위한 ‘또 다른 낙원’ 이란 당연히 존재할 수 없다. 하나님도 이 불가능한 사람들에게 또 다른 무언가를 제공해야 하는 도덕적 의무를 갖고 있지 않으신다. 그들은 그들의 행위가 악하기 때문에(요 3:19)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했고, 결국 그들이 스스로 선택한 것을 얻게 될 것이다.

이제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 또 다른 특징을 살펴보자. 하나님의 구원을 거절하는 모든 사람들은 모두 불못에 던져진다는 면에서 동일할 것이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은 강도의 형벌을 받지는 않을 것이다. 이 본문에 의하면, 그들이 자신의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인간의 정의로운 법정에서조차도 두 사람이 유사한 범죄에 대해 유죄 선고를 받고 투옥될 수 있지만, 경감 사유가 있는 사건과 그것이 부족한 사건에는 서로 다른 형량이 부과된다. 자신의 교만으로 인해 겸손하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으며 구주를 믿지 않은 한 상류층 여인은 영원히 잃어버림을 당하게 될 것이지만, 예를 들어, 자신의 손으로 수백만 명의 피를 흘린 ‘히틀러’ 같은 사람과 똑같은 형량의 고통을 받진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그 행하시는 모든 일에 공정하시고 공평하시다는 사실을 살펴보기 위해 그분의 심판의 또 다른 특징을 생각해 보자.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 받은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인

해 영원히 구원을 받게 된다. 한편, 회심한 후로부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산 사람들은 그들의 선행에 대한 보상을 받을 것이지만, 구원을 받았으면서도 부주의한 삶을 살고 저급한 행위를 나타낸 사람들은 많은 것을 잃게 될 것이다. 그들의 가치 없는 행위는 불에 타 없어질 것이며, 비록 구원을 얻기는 하겠지만 불 가운데서 얻은 구원이 될 것이다(고전 3:14-15).

반론 2:

“하지만 그리스도의 탄생 이전과 이후, 수세기 동안 살았던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을 텐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이런 사람들을 징죄하시는 것이 정당한가?”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실 것이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것을 믿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를 징죄하지는 않으실 것이다(요 15:22-24). 하지만 모든 사람은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우주가 그분의 존재에 대한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은 그 양심 속에 자신이 하나님께 죄를 범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롬 1:18-26).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긍휼에 자신을 의탁한 사람은 용서를 받을 것이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희생으로 인해, 하나님은 예수님에 대해 한 번도 들어보지 못

한 사람들일지라도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는 것을 완벽하게 정당화할 수 있게 되었다(롬 3:25). 따라서 사람들은 그들이 결코 가져본 적이 없는 빛에 따라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에게 비추어진 빛에 어떻게 반응했느냐에 따라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이제 이 글을 읽는 모든 사람은 예수님에 대해 듣게 되었다. 그러기에 독자들은, 진리를 알고 믿을 수 있도록 자신에게 빛이 비추어진 사실과 또 구원 받을 기회가 주어진 사실에 관해 최후의 심판 때에 충분히 참작될 것이라는 경고를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그리스도는 가장 많은 빛을 받은 사람들이 반드시 올바른 반응을 보이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하셨다. 당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던 사람들 중에 많은 교양인과 종교인들은 이방인들처럼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믿으려 하지 않았다 (눅 11:29-32).

반론 3:

“아무리 큰 죄를 범했다고 해도 70여년의 짧은 인생 동안 지은 죄에 대해 하나님이 사람을 영원히 심판하시는 것은 정당하지 못하다.”

그러나 이 반론은 두 가지 오해에 근거하고 있다.

1. 그것은 이생에서 죄를 범하고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거절한 사람들이 다음 세상에서 어떻게든 죄를 다시 짓지 않고 죄성을 버리게 될 것이라는 가정이다. 하지만 이것은 사실이 아니다.

2. 또 그것은 이생에서 회개를 거부한 사람들이 다음 세상에서 회개하고 구주를 믿게 될 것이라는 가정이다. 그러나 이것도 사실이 아니다. 이생에서 구주를 거절하고 하나님을 거역한 사람들은 다음 세상에서도 계속 구주를 거절하고 하나님을 거역할 것이다. 그들은 영원한 죄를 범한 것이다(막 3:29). 주님이 말씀하신 이야기 속의 한 부자는(눅 16:19-31) 죽음 이후에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사실을 발견하고 고통 속에서 후회와 번뇌를 표현할 뿐, 결코 진정한 회개를 보여주지 않았다.

반론 4:

“이 모든 것이 사실이라면, 사랑의 하나님은 사람들의 의지를 꺾고서라도 어떻게든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님을 믿도록 해야 한다.”

아니, 그렇지 않다. 인간이 동식물과 구별 되는 것들 중 하나는 인간이 자유의지를 가졌다는 것이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 받은 도덕적이고 영적인 존재로서, 자신의 창조주를 사랑하고 순종하거나 또는 그분을 거절할 놀라운 선택의 힘을 갖고 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서 자유의지를 빼앗지 않으신다. 그것이 인간을 구원하는 일과 결부되어 있을지라도 결코 그러지 않으신다. 만약 그렇게 하신다면, 구원 받은 존재는 더 이상 인간이 아니라 동식물이나 기계에 불과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하나님은 독재자가 아니다. 인간은 그분을

거절하고 거역하면서도 영원히 존재할 수 있다.

반론 5:

“사람이 죽음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관해 생각을 집중시키면
이생에서의 삶을 충실히 살지 못하도록 방해 받을 뿐만 아니라
낙심하게 된다.”

오히려 사실은 정반대이다. 천국과 지옥에 대한 믿음은 이생에서의
우리 삶에서 무한한 가치를 가진 것들에 우리의 생각, 태도 및 행동을
투자하도록 해준다. 인간의 도덕적 및 영적인 가치를 상대화시키고 격
하시키는 것은, 오히려 천국과 지옥에 대한 불신이다.

반론 6:

“감각 없고 비인간적인 괴물만이 영원한 지옥을 믿고 전파한다.”

그러나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께서 사랑이심을 가르치시고 눈물로써
지옥의 현실을 우리에게 경고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였다. 그분은 이
주제에 관해 모든 성경에서 어느 인물보다도 더 많은 말씀을 하셨다.
우리를 지옥에서 구원하기 위해 죽으신 분은 자신이 헛되이 죽지 않았
다는 것을 우리에게 여전히 말씀하고 계신다. 그리고 그분은 한 때 예
루살렘을 향해 슬퍼하셨던 것처럼 오늘날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을 위

해 슬피하신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 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눅 13:34)

그리스도의 이러한 슬픔(비탄)을 통해 창조주 하나님의 심장박동 소리를 듣는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겔 18:32)

그러므로 우리가 수세기에 걸쳐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살아 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며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기다리는” 수많은 사람들의 본보를 따르는 것은 참으로 지혜로운 선택인 것이다.

제 16장

구원 / Salvation

대단히 광범위한 용어

구원의 개념은 신약성경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분명하다.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실 때 마리아의 남편이 될 요셉은 그의 이름을 ‘예수’로 지으라는 지시를 받았고, 이 이름은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는 의미를 가진 히브리 이름의 그리스어 형태였다. 이 이름이 주어졌기에 천사는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마 1:20-21)고 말했다. 따라서 구원은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신 분명한 목적이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눅 19:10, 요 3:17과 딤후전 1:15도 참조)

그러므로 ‘구원’ (salvation), ‘구주’ (Savior), ‘구원하다’ (save)는 단어가 신약성경에서 매우 빈번하게 등장하는 이유를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또한 ‘구원’은 매우 넓고 광범위한 용어이다. 이 용어는 우리가 앞

서 공부한, ‘칭의’, ‘대속물’, ‘중생’, ‘영생’ 등과 같은 많은 용어들을 포함한다. 이들 각각은 구원의 한 가지 측면을 정의한다. 게다가, 구원의 개념은 종종 이 단어 자체가 명확히 사용되지 않은 문맥에서 등장한다. 이러한 점을 감안해서 ‘구원’에 관한 공부는 이 책에서 우리가 다루었던 근본진리를 복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그 폭넓은 함축성

그리스어 동사, ‘구원하다’ (sozo)는 여러 가지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그것은 위협으로부터 누군가를 구출해 낼 때 사용될 수 있고, 또는 누군가를 질병에서부터 건져낼 때, 다시 말해 ‘치유할’ (heal) 때 사용될 수도 있다. 복음서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여러 다른 의미로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주님, 나를 구하소서”라고 한 베드로의 호소에 대한 응답으로, 그리스도는 물에 빠져 있는 그를 건져주셨다(마 14:30-31). 그분은 오랜 질병 가운데 있는 한 여인을 고쳐주시며,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눅 8:48)고 말씀하셨다. 그분은 자신의 무남독녀가 죽게 된 한 사람에게,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하시며 확신을 주셨고, 그리고 나서 그의 집으로 가서 죽은 딸을 살리셨다(눅 8:49-56).

그러나 다른 곳에서 그리스도는 ‘구원하다’ (save)의 용어를 도덕적, 영적 의미로 사용하신다. 예를 들어, 그분은 죄인이지만 회개하는 여

인에게,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눅 7:48, 50)고 말씀하셨다. 이런 의미에서 ‘구원했다’ (saved)와 ‘구원’ (salvation)이라는 단어는 신약성경에서 가장 빈번하게 사용되었고,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많은 육체적 병고침과 치료들은 영적인 차원에서 ‘구원의 예시’ 로 사용되었다.

요한복음 9장에서 그리스도가 맹인으로 태어난 한 사람의 눈을 뜨게 해 주셨을 때, 그분은 이 육체적인 구원을 영적으로 맹인인 사람들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하는 능력을 보여주는 예시로 사용하셨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요 9:39) 이 장의 나머지 부분에서 우리가 주로(전적으로는 아니지만)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도덕적 및 영적인 의미의 구원이다.

구원은 하나님이 신자들을 위해 하신 일과 하고 계신 일 또 앞으로 하실 일을 나타내는 포괄적인 용어이기 때문에 과거, 현재, 미래의 세 가지 시제로 표현된다.

과거 시제의 구원

신약성경에 따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길 원하시고 이런 이유로 그리스도는 자신을 모든 사람을 위한 대속제물로 내어주셨다(딤후 2:3-6). 따라서 반가운 소식은, 구원이 비록 사람이 믿을 때에

만 유효한 것일지라도 모든 사람에게 열려있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사람은 믿자마자 자신의 구원이 현재 이루어진 것으로 말할 수 있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굳이, “저는 결국 구원을 받기를 소망합니다”라고 말하며 자신을 제한시킬 필요가 없다. 그는 과거 시제를 사용해서, “저는 구원을 받았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다. 신자들을 향해 신약성경은,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엡 2:5)고 말한다. 이것은 신자가 구원의 모든 측면을 이미 다 경험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이는 구원의 어떤 측면은 아직 미래에 이루어질 일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구원은 어떤 면에서 이미 효력을 발휘하고 있고, 또 한 사람이 개인적으로 자신을 그리스도께 진실로 의탁하는 순간 이루어진다는 것 역시 사실이다.

이미 구원을 받았다는 측면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있다.

1. **용서, 죄 사함을 받았음** : 위에서 언급된 죄 많은 여인의 경우, 그리스도는 완료 시제를 세 번이나 사용하셨다.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눅 7:47, 48, 50) 이와 마찬가지로 사도 요한은,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음이요”(요일 2:12)라고 말했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골 2:13)라고 기록했다.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한 ‘완전한 용서’를 우리에게 주고자 성경은 많은 비유를 사용한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다음의 것들로부터 멀리

웁기셨다.

1) 하나님의 시야로부터 :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사 38:17)

2) 죄들의 접근으로부터 :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시 103:12)

3) 죄들의 흔적으로부터 : “나는 나를 위하여 네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사 43:25)

4) 죄들이 기억되지 못하도록 : “나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렘 31:34)

5) 죄들이 복원되지 못하도록 :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이까… 주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미 7:18-19)

2. 중생 또는 거듭남을 통해 새로운 영적 생명을 얻음(제 7장 참조):

1)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딤후 3:5)

2) “하나님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엡 2:4-9)

3. 하나님과의 화목이 이루어졌음(제 4장 참조):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롬 5:11)

현재 시제의 구원

구원은 한 개인의 과거에만 관계된 것이 아니다. 구원은 현재에도 영향을 미친다. 그 대표적인 예가 삭개오이다(눅 19:1-10의 이야기를 참조). 구원이 삭개오의 집에 이르렀을 때, 구원은 죄 용서를 받은 과거의 일로 그치지 않았고, 그의 현재의 삶을 놀랍게 변화시켰다. 구원은 사회에 대한 그의 양심을 되살아나게 했다. 사람들로부터 합법적으로 거두어야 할 세금보다 더 많은 세금을 갈취한 것에 대해, 이제 그는 4배로 갚겠다는 제안을 했다. 그뿐 아니라, 그는 자신의 많은 동료 시민들이 가난에 허덕이는 상황에서 합법적인 방법을 통해서라 할지라도, 더 이상 자신만을 위해 많은 돈을 모으는 것에 만족하지 않았다. 그는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라고 말했다.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장애를 가진 자들에 대한 관심은 항상 참된 기독교의 표상이 되어왔다. 실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구원받은 사람들은 자신의 모든 관계에 있어서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행동하고자 하는 거룩한 부담과 의무감을 느낀다. 다시 말해, 구원받은 사람들은 복음이 자신의 삶의 방식에 어떤 영향을 미치

는지 실제적으로 보여줌으로써 복음이 얼마나 매력적인가를 보여주어야 한다(딤후 2:10-14).

여기에 구원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행동을 지배해야 하는 또 다른 영역이 있다. 그리스도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막 8:35) 여기에서 ‘목숨’(soul)이라고 번역된 그리스어가 폭넓은 의미를 전달하고 있음을 안다면, 이 말씀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것은 마태복음 2장 20절에서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고 한 것과 같이, 사람의 육체적인 생명을 의미할 수 있다. 또한 그것은 사람의 내적인 생명을 나타내기도 하는데, 요한삼서 2절에서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육체적으로)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고 말한 것 처럼, 사랑, 애너지, 지성, 감정, 능력, 욕망, 야망 등과 같이 생명이 단순한 존재 이상의 의미를 갖게 하는 모든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따라서, 마가복음 8장 35절의 ‘목숨’에 관한 주님의 말씀에서, 이 ‘목숨’이란 현재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대로 두 가지 함축적인 의미를 모두 전달한다.

하지만 사람이 자기의 목숨, 또는 영혼을 잃음으로 그것을 구원할 수 있을까? 이것은 모순처럼 보인다. 사실, 우리가 이생의 삶이 전부가 아니고 또 다른 세계, 즉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이것을 이해할 수 있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주신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

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막 8:38)는 가르침과 같은 문맥에 위치하고 있다.

그리스도는 예루살렘의 권력자들이 그를 죽일 것이라는 사실을 앞서 예언하셨다. 이러한 일이 일어난다면 자기도 처형당할 것을 예견한 베드로는 십자가형을 피하시도록 그리스도를 설득하려 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자신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타협하고자 하지 않으셨다. 그분은 베드로에게 그리스도를 부인함으로써 이 세상에서 자신의 생명을 구원하려고 하지 말라고 경고하시면서, 그렇게 하면 다음 세상에서 자신의 생명을 잃어버릴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우리가 알다시피, 베드로는 결국 용기를 잃고 그리스도를 부인하게 되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그리스도의 중보 덕분에, 이것은 일시적인 실수에 불과하게 되었다(눅 22:31-34).

하지만 이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이 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해 순교를 당함으로써 구원을 획득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구원은 거저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는 구주 없이 구원의 선물을 얻을 수 없다. 성경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빌 1:29)고 말씀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포기하여 이 세상에서 육체적인 생명을 구원하거나, 아니면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지키고 그분께 충성하여 이 세상에서 생명을 잃어버리는 것 중 하나를 선택해야만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고

생각해보자. 우리는 다가올 세상에서 생명을 구원하게 될 것을 확신하고, 이 세상에서 생명을 잃어버릴 준비를 해야 한다. 이와 반대로,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부인함으로써 우리의 생명을 구원한다면, 우리는 다가오는 세상에서 우리 생명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또한 이 세상에서의 삶은 어떤 상자에 넣어 안전하게 보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삶은 살아가야만 하는 것이다. 삶의 에너지, 시간, 야망, 사랑, 능력 등은 사람이나 사물, 또는 어떤 일을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 중요한 것은 무엇을 위해 이것들을 사용하느냐이다.

신자는 모든 일을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골 3:23), 그리스도의 복음의 확장을 위해 가능한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헌신하도록 부르심을 받았다. 그가 이러한 방법으로 자신의 삶을 사용하려고 할 때, 머뭇거리며 모든 종류의 희생과 '자기부인' (self-denial)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이런 사람은 세속적인 사람들에게 자신의 삶을 허비하고 잃어버리는 것처럼 보일 것이다. 하지만 실제로는 신자가 그리스도를 위해 행한 것, 그리고 그리스도와 그의 영광을 위해 사용한 모든 것은 영구적이고 영원한 가치를 얻게 될 것이다. 그 결과는 영원하다(요 12:25).

반면, 신자가 그리스도를 위해 살 준비가 되어있지 못하여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 사랑, 능력 등을 자신과 단지 세속적이고 가치 없는 것들을 위해 이기적으로 사용한다면, 그가 이러한 세속적인 것들을 위해 투자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히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이 사람의 공적을 시험하실 때

에, 그 자신은 구원을 받을지 몰라도 그의 공적은 불타서 큰 손해를 당하게 될 것이다(고전 3:10-15).

미래 시제의 구원

신자가 확신을 가지고 “나는 구원 받았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반면, 그의 구원의 중요한 부분은 여전히 미래의 일로 남아 있다. 신자가 이러한 것들에 소망을 두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것들이 확실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단지 아직 현실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그는 동일한 확신을 가지고 “나는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라고 겸손히 말하는 것도 옳은 것이다. 이러한 구원의 미래적 측면에는 아래의 것들이 포함된다.

1. 장래 하나님의 진노로부터의 구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다.”(롬 5:9, 살전 5:9-10도 참조)

2. 우리 육체의 몸의 구속: 이것 또한 그리스도의 재림 시에 일어날 일이다.

1)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빌 3:20-21)

2)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며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롬 8:23-25)

3. 그리스도인의 **최종 성화** (제 13장 참조) :

1)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잇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벧전 1:3-5, KJV 직역)

2)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 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골 3:4)

4. 그리스도인의 **천국 입성**: 신자의 천국 입성은 둘 중 한 가지 방식으로 일어날 수 있다. 주님의 재림 이전에 죽은 사람들은 그들의 몸이 아직 부활하지는 않았지만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다”(고후 5:8)고 기록되어 있다. 주님의 재림 시에 이 신자들의 죽은 몸은 부활하게 될 것

이고 아직 살아있는 신자들의 몸은 변화하게 되어 모든 신자들이 구름 속으로 끌어 올려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살전 4:13-18).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고전 15:51-52, 54)

이러한 의미에서 성경은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롬 13:11)고 말씀하고 있다. 이것이 가까워지는 이유는 하루 하루 지나감에 따라 그리스도의 재림이 더욱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이다.

형제들의 집 도서 안내

1. 조지 밀러 영성의 비밀
조지 밀러 지음/이종수 옮김/값 1,000원
2. 수백만을 감동시킨 사람을 감동시킨 바로 그 사람: 헨리 무어하우스
존 A. 비올리 지음/이종수 옮김/값 1,000원
3. 내 영혼의 만족의 노래
W.T.P 윌스톤지음/이종수 옮김/값 1,000원
4. 모든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해리 아이언사이드지음/이종수 옮김/값 1,000원
5.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
오스왈드 샌더스, 찰스 스펠전 지음/이종수 옮김/값 1,000원
6. 윌리엄 켈리의 로마서 복음의 진수
윌리엄 켈리 지음/이종수 옮김/값 5,000원
7. 이것이 거듭남이다(개정판)
알프레드 깁스 지음/이종수 옮김/값 9,000원
8. 존 넬슨 다비의 영성있는 복음
존 넬슨 다비 지음/이종수 옮김/값 5,000원
9. 로버트 클리버 채프만의 사랑의 영성
로버트 C. 채프만 지음/이종수 옮김/값 5,000원
10. 영성을 깊게 하는 레위기 묵상
C.H. 매킨토시 외 지음/이종수 옮김/값 5,000원
11. 존 넬슨 다비의 성경주석: 빌립보서
존 넬슨 다비 지음/이종수 옮김/값 5,000원
12. 존 넬슨 다비의 히브리서 묵상(개정판)
존 넬슨 다비 지음/정병은 옮김/값 11,000원
13. 조지 커팅의 영적 자유
조지 커팅 지음/이종수 옮김/값 4,000원
14. 윌리엄 켈리의 해방의 체험
윌리엄 켈리 지음/이종수 옮김/값 3,000원
15. 존 넬슨 다비의 성경주석: 골로새서(개정판)
존 넬슨 다비 지음/이종수 옮김/값 8,000원
16. 구원 얻는 기도
이종수 지음/값 5,000원
17. 영혼의 성화
프랭크 빈포드 호올 지음/이종수 옮김/값 1,000원
18. 당신은 진짜 거듭났는가?
아더 핑크 지음/박선희 옮김/값 4,500원
19. C.H. 매킨토시의 완전한 구원(개정판)
C.H. 매킨토시 지음/이종수 옮김/값 5,500원
20. 존 넬슨 다비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법
존 넬슨 다비 지음/이종수 옮김/값 1,000원
21. 존 넬슨 다비의 성경주석: 요한계시록
존 넬슨 다비 지음/이종수 옮김/값 10,000원

22. 주 안에 거하라
해밀턴 스미스, 허드슨 테일러 지음/이종수 옮김/ 값 1,000원
23. C.H. 매킨토시의 하나님의 선물
C.H. 매킨토시 지음/이종수 옮김/값 4,000원
24. 존 넬슨 다비의 성경주석: 에베소서
존 넬슨 다비 지음/이종수 옮김/값 8,000원
25. 존 넬슨 다비의 영적 해방
존 넬슨 다비 지음/문영권 옮김/값 7,000원
26. 건강하고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법
이거스트 반 린, J. 드와이트 펜테코스트지음/ 값 1,000원
27. 존 넬슨 다비의 성경주석: 로마서
존 넬슨 다비 지음/문영권 옮김/값 12,000원
28. 존 넬슨 다비의 성화의 길
존 넬슨 다비 지음/이종수 옮김/값 4,500원
29. 기독교 신앙에 회의적인 사랑하는 나의 친구에게
로버트 A. 레이드로 지음/박선희 옮김/값 5,000원
30. 이수원 선교사 이야기
더글라스 나이스웬더 지음/이종수 옮김/값 5,000원
31. 체험을 위한 성령의 내주, 그리고 충만
조지 커팅 지음/이종수 옮김/값 4,500원
32. 존 넬슨 다비의 성경주석: 갈라디아서
존 넬슨 다비 지음/이종수 옮김/값 4,800원
33. 존 넬슨 다비의 성경주석: 요한서신서 · 유다서
존 넬슨 다비 지음/문영권 옮김/값 8,000원
34. 존 넬슨 다비의 성경주석: 데살로니가전 · 후서
존 넬슨 다비 지음/이종수 옮김/값 8,000원
35. 그리스도와의 연합과 구원(성경공부교재)
문영권 지음/값 2,500원
36. 그리스도와의 연합과 성화(성경공부교재)
문영권 지음/값 3,000원
37. 사도라 불린 영적 거장들
이종수 지음/값 7,000원
38. 당신은 진짜 하나님을 신뢰하는가(개정판)
조지 풀러 지음/ 이종수 옮김/값 5,500원
39. 그리스도와 연합된 찬상적 교회가 가진 영광스러운 교회의 소망
존 넬슨 다비 지음/ 문영권 옮김/ 값 13,000원
40. 가나안 영적 전쟁과 하나님의 진신잡주
존 넬슨 다비 지음/ 이종수 옮김/ 값 2,000원
41. 죄 사함, 칭의 그리고 성화의 진리
고든 헨리 헤이호우 지음/ 이종수 옮김/ 값 2,000원
42. 하나님을 찾는 지성인, 이것이 궁금하다!
김종만 지음/ 값 10,000원
43. 이것이 그리스도의 심판대이다
이종수 엮음/ 값 8,000원

44. 존 넬슨 다비의 성경주석: 마태복음
존 넬슨 다비 지음/이종수 옮김/값 16,000원
45. C.H. 매킨토시의 하나님에 관한 진실
C.H. 매킨토시 지음/이종수 옮김/값 1,000원
46. 존 넬슨 다비의 성경주석: 여호수아
존 넬슨 다비 지음/문영권 옮김/값 8,000원
47. 찰스 스탠리의 당신의 남편은 누구인가
찰스 스탠리 지음/이종수 옮김/값 4,000원
48. 존 넬슨 다비의 성령론
존 넬슨 다비 지음/이종수 옮김/값 13,000원
49. 존 넬슨 다비의 영적 해방의 실제
존 넬슨 다비 지음/이종수 옮김/값 5,000원
50. 존 넬슨 다비의 주요사상연구: 다비와 친구되기
문영권 지음/값 5,000원
51. 존 넬슨 다비의 죽음 이후 영혼의 상태
존 넬슨 다비 지음/이종수 옮김/값 5,000원
52. 신학자 존 넬슨 다비 평전
이종수 지음/ 값 7,000원
53. 존 넬슨 다비의 요한복음 묵상
존 넬슨 다비 지음/이종수 옮김/값 8,000원
54. 프레드릭 W. 그랜트의 영적 해방이란 무엇인가
프레드릭 W. 그랜트 지음/이종수 옮김/값 4,500원
55. 홍해와 요단강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
윌리엄 켈리 지음/ 이종수 옮김/ 값 4,800원
56. 그리스도와와의 연합을 위한 성령의 역사
윌리엄 켈리 지음/ 이종수 옮김/ 값 19,000원
57. 누가, 그리스도인인가?
시드니 롱 제이콥 지음/ 박영민 옮김/ 값 7,000원
58. 선교사가 결코 쓰지 않은 편지
프레드릭 L. 코신 지음 / 이종수 옮김/ 값 9,000원
59. 사랑의 영성으로 성자의 삶을 살다간 로버트 채프만
프랭크 흄즈 지음 / 이종수 옮김/ 값 8,500원
60. 브비보셋, 룿, 그리고 욕 이야기
찰스 스탠리 지음 / 이종수 옮김/ 값 7,500원
61. 구원의 근본 진리
에드워드 테넷 지음 / 이종수 옮김/ 값 6,500원
62. 회복된 진리, 6+1
에드워드 테넷 지음/ 이종수 옮김/ 값 6,000원
63. 당신의 상상보다 더 큰 구원
프랭크 빈포드 호을 지음/ 이종수 옮김/ 값 6,500원
64. 뿌리 깊은 영성의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법
찰스 앤드류 코우츠 지음/ 이종수 옮김/ 값 9,000원
65. 천국의 비밀 : 천국, 하나님 나라, 그리고 교회의 차이
프레드릭 W. 그랜트 & 아달펠트 P. 세실 지음/이종수 옮김/ 값 7,000원

66. 존 넬슨 다비의 성경주석: 베드로전 · 후서
존 넬슨 다비 지음/장세학 옮김/ 값 7,500원
67. 존 넬슨 다비의 영광스러운 구원
존 넬슨 다비 지음/이종수 엮음/ 값 15,000원
68. 어린양의 신부
W.T.P. 윌스톤 & 해밀턴 스미스 지음/ 박선희 옮김/ 값 10,000원
69. 성경에서 말하는 회심
C.H. 매킨토시 지음/ 이종수 옮김/ 값 6,000원
70. 십자가에서 천년통치에 이르는 그리스도의 길
존 R. 칼드웰 지음/ 이종수 옮김/ 값 7,500원
71.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란 무엇인가?
에드워드 데넷 지음/ 이종수 옮김/ 값 9,000원
72. 하늘의 부르심 vs. 교회의 부르심
존 기포드 벨렛 지음/ 이종수 옮김/ 값 16,000원
73. 당신은 진짜 새로운 피조물인가
존 넬슨 다비 외 지음/ 이종수 옮김/ 값 12,000원
74. 폴리머스 형제단 이야기
앤드류 밀러 지음/ 이종수 옮김/ 값 14,000원
75. 바울의 복음,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
존 기포드 벨렛 지음/ 이종수 옮김/ 값 9,000원
76. 악과 고통, 그리고 시련의 문제
이종수 지음/ 값 9,000원
77. 요한계시록 일곱 교회를 향한 예언 메시지
존 넬슨 다비 지음/이종수 옮김/ 값 18,000원
78. 영광스러운 구원, 어떻게 받는가
존 넬슨 다비 지음/이종수 엮음/ 값 13,000원
79. 영광스러운 교회의 길
존 넬슨 다비 지음/이종수 엮음/ 값 22,000원
80. 성경을 아는 지식
존 넬슨 다비 지음/이종수 엮음/ 값 18,500원
81. 십자가의 도
존 넬슨 다비 지음/이종수 엮음/ 값 13,500원
82. 존 넬슨 다비의 성경주석: 고린도전후서
존 넬슨 다비 지음/이종수 옮김/ 값 18,500원
83. 존 넬슨 다비의 성경주석: 사도행전
존 넬슨 다비 지음/이종수 옮김/ 값 17,000원
84.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위한 사도 바울의 기도
존 넬슨 다비 지음/이종수 엮음/ 값 10,000원
85. 빌라델비아 교회의 길
해밀턴 스미스 지음/이종수 옮김/ 값 10,000원
86.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존 넬슨 다비 전기
윌리엄 터너, 에드윈 크로스 지음/이종수 옮김/ 값 12,000원
87. 성경의 핵심용어 해설
데이빗 구딩, 존 레녹스 지음/허성훈 옮김/ 값 9,000원

“Key Bible Concepts”
by David Gooding, John Lennox
Copyright©Myrtlefield Trust 2013
www.myrtlefieldhouse.com

Korean translation copyright
© Myrtlefield Trust 2017
All rights reserved

성경의 핵심용어 해설

©Myrtlefield Trust 2017

초판 발행 • 2017.10.16
지은이 • 데이빗 구딩, 존 레녹스
옮긴이 • 허성훈
발행처 • 형제들의집
판권©Myrtlefield Trust 2017
등록 제 7-313호(2006.2.6)
Cell. 010-9317-9103
홈페이지 <http://brethrenhouse.co.kr>
카페 cafe.daum.net/BrethrenHouse
ISBN 978-89-93141-92-4 03230

- * 값은 뒷표지에 있습니다.
- * 잘못된 책은 바꿔드립니다.
- * 서점공급처는 <생명의말씀사>입니다. 전화(02) 3159-7979(영업부)